

“여러 해에 걸쳐서, 나는 척 스미스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가 그분의 말씀의 약속들 안에 잠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름다운 깊이를 드러냄으로써, 다시 한 번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뿌리를 두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놀라운 본보기입니다.”

제레미 캠프(Jeremy Camp)

베스트셀링 레코딩 아티스트, Dove Award 신인상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급증”에 걸려 있는데, 척 스미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서둘러 사랑의 기술을 실행하는 것, ‘생활양식으로서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담대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서둘러 이 책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사랑을 실행에 옮기라는 권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존 테쉬(John Tesh)

저술가 겸 뮤지션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나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 중 한 분인 척 스미스가 저술한 이 책을 그의 일생의 과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실사회와 동떨어진 사색의 세계 속에서 저술되지 않았으며, 오직 척 스미스와 같은 목사만이 아주 실질적으로 사랑에 관해 저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와 그의 아내 케이(Kay)가 주님으로부터 받아 그들의 마음에 간직했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1960년대의 잃어 버린 세대에게 다가갔으며, 이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예수 사람 운동”(Jesus People Movement)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그 당시 척 목사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온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나는 지금 바로 그와 동일한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세대에 다가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불순물이 제거된 진리이며,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렉 로리(Greg Laurie)

하비스트 크리스찬 펠로우십 담임목사

“세상이 거짓되고 공허한 사랑을 외치던 1970년대에, 하나님의 사랑은 척 스미스 목사의 사역을 통해 쏟아 부어졌습니다. 나는 그의 메시지를 통해 변화받은 한 세대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는 권위와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책을 저술합니다. 만일 개인적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사랑에 대한 책을 저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내가 아는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완벽한 저술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책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영원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더 뛰어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라울 리스(Raul Ries)

갈보리 채플 골든 스프링스 담임목사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중에 무엇이 사랑보다 더 분명한 신호를 보낼 수 있을까요? 척 스미스는 모든 필요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필요를 강조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복음의 핵심에 들어 있는가를 보여 줍니다. 이 책에서 그는 사랑의 ‘졸졸 흐르기’ 효과를 입증해 보이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시 그분을 사랑하는 반응을 보이게 하며,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가장 참신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쏟아져 흘러가게 되는가를 보여 줍니다. 올 해 한 권의 책을 읽게 된다면, 반드시 이 책을 선택하십시오!”

스킵 하이직(Skip Heitzig)  
갈보리 채플 앨버커키 담임목사

“나는 50년대 유물론적 흐름 속에서 양육되어, 60년대가 제공해야만 했던 모든 거짓말을 이내 믿어 버렸습니다. 히피로서 우리는 사랑이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소위 ‘자유로운 사랑’이라는 제단 위에서 나의 첫 아들과 건강, 많은 나의 친구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척의 새 책은 단순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견고한 성경적 진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책은 참된 사랑을 추구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제프 존슨(Jeff Johnson)  
갈보리 채플 다우니 담임목사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갈보리 채플의 초창기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믿을 수 없는 자비로운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 70년대의 한 세대를 변화시켰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메시지는 다시 한 번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책을 저술한 것에 대해 척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스티브 메이(Steve Mays)  
갈보리 채플 사우스 베이 담임목사

“성경의 하나님, 즉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인격, 그분의 본질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여념이 없는 세상 속에서, 척 스미스 목사는 유일하고 참되신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이는 그분의 존재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믿는 자들에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다시 확신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입증되고 있는가를 다시 평가해 볼 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게다가, 불신자들은 이 책을 통해 그들, 즉 일반 세상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선포하는 많은 성경 기록들을 신중히 고려해 볼 것을 도전받게 됩니다.”

리키 퍼레이(Richie Furay)  
갈보리 채플 브룸필드 담임목사  
버팔로 스프링필드 밴드 멤버

“대략 40년 전, 나는 히피로서 처음으로 갈보리 채플에 걸어 들어 왔습니다. 나는 매우 회의적이었고, 기독교에 대해 그다지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역자가 기성 문화에 반항하는 사람이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전형적인 ‘보수적 시각을 가진’ 사람인 척 스미스 목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친절하고 부드러웠으며, 그의 미소는 주변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내가 이 책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척 스미스 목사의 직접적이고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척 기라르드(Chuck Girard)

크리스찬 뮤지컬 아티스트

러브 송 밴드 멤버

“사랑이 계속해서 재정의되고 있는 현 시대에, 척 스미스 목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핵심 정의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광대함과 그 능력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상기하는 것은 우리를 겸허하게 합니다. 이 책은 내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즉 희생적으로 사랑할 것을 나에게 도전합니다.”

판초 후아레스(Pancho Juarez)

갈보리 채플 몬테벨로 담임목사

“이 책의 메시지인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구원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것을 세상이 목격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리 이젤(Lee Ezell)

저술가 겸 연설가

“척 스미스 목사가 쓴 책들을 모두 읽어 보았지만, 나는 이 책에서 가장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나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때때로 압도당하기도 했으며, 간간이 멈추어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다시 한 번 읽을 생각입니다. 나는 마치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곳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친구들을 위해 이 책을 꼭 구입할 생각입니다. 확신하지만, 그들도 나처럼 행복해질 것입니다.”

크리스타 말레타(Christa Maletta)

The Word For Today

고객 서비스 부서 22년간 근무

척 스미스의 사랑

# LOVE



더욱 뛰어난 길

척 스미스 지음  
김인원 옮김

갈보리채플 극동선교회 출판부

LOVE

by Chuck Smith

© 2008 The Word For Today

Published by The Word For Today

Translated by permission of The Word For Today

TWFTK(The Word For Today Korea)는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의 기록이라고 믿고,  
성경 말씀을 온 세상에 가르치도록  
훈련하는 기관입니다.

홈페이지: [www.FarEastMission.org](http://www.FarEastMission.org)

전화: 041)557-4607

Korean edition

© 2010 The Word For Today Korea

본서에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들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2008)로부터 인용한 것입니다.



## 차례

서론: 더욱 뛰어난 길 ..... 11

제1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 19

1. 어디에도 그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 21
2. 한이 없는 사랑 ..... 45
3. 결코 끝나지 않는 사랑 ..... 73
4. 두 개의 언약, 하나의 이야기 ..... 97
5. 그분이 오신 목적 ..... 121

제2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143

6. 새로운 마음 ..... 145
7. 나뉘지 않은 마음 ..... 167
8.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 ..... 189
9. 다시 붙는 마음 ..... 213
10. 변화된 마음 ..... 235

제3부: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로 가는 하나님의 사랑 ..... 259

11.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 ..... 161
12. 사랑을 묘사하다 ..... 283
13. 활동하는 사랑 ..... 303
14. 사랑을 검증하다 ..... 325
15. 생활양식으로서의 사랑 ..... 347

후기: 그런데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 369





## 서론

# 더욱 뛰어난 길

여러 해 동안, 나는 치유의 은사를 받고 기적을 행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많은 감격적인 치유의 기사들로 인해 나는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특히 그러한 치유의 역사들이 사도들의 사역의 중요한 국면을 설명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책을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나는 치유를 다루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사도들의 삶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나는 그와 동일한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러한 기적과 치유의 은사들을 사용하셨고, 나는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은사들을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것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

하기 위해 사막 한가운데로 차를 몰고 나가곤 했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나에게 그분의 영의 효능있는 은사들을 부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해가 흘러가면서, 나는 나의 요청을 거절하신 그분의 지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자기에 대한 죽음”이라는 성경의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계속해서 실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종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은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한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하실 때, 그것은 많은 관심을 야기하는데, 특히 주변 관찰자들은 그런 사람을 존경하기 쉽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그런 유명세나 관심을 내가 다룰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지혜에 더욱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여 년이 흐르는 동안 나는 다른 교회들에서 목회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성숙했습니다(만일 내가 성숙하지 않았다면, 무엇인가 매우 잘 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갈보리 채플 코스타 메사(Calvary Chapel Costa Mesa)라는 교회의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이 그분의 풍성한 은혜로 이 교회에 대단히 많은 복을 주셨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만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저녁 예배 때, 하나님의 영이 매우 특별하게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나는 강단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임

재를 매우 강하게 인식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분이 행하고 계시는 일들과 그분의 영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그 날 밤, 백여 명의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라는 초청에 응답하여 앞으로 나왔고, 그들 모두는 다시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아름답게 역사하기를 감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일어나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영의 놀라운 역사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오래된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주님, 나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나의 사역 초기에 당신이 치유의 은사와 기적의 역사를 왜 나에게 주시지 않았는지를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것은 현명한 처사였습니다. 이제야 깨달아 알지만, 나는 그것을 다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당신이 그 은사들을 저에게 맡기실 정도로 제가 성숙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당신의 영의 매우 놀라운 역사와 당신의 은사들이 명백히 드러남을 봅니다! 만일 그것이 온전히 드러난다면, 다시 말해서 만일 우리가 치유의 은사와 기적의 역사를 포함하여 모든 것이 드러남을 보게 된다면, 그 얼마나 놀랍고 멋진 일이겠습니까! 주님, 저는 어쩌면 당신이 이제 저를 신뢰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주님은 나의 마음에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주었다.” 그분은 “나는 너에게 사랑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 문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결코 다시 그 은사들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나는 계속해서 사랑의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걸을 수 있는 특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사랑에 대한 간절한 필요

사랑하고 사랑을 받기 원하는 간절한 필요는 인간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분명히 사랑의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랑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당신이 돌아보는 곳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무엇인가로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쓴 흔적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들은 마약, 섹스, 명예, 부와 같은 그들의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그 대체물을 찾아 가게 됩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도 사랑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저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다른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려고 애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요지는 “우리는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랑하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무조건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이 갈망하는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만족시켜 줄 유일한 종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핵심 문제는, 바로 우리가 사랑을 매우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해, 우리는 사랑의 참된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을 이해하면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참된 사랑은 그것의 창조자이자 근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참된 사랑은 결코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과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기 오래 전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바로 그 행위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과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 사랑을 열정적으로 다시 그분께 돌려드리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에 찬 충만함으로부터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의 삶과 나의 삶 속에서 사랑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우리 모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갈보리 채플 코스타 메사는 루마니아에 있는 고아원을 돕기 위해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훈련을 시키는데, 그것 외에도 그곳에 가게 된 우리의 우선적인 이유들 중 하나가 무엇인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그곳에 있는 유아들을 단지 안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팔에 꼭 껴안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구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유아들의 두뇌 발달은 신체 접촉과 사랑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 모두처럼 사랑받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함으로 인해 “성장 결핍”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유아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과 접촉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문제들을 생애 동안 심각하게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안아 줄 팀을 그곳에 보낸 이유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아들조차도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만큼이나 흥미로운 또 다른 사실은, 많은 어른들이 그들이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하게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한 필요를 깊숙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우리는 사랑이신 그분을 반영합니다. 성경은 사랑을 주고 받는 상호 교환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비로소 이 상호 교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놀라운 실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도록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이 의도하신 방식대

로 사랑하는 데 우리의 날들을 보내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먼저,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애정 어린 눈동자를 잠시 동안 응시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그 신적인 사랑을 그 근원으로 되돌려 반영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구원하고자 하셨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이 향하도록 할 것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주님은 훌륭한 사랑의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샘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A decorative circular frame with a heart and floral motifs. The frame is composed of a thick outer border and an inner border. Inside, there are stylized floral and leaf patterns. A large heart is centered in the lower half of the frame. The text is centered within the heart.

제1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노라.”

(요한일서 4:16)

만일 당신이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인 것을 모른다면, 당신이 그분께 자비를 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이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될 때, 당신은 기쁨에 찬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 바위 같은 견고한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성경의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요한일서 4:8,16).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를 한 번도 그만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선할 때 당신을 사랑하시거나 당신이 악할 때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부단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그분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위한 그분의 사랑은 당신이 어떤 상태인가에 달려 있지 않고,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 어디에도 그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1960년대의 대규모 문화 변화는 떠들썩한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형성되어 우리가 항상 미국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우리 눈 앞에서 매우 다른 어떤 것으로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아내 케이(Kay)와 내가 당시 젊은이들이 들고 있었던 평화! 사랑! 이해! 라고 기록된 항의 표지판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평화와 사랑과 이해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 연애, 정치적 급진주의, 마약, 동양 신비주의와 같은 잘못된 곳에서 그것들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와 사랑과 이해를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히피들이 우리가 사는 인근 지역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던 그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낡은 밴을 타고 긴 머리와 할머니 안경, 맨발에 더러운 청바지 차림의 이 아이들을 보았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더러운 히피들아! 왜 너희들은 일자리를 구해서 올바르게 살지 않는거야? 머리 좀 깎고 일하러 가라!’

그러나 케이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오, 정말로 불쌍한 아이들이야! 그들이 예수님을 알 필요가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녀에게 동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지 않아 나는 주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어찌다 히피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 또한 내 것이다. 그들이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바로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나의 사랑과 평안이다.” 그러나 순수하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젊은이들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저들은 가장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무리들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주님이 그 하위 문화에 이르러 열심히 수천의 젊은 제자들을 그분 자신에게로 이끄시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젊은 남녀들의 마음 속을 들여다 보셨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다니거나 사랑 혹은 평화를 찾아 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남가주의 변두리로 히피들이 이주해 오는 것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케이의 마음은 점점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러던 어느날 그녀는 한 히피 젊은 여자가 치렁치렁한 드레스를 입고 비틀거리며 거리를 걸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젊은 여자가 어느 상점의 진열장을 응시하고 있을 때, 그녀는 완전히 길을 잃고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케이에게 우리 가족이 어떤 종류의 사랑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Jesus People Movement”(예수 사람 운동)라는 흐름 속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젊은 구도자들의 삶을 관통하는 것을 지켜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히피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식을 통해 수천 명의 남녀가 참된 평화와 사랑과 이해를 찾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뻐했습니다. 또한 이 젊은이들이 기쁨과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소개할 때, 그들과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지켜보며 우리는 감격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사랑의 여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다른 이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참된 사랑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모두를 위한 여정이 반드시 시작되어야 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 놀라운 사랑의 능력

사랑은 정말이지 믿기 어려운 정도로 효능있는 힘입니다! 하지만 어

느 옛 노랫말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랑은 이 세상을 돌아가도록 만듭니다”라는 의견에 과학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사랑은 강한 영향력이 부족하다고 하지 만, 나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서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만은 확실히 압니다.

사랑은 전력을 다하도록 당신을 고무시키는 힘입니다. 사랑은 당신의 삶을 가치있게 만듭니다. 사랑은 당신이 일어나 다시 시도하도록 만듭니다. 역사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 영웅적인 행동을 감행했던 남녀의 이야기들로 넘쳐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극도의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사랑의 힘은 극복할 수 없는 불평등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저지하면서 위압하는 도전들에 대항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정말이지 사랑은 매우 강력한 힘입니다! 이보다 더 강하고 더 깊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전설적입니다. 사실상,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그녀를 동물과 같은 수준에 놓습니다. 성경 자체도 그런 어머니를 “타고난 애정이 없으며”(로마서 1:31; 디모데후서 3:3)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 많은 어머니와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하나로 묶는 강하고 자연적인 유대 관계를 기대합니다. 나는 이러한 자연적인 유대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여러 가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년 후에, 나는 나의 아내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치지 않는 헌신을 보이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와 동일한 종류의 어머니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은 시기에 몹시 힘들어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어려운 시간 동안 케이가 어떻게 사랑으로 인해 그 기나긴 고뇌의 시간들을 기도 가운데 보냈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놓아 주기를 거부하고 기도 가운데 매달리는 단호한 나의 아내의 중보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이지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강한 결속력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합니다.

이제 나는 신부를 위한 한 남자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목사로서, 결혼식 당일에 한 쌍의 젊은 남녀 앞에서 있을 때, 나는 이런 종류의 사랑에 대한 개관적인 견해를 얻습니다.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상대의 영혼을 깊이 있게 응시하며 서로의 눈을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나는 그들 가까이에 있으면서 소리 없이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그들의 떨리는 입술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 때까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사랑의 서약을 선포하는 그 특별한 순간에 이르렀을 때, 나는 그들의 몸이 흥분하여 떨리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서로에게 그들의 삶을 헌신합니다. 사랑의 서약이 그들을 결혼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결혼 50주년 혹은 그 이상을 축하하는 노부부에게서 훨씬 더 위대한 사랑의 서약을 봅니다. 그들은 모든 폭풍우를 함께 헤쳐

나갔습니다. 그들은 돌풍과 심한 눈보라와 가뭄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이제 그들은 너무 깊고 강한 유대 관계를 즐기고 있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서로에게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고, 또한 상대가 말하기도 전에 그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거나 수년에 걸친 풍부한 경험을 통해 서로를 응시하는 것을 지켜보노라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이처럼 오래 지속되는 사랑의 서약은 정말이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정이나 형제애와 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이 좋은 사람들이 가까운 친구 관계에서 경험하는 깊은 사랑입니다. 그들이 함께 일을 하거나 같은 편이 되어 함께 싸우거나 혹은 한 팀에서 함께 경기를 할 때, 그들 상호간의 칭찬과 존경은 극도의 도전과 심지어 위협의 시기를 거치며 더욱 확고해집니다. 이것은 전쟁터에서 자기 소대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류탄 위에 자신의 몸을 던지도록 만드는 그런 종류의 사랑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베스트셀러들은 사랑이 동기가 된 그러한 엄청난 영웅적 행위에 기초해서 쓰여진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한복음 15:13).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사랑의 서약은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아내를 위한 남편의 사랑보다, 혹은 전우를 위한 어느 군인의 사랑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서약은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과 함께 서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해할 수 없는 선물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에베소서 3:18-19).

솔직히, 나는 바울의 이 요청에 매료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훨씬 능가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알다” [*ginosko*]라고 번역된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의 실마리를 던져 주는데, 그것의 원어상의 의미는, “경험에 의해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직접 경험함으로써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그것에 대해 말해 줌으로써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신 스스로 그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매우 많이 사랑하십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속하시기 위해 기꺼이 가고자 하셨던 그 깊이를 당신이 헤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가고자 하시는 그 높이를 당신이 탐험할 수만 있다면! 이는 그분이 하늘에 있는 장소에서 당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고, 그분의 영원한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을 공동 상속자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

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이를 당신이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광대함은 모든 인류와 모든 백성과 종족과 나라를 망라합니다. 그것은 모든 남성과 여성, 소년과 소녀들에게까지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밖에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 보다도, 당신을 위한 그분의 사랑, 즉 그것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그분의 자비[혹은 사랑]는 영원하시도다”라는 구절을 50번 정도 접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매우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영원히 존재하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으로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최고의 특징입니다.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대형 쓰레기 수납기에서 시들은 꽃대발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그것들을 꺼내어 되는 대로 정리해서 마침내 아내에게 주려고 집으로 가져 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이라면 감동을 받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케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해, 여보. 여기 시들은 꽃들을 좀 가지고 왔어”라고 말하는 것은 나

의 목적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대형 쓰레기 수납기에서 꽃을 주워다가 케이에게 가져다 준 일은 없었지만, 장례식이 끝난 후에 그녀에게 멋진 꽃다발을 가져다 줄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꽃다발을 남겨 두고는 “필요한 분은 가져다 쓰세요”라고 말합니다. 나는 두 세 번 화려한 꽃들과 다른 멋지고 심지어 진기한 꽃들로 가득 찬 백 달러 정도 되는 몇 개의 꽃다발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때 케이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장례식 있었어요?”

비록 누군가는 큰 돈을 지불하고 그 꽃들을 샀지만, 나는 전혀 돈을 들이지 않고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나의 이런 제스처는 그녀에게 많은 의미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몇몇 진취적인 아이들이 운영하는 작은 길모퉁이 노점상에서 작은 한 묶음의 카네이션을 사기 위해 멈추어 서는 것만큼의 의미도 그녀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참된 사랑은 엄청난 것을 주는 것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좋은 것을 당신에게 줌으로써 그분의 사랑의 크기를 당신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당신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분이 얼마나 많은 값을 치르셨는가를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선물은 그분이 당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를 증명해 줍니다.

## 받을 자격이 없었던 선물

내가 케이에게 꽃을 가져다 줄 때, 나는 그녀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녀는 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예쁜 꽃다발이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 여인에 대한 나의 사랑을 대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그분의 아들은 그와 같은 어떤 것도 훨씬 능가합니다. 사실상,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최하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을 때조차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로마서 5:8).

예수님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분에게 반역하고 있을 때, 여전히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을 때, 여전히 과녁을 맞추지 못하고 있을 때, 그분은 기꺼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조차도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았습시다. 우리는 선하지 않았습시다.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도록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광대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을까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을 양도했을 때였을까요? 당신이 교회 예배 시간이나 복음 전도 행사 때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왔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일까요? 그 순간 하나님이 “오, 듣기 좋지 않아? 이제부터 그를 사랑할 거야”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당신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 주님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분은 내가 열심히 애쓰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야. 그분은 내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 아니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불경건한 더러움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역겨워하시고, 우리에게 실망하시고, 심지어 우리와의 관계를 끝내 버린 것이 틀림 없다고 상상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대해 몹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신 것이 틀림 없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수년 전, 나의 딸 잔(Jan)은 꾸지람을 들은 후에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라는 일상의 과정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녀를 사랑하지 않으며, 엄마와 아빠도 그녀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오, 그럼, 우리가 널 사랑한다” 라고 우리는 작은 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아니오, 엄마 아빠는 널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그녀는 단언했습니다. 그녀가 굴복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자, 나는 마침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오, 아니오, 그분은 널 사랑하지 않아요.” 그녀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나는 조금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분은 널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분은 단지 구름 사이로 머리를 불쑥 내밀고는 나를 향해 혀를 내밀었던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예수님을 상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질리셔서 이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고 우리 자신에게 말합니다. 실은, 그와 같이 행동하시는 그분을 내가 이해하는 한, 그분은 도무지 그렇게 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무엇을 얻었는가를 아십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로마서 5:8).

## 영원한 사랑의 언약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요한일서 4:10).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당신을 사랑하셨고, 이제 당신과 사랑의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그분은 당신과 영원을 함께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로 만들 때까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잔을 들고 제자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그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누가복음 22:20). 이 새 언약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당신의 죄책을, 당신이 받아야 할 비난을, 당신이 받아야 할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당신의 죄에 대한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당신과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분과의 사랑의 언약 안에 들어오도록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당신을 통해 그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당신이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그분의 사랑에 대해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부모들, 특히 아빠들은 아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살기를 좋아합니다. 나의 아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겨우 두 살이었을 때, 그는 내 손에 야구 장갑을 끼우고는 나에게 야구공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살쯤 되었을 때에는 나는 어떤 타구도 능숙하게 처

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항상 나에게 럭비공을 던지거나 뒤뜰에 농구 골대를 설치하거나, 혹은 나를 테니스 코트에 데려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럭비 경기에서 득점한 이후 나의 십대 시절 내내, 나는 소리치며 응원하는 수천 명의 팬들 위로 아빠의 목소리를 항상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보다 더 소리 높여 외쳤을 것입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그는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는 “저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라고 말했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의 아빠는 나의 업적이 자신의 것을 능가하기를 바라며 아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나는 그가 나를 곧 그의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며, 나의 체육상의 공적을 통해 나에게 돌아오는 갈채 속에서 기뻐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동일하게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두 번의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가 내 아들이야!”라고 말씀하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한 목소리가 하늘로부터 울려 나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마태복음 3:17). 다른 말로 하면, “여보게들, 그가 내 아들일세!”라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다시 변화산에서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매우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마태복음 17:5)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이 사랑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분의 삶, 즉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소망과 그분의 행

동을 표현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이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입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위해 큰 공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주님은 당신 주변의 세상에 그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당신을 사용하시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당신을 돌보는 일에 동의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기로 서약하십니다. 시편 91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라.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니(시편 91:1-2).

같은 시편의 끝부분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사랑을 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은즉 내가 그를 높이 세우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그를 만족시키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14-16절).

이는 당신이 그분과의 사랑의 언약 안으로 들어갈 때, 당신을 위해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묘사한 것입니다. 이 모든 부요한 복들과 놀라운 혜택은, 당신이 “당신의 사랑을 그분께 쏟을” 때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당신을 데려가실 것이며, 당신은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올 세대에 걸쳐서,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친절의 넘치는 부요함을 당신에게 나타내실 것

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데 영원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옛 찬송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구 찬송가 404장).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당신과 함께 사랑의 언약 안으로 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 당신 위에 나부끼는 그분의 깃발

여러 해 전에 우리는 통가(Tonga) 왕의 생일 축하연에 초청을 받았 습니다. 우리는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축구 경기장에 모였는 데, 그곳에 배열된 식탁들은 그 늘어선 길이가 대략 100미터는 되었고, 그 위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식탁들을 덮고 있는 진수성찬은 좁이 많은 돼지고기와 온갖 종류의 과일들과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요리의 즐거움들로 가득했으며, 늘어 놓으면 아마 4백 미터는 족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연회에 초대된 각 섬의 단체는 손님들이 앉을 자리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기 지정된 식탁 위에 깃발을 두었습니다. 우리도 곧 우리 단체를 찾았고, 철저하게 기억될 만한 식사를 즐기기 위해 앉았습니다. 나는 그토록 많은 음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일을 맞은 왕은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일류 연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구약 성경

에서 내가 좋아하는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잔칫집으로 인도하시니 내 위에 나부끼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던도다  
(야가서 2:4).

당신은 성대한 만찬이 준비된 대형 연회장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수천 개의 준비된 자리를 보면서도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적절한 자리를 찾기 시작하지만, 어떤 것도 당신을 위해 예약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내 당신은 장내를 가로질러서 친숙한 깃발을 찾아 내고는 그것을 향해 걸어 갑니다. 거기에서 당신은 자신의 이름표를 찾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자리를 찾았을 때, 당신은 “저기 내 이름표가 있네요. 여기가 내가 앉을 자리로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앉아서 식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그와 같은 특별한 자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보이십니까? 당신 위에서 나부끼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당신이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적극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중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가운데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구애하는 동안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만일 그가 (혹은 그녀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사랑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속임수를 가지고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가 혹시라도 당신의 겉옷에 음료라도 흘리게 되면,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 괜찮아요. 아이구, 전혀 문제 될 거 없어요. 제가 세탁할 수 있대니까요. 문제 없어요.” 그러나 한편 속으로는 ‘이 꼴사나운 멍청아!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그가 연달아 3일 동안 저녁 식사를 위해 당신을 맥도날드로 데리고 가면, 당신은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맥도날드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래요, 저 감자 튀김하고 빅맥 좋아해요.” 이렇게 당신은 매우 친절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 미소 저변에서 당신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 구두쇠야, 왜 좀 더 고급스런 곳으로는 가지 않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감히 그 진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가 항상 친절하며 웃고 있다고 생각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화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로움의 바로 그 전형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속임수에 연루됩니까? 이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면, 그가(혹은 그녀가) 우리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는 날까지 그것을 비밀로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가 진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그 진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충격에 휩싸이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에 대한 진실을 내내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그분과의 사랑의 언약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분은 이미 당신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아

시며, 심지어 당신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나쁜 성질도 알고 계시지만, 어쨌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여러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앞과 뒤를 아시고, 안과 밖을 아시며, 위와 아래를 모두 아시지만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연회에 초청하시고, 그 연회장에서 당신 위에 나부끼는 깃발은 사랑입니다. 그분은 모든 회중과 온 세상에 이렇게 알리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나의 소중한 자라.”

###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주님은 당신과의 법적인 관계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불순종에 따른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분께 복종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종종 큰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지옥의 구덩이에 사람들을 달아 매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기 위해 웃거나 다른 어떤 것도 행하기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별별 떨면서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그들을 바보같이 두렵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그들은 단지 기름에 튀겨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에 고착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아내나 남편과의 그런 관계를 원치 않는 것보다 더 당신과의 그런 관계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을 하는 게 좋을 거야, 여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사정 없이 때려 눕힐 거

야.” 나는 나의 아내가 나의 고약한 기질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동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셨다”(고린도후서 5:14)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를 이끈 것은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연회장으로 나를 초대하시며, 내 위에서 나부끼는 그분의 깃발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부단하고 순수하며 강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약함과 실패를 이기며 당신의 유익만을 추구합니다. 여러 차례 당신은 당신의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불쾌한 하루를 보내고 기분이 언짢거나 나 자신이 싫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작고 아담한 종이 위에 크고 굵은 글씨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한가득 써 놓는 것과 같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정말이지 믿어지지 않아요. 당신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이 무엇인가를 받을 가치가 없고 또 그럴 자격이 없으며 초라하게 느껴질 때, 바로 그 때가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 주시려고 하는 때입니다. 나를 위한 그분의 사랑은 나의 기분 변화나 기질에 따라 나날



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끊임 없고, 오래 지속됩니다.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멈추거나 사라지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정확하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 맛보고 알지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사랑이 참으로 얼마나 좋은지를 직접 경험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시편 34:8).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맛볼 때까지는 그것을 정말로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내가 그것에 대해 당신에게 말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나의 놀라운 경험에 대해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시고 당신을 위해 행하기를 원하시는 몇몇 위대한 일들을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직접 그것을 맛보기 전에는, 당신은 결코 그것을 정말로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음, 그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기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들이 직접 그것을 맛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혹은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다니 다행입니다. 좋은 일이군요. 당신이

더 이상 마약을 하지 않는다니 참 기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직접 그것을 맛보기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너무 부요해서 최상급의 말로만 묘사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이어서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요한복음 10:10). 예수님은 단지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고 부요하며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지는 기쁨을 증거할 때, 그는 단순하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에 관해 기록합니다(베드로전서 1:8). 당신은 그 기쁨을 묘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광으로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기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단지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묘사합니다(빌립보서 4:7).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필적할 수 있는 것을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당신이 인간의 차원에서 알 수 있거나 느낄 수 있는 어떤 것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사랑에 이끌리어 그분께 나아온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것들을 적당히 묘사할 수 있는 말이나 어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기 위해 당신은 그것을 맛보아야만 합니다.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당신은 그것을 맛 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기쁨에 차 있는 솔로몬의 신부와 함께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아가서 2:3).







## 한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요?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많은 땅 덩어리를 덮을까요? 시편 103편 11절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긍휼이[사랑이] 크시도다.”

그러면 이 땅 위의 하늘은 얼마나 높을까요? 특히 우주를 더 깊이 탐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망원경의 출현으로, 천문학은 지난 몇 년 동안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갖춘 과학자들이 이 땅 위에 있는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에게 말해 줄 수 있을까요? 최근까지, 천문학자들은 그 거리를 12억 광년으로 어렵혔는데, 이는 그들이 우주를 응시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나은 망원경을 사용해서 15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새로운 은하계를 관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3억 광년씩 커졌습니다!

나는 우주가 그보다 더 광대하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천문학자들이 더 많이 발견하면 할수록, 나는 이전보다 더 높고 이전보다 더 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연구하십시오. 당신들은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내가 그분의 한계에 도달했음에 틀림이 없어’라고 느낄 즈음이면, 그들은 또 다른 2억이나 3억 혹은 5억 광년 더 떨어져 있는 더 많은 은하계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랫동안 나를 보호하실 거야”라고 말합니다.

### 그것이 더 좋습니다

어떤 천문학자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죄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시편 103:12)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저자가 기록했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는 구절보다는 “북이 남에서 먼 것 같이”라는 구절을 사용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북은 남에서 대략 2만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북극에 도달할 때까지만 북으로 여행할 수 있고, 그리고 나면 다시 남으로 머리를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남극에 도착하자 마자, 다시 한 번 북으로 향해 가야 합니다. 당신의 죄들을 당신으로부터 2만 킬로미터 정도 멀리 옮겨 놓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만큼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밤 동쪽으로 날아가기를 시작한다면, 당신이 방향을 바꾸거나 연료를 다 써 버리지 않는 한, 당신은 나머지 생애 동안 계속해서 동쪽으로 날아야 할 것입니다. 혹은 당신이 정확하게 서쪽으로 날기를 시작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계속해서 서쪽으로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 그 저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북이 남에서 먼 것 같이”라는 구절보다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는 구절을 기록하게 하시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나는 나의 죄들이 북이 남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죄들과 죄책을 완전히 옮겨 버리신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좋아하는데, 그것은 오로지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 때문입니다.

### 사랑을 정의하다

어느날 아침, 나는 어느 뉴스 해설자가 어떻게 우리가 끊임없이 사전에 단어들을 추가하고 있는가를 묘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해설자는 우리가 새로운 단어 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그 단어를 대중화시키는 사람들, 특히 뉴스 캐스터들이 먼저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 새로운 용어를 채택하는 청취자들은 그것이 사방팔방으로 가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용어로 하나님이 의미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행하게도, 영어는 하나님이 그 용어를 통해 표현하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전달하는 적절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내에 대한 나의 가장 깊은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I love my wife, Kay”(나는 나의 아내, 케이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핫 퍼지 아이스크림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묘사하고 싶을 때, “I love hot fudge sundaes!”(나는 핫 퍼지 아이스크림을 사랑합니다!)처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은, 비록 “love”(사랑하다)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핫 퍼지 아이스크림에 대해 내가 느끼는 것과 나의 아내에 대해 느끼는 것은 서로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넓은 스펙트럼과 어떤 존재의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love”라는 한 가지 영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한편, 신약 성경의 언어인 고대 헬라어는 사랑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세 개의 주요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이 세 가지 수준, 즉 육체적, 감정적, 영적인 수준에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영적인 면을 그다지 잘 이해하지 못했던 반면, 육체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은 잘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수준에서 사랑을 묘사하기 위해 ‘에로스’[eros]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에로스는 사랑의 신이었으며, 열정과 육체적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배우자였습니다. 오늘날 할리우드(Hollywood: 미국 영화 제작의 중심지)가 사랑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리스의 에로스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육체적인 수준, 즉 성애(erotic)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이 항상 사랑은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극도



로 자기 중심적이기 쉽고, 끊임없이 자기만족을 추구합니다. 매우 빈번하게 그것은 “욕망”(lust)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은막계에 있는 사람이 “Let’s make love”(사랑을 합시다)라고 목소리를 올려 말할 때, 그것이 반드시 사랑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에로스라는 용어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좋아함이나 우정을 묘사하기 위해 보통 ‘필레오’ [*phileo*]나 ‘스톨게’ [*storge*]라는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자녀들에 대해 가지는 자연적인 애정, 어머니가 가족에 대해 가지는 사랑, 혹은 당신이 친구들에 대해 가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수준의 사랑으로, 할아버지가 손자나 증손자에 대해 가지는 그런 종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당신이 경험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인류를 함께 묶어 주는 가족 관계와 유대 관계를 묘사합니다. “필라델피아”(Philadelphia)라는 이름은 두 개의 헬라이어 ‘필레오’ [*phileo*, 사랑]와 ‘아델포스’ [*adelphos*, 형제]가 합성된 것으로 “형제 사랑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필레오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혹은 나이든 여자들에게 젊은 여자들로 하여금 남편을 사랑하도록 가르칠 것을 말씀하실 때, 또 다시 그분은 필레오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이는 좋아함과 존경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필레오나 스톨게는 보통 상호적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잘 지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

다. 우리는 같은 종류의 음악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같은 종류의 책들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사점들을 가지고 있고 서로를 보완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나는 필레오의 범위에서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상호적인 종류의 사랑으로 진심에서 우러나는 주고 받기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용어를 스물 두 번 정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인들도 몰랐고 현대의 세속적인 세상도 알지 못했던 영의 영역에 들어가면, 당신은 기본적인 인간의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의 깊이를 발견합니다. ‘아가페’ [agape]는 감정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육체적인 매력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의 차원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다만 그 사랑의 대상을 껴안기 위해 단순히 손을 뻗칩니다.

이러한 신적인 개념이 신약 성경이 구체화되던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의 저자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헬라어 단어 하나를 취해서 육체적 사랑이나 감정적인 사랑을 능가하는, 즉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 그것을 변형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본질적으로 사심 없이 주는 그런 사랑을 묘사하기 위해 ‘아가페’ 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포용력 있고 애정 깊은 태도를 묘사하기 위해 신약 성경이 끊임없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이 너무 깊고 너무 커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것의 깊이와 강함과 그 능력의 방대함을

묘사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하나의 단어를 발명해야만 했습니다.

## 풍성한 긍휼,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최상의 답을 얻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망 없이 길을 잃어 버렸으며, 사탄의 세력에 붙들려 마귀와 우리 자신의 구속되지 못한 육신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때문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그분은 우리가 멸망당하여 실족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에베소서 2:4-5).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크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며 우리의 불법을 자랑할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리 떠나 있을 때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냐구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정수이며 본질입니다. 사랑은 그분의 모든 것입니다. 고유의 헬라어로 말하면 ‘테오스 아가페 에스텐’ (*theos agape esten*: God love is),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한일서 4:8)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요한일서 4:9).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사랑의 크기를 가장 힘있게 입증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을 통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즉 그분의 고난과 고통과 고뇌를 기념하기 위해 성 금요일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입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결코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기 원할 때마다, 성경은 항상 갈보리(Calvary)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로마서 5:8).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많이 배우지 못합니다. 자연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연은 그분의 실재에 대한 매우 강력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자연은 우리의 죄로 인해 파괴되고 훼손되었습니다. 가젤(아프리카 영양의 일종)의 놀라운 디자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아한 품위와 뛰어난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

다. 가젤은 놀라운 신적 디자인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더 오래 지켜보면, 당신은 한 마리의 사자가 그것을 땅에 쓰러뜨리고는 게걸스럽게 먹어 치우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 혼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당신에게 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명백한 계시를 얻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는 우리에게 신은 욕망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또한 많은 종교들이 증오를 독려합니다. 그것들을 신봉하는 자들이 “만약 믿지 않는다면,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할 때, 미움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일관성 있는 계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공하는 가장 위대한 증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 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신 것이라(요한일서 4:10).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다시 태어났으며, 우리의 영은 살아났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알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라(요한일서 2:2).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 보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느끼는 것이 반드시 사랑은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불완전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화해”(propitiation)라는 단어는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그것은 ‘코팔’ [kophar]이라는 용어로 등장하는데, 이는 “덮개”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은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 즉 속죄소를 묘사하기 위해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뚜껑 위에 황금으로 된 두 천사가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서 있었습니다. 언약궤 전체는 하늘에 존재하는 것을 모델로 구상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와 같은 피조물에 둘러싸인 채 속죄소에 앉아 계셨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겨 놓으신 두 개의 돌판이 놓여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가 어떻게 율법 위에 떠 있게 되었는지는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일 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속죄소 위에 희생물의 피를 뿌리기 위해 언약궤 앞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율법 위에 위치해 있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릴 때, 이것은 그들의 죄들을 덮는 덮개를 의미했으며 매우 상징적이고 매우 강력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들을 덮는 덮개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취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심으로(베드로전서 2:24) 하나님의 공의

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위해 기꺼이 행하셨던 것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분의 거대한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 대해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14:4)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십니다. 호세아의 시대 이후 수세기가 지난 뒤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며 그의 전임자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신 이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로마서 8:32)

이것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과 나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아낌없이 이미 주셨다면,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사소한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습니까?

##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풍성해서,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사도

들이 했던 것처럼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한량 없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클까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한복음 15:13). 요한이 예수님의 아낌 없는 자기 희생에 감탄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요한일서 3:1).

구원자가 마침내 지구상에 도착하기 수세기 전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대로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소서”(시편 33:22). 당신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분은 엄청난 사랑을 당신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께 소망을 두는 정도에 따라, 그만큼 그분은 당신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모두는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가능해졌으며,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의해 유발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오는 세대에 걸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과 사랑의 넘치는 부요함을 당신과 나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발견하는 데 영원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공허가 너무 커서, 그 공허의 깊이를 발견하는 데 무한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함의 그 깊이와 높이어!

## 최고의 만족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어마어마한 깊이를 묵상할 때, 그 사랑이 당신 자신의 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 숙고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구성에 걸맞는 어떤 좋은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충만하고 풍요롭고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당신이 발견하게 될 만족은 정말이지 완전한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며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 그런즉 사람의 자녀들이 주의 날개 밑에서 주를 신뢰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주께서 주의 기쁨의 강물을 그들에게 마시게 하시리이다(시편 36:7-8).

하나님은 공허가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고 인자가 넘치도록 충만하십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므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적절하고 바르고 좋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당신의 집의 충만함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당신이 사랑 받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당신이 이제까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당신의 삶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

신은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 안에서 걷는 것에서 오는 풍성한 만족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그분이 즐겨 행하시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즐거움의 강으로부터 그들에게 마실 것을 주십니다.” 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걷는 그 기쁨, 주님을 위해 사는 그 즐거움,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오는 최고의 만족! 그것은 매일 매일의 순전한 기쁨이요 완전한 즐거움입니다.

내가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할 때면, 솔로몬의 아가서가 자주 마음에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에 존재하기 원하시는 사랑에 대한 영적인 풍유로 그것을 바라보려고 한다면, 나는 우리가 이 구약의 책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같도다”(아가서 2:2).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어둠과 죄와 가시로 가득 찬 세상의 배경에 대항하여 끝까지 버팁니다. 기억하겠지만, 가시는 아담의 죄에 대한 저주의 결과로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그 저주 아래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신부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신부는 신랑의 사랑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들들 가운데 계신 나의 사랑하는 이는 숲의 나무

가운데 사과나무 같으니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앉아 크게 기뻐하였고 그분의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2:3).

숲을 가로질러 걸을 때, 당신은 대부분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을 발견하겠지만, 많은 아름다운 나무들과 꽃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나무들은 그 크기 때문에 두드러지고, 또 다른 것들은 조화로움 때문에 눈에 띄입니다. 또 다른 것들은 기분 좋은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숲 속을 걷다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지쳐 있던 중에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가득 달린 사과나무를 만난다면, 그 나무는 다른 모든 나무들보다 두드러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배고픔을 만족시키고 갈증을 풀어 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에 비유할 때, 그녀는 그 나무가 특별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기분을 상쾌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영양분과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그녀의 신랑은 맹위를 떨치는 그녀의 갈증을 풀어 줍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 6:35)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때에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요한복음 4:14).

예수님은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모든 자들에게 완전한 만족을 약속하

십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갈증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의 메디슨 애비뉴(Madison Avenue: 미국 뉴욕의 광고업 중심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욕망에 호소하는 법을 압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는 바로 행복에 대한 욕망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상품들이 이런 저런 방식으로 “이것을 사면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챌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일단의 잘 생기고 건강한 젊은이들이 콜라를 마시며 웃고 떠들면서 삶을 즐기는 모습을 봅니다. 이에 따르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은 단지 우리 상표의 콜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삶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 가는 참된 이유이며, 삶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그들은 만일 당신이 그들의 상품을 구입해서 사용한다면, 당신의 삶이 마침내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인상을 당신에게 심어 줍니다. 당신의 미소는 모든 사람을 당신에게 끌어 당길 저항할 수 없는 광채를 얻을 것입니다. 당신은 곧 유명하게 될 것이고, 당신이 그토록 되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상품을 사용하기만 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당신은 행복과 만족에 대한 그러한 약속들의 헛됨을 압니다. 그들은 우리를 만족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한번은 어떤 사람이 CNN의 창설자인 테드 터너(Ted Turner)에게

그의 성공에 관해 물었을 때, 그는 “그것은 따분한 것입니다. 삶은 지루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거물 부동산업자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바바라 월터스(Barbara Walters)와 함께 이야기 하면서, “신나는 것은 쫓아가는 것이고, 사실 정복은 실망스럽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많은 일들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은 쫓아가는 것과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루거나 그 기대를 얻게 되면, 우리는 다시 목마른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신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분은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입니다. 그분은 나의 갈증을 풀어 주고 나의 배고픔을 만족시키십니다.”

해외로 여행할 때, 나는 종종 마시는 물에 대해 염려하며 초조해 합니다. 더욱이 비행에 대한 어떤 것이 쉽게 나를 탈수 상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 즈음이면, 나는 종종 아픔에 가까운 갈증을 느낍니다. 이는 단지 마실 것을 충분히 섭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통 병에 든 물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면서도 항상 사과 한 꾸러미를 챙겨서 가지고 갑니다. 내가 물을 필요로 할 때, 나는 좋은 사과 하나가 항상 나의 갈증을 풀어 주는 것을 발견합니다. 게다가, 그것은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로 본다는 신랑에 대한 신부의 묘사에 대해 내가 특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당신의 삶의 필요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당신의 갈증을 풀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만이 그것을 행하실 것이며, 다른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그녀가 큰 기쁨을 가지고 사랑하는 신랑의 그늘 아래 앉았다고 말했습니다.

오, 예수님의 사랑의 그늘에 가리워져 그분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수년 전에 우리는 “*Overshadowed*” (가리워지다)라는 제목의 노래를 교회에서 부르곤 했습니다. 그 중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얼굴이 이 땅에 모든 길들을 밝히 비추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면, 나의 밤과 낮은 얼마나 어둡고 쓸쓸했을 것이며, 나의 삶은 얼마나 황폐했겠는가. 나는 그분의 강력하고 영원하며 변함없고 순수한 사랑의 그늘에 가리워졌다네. 그분의 강력한 사랑의 그늘에 가리워져 어제 나는 고요히 안전하게 침을 얻었네. 그분은 죄로부터 나를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고, 이제 날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사신다네. 나는 나의 모든 길을 밝히 비추시는 강력한 사랑의 그늘에 가리워졌다네(*Overshadowed*, H.A. Ironside and George S.Schuler 작사 작곡, 1935).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시편 91:1).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즐길 수 있고 그분의 한없는 사랑으로 그늘진 그 즐거운 곳에 가 보았습니까? 그분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사랑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알 때, 당신은 내일이 가져올 것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당신을 도우시기 위해 거기에 계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그늘은 큰 두려움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밤에 혼자서 길을 걷다가 가로등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당신의 그림자 외에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있는 것을 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은 누굴까? 내 것 옆에 있는 또 다른 그림자는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일까?’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 밑에서 쉬며 그분의 그늘 아래 안전하게 앉아 있을 때, 당신은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사랑하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큰 기쁨을 발견했습니까? 당신은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까? 당신은 솔로몬의 젊은 신부와 같이, “그 그늘 아래서 내가 큰 기쁨을 찾았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 왜 그것을 믿어야만 할까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나의 기운을 돋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대부분의 나의 정보가 성경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 차렸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구절들이 진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모두가 가짜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에 관하여, 솔로몬은 당신에게 들려 줄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며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에, 그는 훌륭한 새 건축물을 봉헌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는 그 날 모인 군중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으니 그 일을 마음 속에 품은 것이 잘한 것이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집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

요, 오직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내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고, 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열왕기상 8:18-20).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 얼마나 훌륭한 증언입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솔로몬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노라.”

그들 앞에 우뚝 서 있는 영광스러운 그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 성전은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솔로몬은 제단 앞으로 돌아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그 백성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봉헌의 기도를 시작할 때,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또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심이 이 날과 같으니이다(열왕기상 8:23-24).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그는 그 백성들에게로 가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에 따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



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의 손으로 약속하신 그 선한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이루지 아니하신 것이 없도다(열왕기상 8:56).

거의 오백 년 전에, 하나님은 그분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약속의 땅에서 안전하고 안정되게 거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고, 한 마디도 지키지 못하신 말씀이 없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백 구십 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이 지키시지 못한 말씀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모세가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는 평화와 안식을 가지고 그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약속 가운데 한 마디도 지키지 못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한 마디라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른 끔찍한 결과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수천 개의 약속들 가운데 단 하나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듣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미래의 사건에 대해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켜지지 않은 한 마디 말이 성경의 대언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것이며,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 전체에 대한 불신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이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이후로 오백여 년이 지난 후에, 솔로몬은 그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이루지 아니하신 것이 없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하는 다른 종교의 책들이 구체적 예언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실상, 이사야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분의 “경쟁자들”에게 미래를 예언함으로써 그들의 신성을 증명할 것을 도전하셨습니다. “너희의 신들이 진짜 하나님이라면”이라고 대언자는 제안합니다. “증명하는 것은 쉽다. 그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몇 가지만 우리에게 말하라. 그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들이 정말로 신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침묵,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며,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도록, 내가 미래에 수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해 주리라. 너희가 너희의 불순종으로 인해 바빌론으로 끌려 간 후에, 내가 고레스라는 종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할 것이고, 나의 백성을 포로된 곳으로부터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뚜렷한 예언을 고레스가 태어나기 백오십 년 전에 하셨습니다(이사야서 44:28-45:13 참조). 하나님이 고레스에 관해 말씀하셨던 모든 것 중에 한 마디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이지 확실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예언하는 모든 것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 가운데 솔로몬의 시대와 그

다음 시기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시대와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 중에 단 한 마디 말씀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현대의 이스라엘에 관하여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뺏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를 때가 가깝기 때문이며 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돌이키리니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 씨를 뿌릴 것이며(에스겔서 36:8-9).

에스겔의 대언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산들이 여러 해 동안 황량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나, 마침내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산들에 들어와 살며 그것들을 갈고 씨를 뿌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날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면, 당신은 골란 고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 세기 동안 그 지역은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당신은 수백 에이커의 사과 농원과 복숭아 농원과 다양한 유형의 과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혹은 남달리 언덕이나 샤론과 욥바 지역에 가 보십시오. 거기에서 당신은 바로 당신의 눈 앞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브엘세바에 가 보십시오. 칠십오 년 전만 해도 그곳은 사막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당신은 눈이 닿을 수 있는 데까지 멀리 감미로운 식물과 많은 오래지 나무들과 아름답고 푸른 별관을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에덴 동산과 같이 그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삼천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당신은 현대의 에덴 동산을 응시하면서 거기에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 가운데 한 마디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캘리포니아의 3분의 1(국토의 길이는 자동차로 하루 안에 갈 수 있고, 넓이는 어느 지점에서는 반 시간의 거리입니다) 밖에 안 되지만, 전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과일 수출국가입니다. 아직 미래의 일로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그 땅에서 행하겠다고 약속하셨던 모든 것 중에 한 마디도 지켜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세심하게 그분의 약속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한 마디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당신의 마음에 큰 격려와 소망을 가져 오든지, 아니면 공포를 가져 오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매우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에 전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분도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만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부

인하면, 그분도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인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만일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만일 그분을 거절한다면 그분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 직면한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지금으로부터 3천 년 후에, 혹은 지금으로부터 3백만 년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마디도 지켜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일억 년 후에 천국에서나 지옥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들 중에 한 마디도 지켜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임을 깨달아 아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도록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좀더 온전하게 이해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과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보여 주실 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한밤중의 노래

때때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인가에 압도당합니다. 슬픔과 재난과 고통의 큰 물결이 우리를 덮치지만, 그럴 때조차도 주님은 낮에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시고,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분의 사랑이

참으로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수년 전에 펜실베이니아의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머물렀는데, 어느 날 밤 나는 식중독으로 심하게 아팠습니다. 나는 부글거리는 배를 움켜 쥐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너무 아파서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비참하게 거기에 누워 있을 때 갑자기 아름다운 예배의 합창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나는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었지만,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밤새도록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것은 시편 42편 7-8절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주의 폭우 소리에 깊음이 깊음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뒤덮나이다. 그러할지라도 주께서 낮에는 자신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시며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므로 내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긴 밤에 크신 자비와 사랑 가운데 나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합창이야! 일어나서 그것을 받아 적는 게 좋겠어. 아래층으로 살짝 내려 가서 피아노로 음정을 잡아 볼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을 잊어 버리고 싶지 않아.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이것은 주님을 경배하는 정말로 멋진 찬양과 감사의 합창이야!'

그러나 그 즉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시간에 피아노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이 깰지도 몰라. 그들은 내가 미쳤거나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겠지. 아무래도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좋겠어.'

사실, 나는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나는 불을 켜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결코 이 노래를 잊지 않을 거야. 이건 정말이지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야!’

마침내 나는 노래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때, 주님은 이미 내 몸을 만지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치유하셨고, 나는 그 합창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것은 올 때만큼 빠르게 가 버렸습니다. 오,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을 기억해 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오 주님, 그 노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러나 그분은 “아니다, 그것은 오직 그 밤을 위한 노래니라. 험한 시기를 이겨 내도록 너에게 준 나의 노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요? 그것은 얼마나 넓은 땅을 덮을까요? 배가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그를 도와줄 아름다운 노래를 보내 줄 정도로, 그것은 그것 모두를 덮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또 다른 노래들을 보내 주셔야 할까요? 누가 압니까? 그러나 나는 그분의 사랑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할 때마다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당신을 위해서도 동일한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 결코 끝나지 않는 사랑

오랫동안 우리 교회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정선된 약간의 소유지에 컨퍼런스 센터를 건립하는 꿈을 꾸어 왔습니다. 우리는 잠정적인 사용 허가를 얻어 내려고 애쓰면서 이것을 승인받는 데 2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순탄치 않은 진행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들었으나, 그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구되는 증거 자료들과 서류들과 보고서들을 정부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어떤 서류는 5, 6인치 정도로 두꺼웠습니다. 그러나 정부 관리는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은 증거 자료들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직면했던 거대한 관료주의와 끝없는 관료적 형식주의를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머리털이 있었다면,

그것을 전부 뽑아 버렸을 것입니다! 나는 매번 새로운 진전을 위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전력을 다하고 애쓰고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음과 같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모두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니, 주님은 손가락으로 딱 소리만 내고도 그것을 순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자주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서둘러 처리하시는 유일한 것은 바로 나의 인내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들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경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중압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에 조금도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간청하고, 그분의 약속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런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해 왔습니다. 당신도 바로 지금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잊으세요! 그것은 공상입니다. 당신은 혼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른처럼 행동하세요”라고 삶이 소리치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의 저자는 비록 신원 불명이지만, 그는 최소한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것만큼이나 큰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큰 혼란 가운데 “그들이 나를 땅에서 거의 소멸시켰사오니”(87절)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적들이 그를 곧 밀쳐 떨어뜨릴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심에 빠져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존하는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힘을 얻으며 계속해서 앞으로 서서히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것을 해 냈을까요?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주의 훈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입의 증거를 지키리이다”(87-88절). 그가 가장 어두운 시간들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는 것처럼 보일 때, 즉 그분이 어떤 장애물을 처리하거나 어떤 악을 바로잡거나 어떤 잘못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그 즉시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사람의 본 모습을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이 계속되게 하실 것인가요?’ 라고 의구심을 가질 때, 혹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지만 여전히 개선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영존하는 사랑에 기초한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들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적절한 때에 능력으로 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해야만 합니다.

## 그분의 사랑이 약해졌습니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매우 실제적인 고통과 어려움들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그분의 약속들과 정확하게 짝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경의 저자들과 우리는 종종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지독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분의 긍휼은 영원토록 깨끗이 사라졌는가?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끊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그분께서 분노하사 자신의 친절한 긍휼을 닫으셨는가?”(시편 77:8-9). 역경이 닥치거나 재난을 당하거나 혹은 비극적인 일이 생길 때,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에 이러한 고통스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부르짖기에 피곤하고, 내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시편 69:3).

또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며 쇠약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까 하나이다”(시편 119:82).

그는 다시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주의 긍휼에 따라 주의 종에게 대우하시요”(시편 119:124).

당신이 큰 불행에 처한 자신을 발견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분의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오 주여, 주의 긍휼이 영원토록 지속되오니 주의 손으로 친히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시편 138:8). 다윗은 힘든 시기에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알았지만, 그가 항상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반응했어야 하는 것처럼 반응하지는 못했습니다. 때때로 우리 중에 몇몇 사람들과 같이,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는 항상 그 진리를 기억했으며,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하오나 오 주여, 주는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오 내게로 돌아오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주의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시편 86:15-16).

다윗은 “내가 거룩하오니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올바른 기초 위에, 즉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풍성한 긍휼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결코 당신의 거룩함이나 의나 선함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과 은혜와 자비와 진리와 오래 참으심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데, 특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압도당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노와 복수와 공의의 하나님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그분을 싫어하는 자들, 그분을 적대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성품을 보이신다는 것을 잊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이름을 겸손하게 부르는

자들에게 그분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보여 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에 기꺼이 복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부드러우시며, 친절하시고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힘든 시간들이 다가오고, 쓸데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은 시편 저자가 그가 당한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의 확신이 흔들렸음을 깨달았을 때 그가 행했던 것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라 하였으되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오른손이 일하신 여러 해를 기억하리이다.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니 참으로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하리이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리이다(시편 77:10-12).

우리의 느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으며, 혹은 조수에 밀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더욱 커질 때, 우리는 반드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친절한 팔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찾아야만 합니다.

## 천 세대에까지

당신은 “여러 세대에 이르는 죄”에 의해 야기된 황폐함에 대한 설교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설교자들은 그들의 깜짝 놀랄 만한 견해의 기초를 출애굽기 20:5과 같은 본문들에 두고 있습니다.

나 곧 주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니 나는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별하여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듣고,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아요! 왜 아이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죄가 종종 자녀들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아무리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헤어졌다 할지라도, 혹은 이혼 후에 그들이 아무리 잘 지낸다 하더라도,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은 예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갈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이들은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함께 떠나 버리면, 그들은 거절당했다고 느낍니다. 그의 사랑을 반복해서 확신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이 그의 말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절당했다고 느끼고, 심지어 그 깨진 결혼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고 느낍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아이는 버림받은 아내나 남편보다 더 심한 좌절감을 느낍니다.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죄가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만일 당신의 부모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당신은 반드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성경은 “나는 ...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별하여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앞에 생략되어 있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출애굽기

20:5)이라는 결정적인 조건을 빠뜨리고 보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부모의 모델을 따라 계속 하나님의 증오 아래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될 것이며 삼사 대까지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 그러나 너무 많은 설교자들이 하는 것처럼 5절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20:6까지 계속 읽어 보면, 이는 그것 전체를 훨씬 더 소망 있는 문맥 안에서 바라보도록 도와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출애굽기 20:6).

불경건한 분위기에서 자란 한 소년이 매우 불경건한 사람으로 자라기 쉽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한 이치라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과거와의 어떠한 해롭거나 잘못된 관계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부모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과 훈계로 당신을 양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중팔구 그들은 매우 좋지 못한 영적인 본모기를 보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 고리는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린도후서 5:17).

당신은 부모의 하나님에 대한 증오 때문에, 혹은 그들의 실수 때문에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저주를 깰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7장 9절에서 이 연설을 반복할 때, 그는 강조점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그것을 개정해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주 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신실한 하나님인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



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되.

이 강한 대조가 보입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중오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의 삼사 대까지 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의 천대까지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말씀을 언급한 이래로 얼마나 많은 세대가 지나갔습니까? 비록 그 숫자가 너무 크다고 할지라도, 그가 대략 삼천오백 년 전에 살았다고 합시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성경의 “한 세대”를 대략 사십 년으로 지정하므로, 그것은 모세의 시대 이후로 구십 세대가 채 다 지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삼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세는 물론 대부분의 시간을 하늘에서 보내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던 사랑과 긍휼의 십분의 일도 채 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두 분 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이 복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게 그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부어 주셔서 나의 형제와 자매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자매의 네 아들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그 중 몇몇은 사역자입니다. 나의 자녀들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손주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종종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들 중 하나는 설교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확실히 그 일에 맞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조금 더 어렸을 때에는,

우리가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는 바람에 조금 난처했습니다. 그는 아주 잘 생겼지만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많은 추억을 떠올렸는데, 왜냐하면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어머니는 나에게 “찰스야, 네 목소리 좀 조절하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나도 큰 목소리를 가진 꼬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손자와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할아버지를 꼭 닮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와 함께 길을 건너 나 장난감 가게의 통로를 지나가곤 했는데, 그럴 때면 그는 목소리를 높여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것들은 예수님에 관한 노래들과 주님에 대한 찬양들이었습니다. 비록 시끄러웠지만, 그 어린 친구 주변에 있으면 짜릿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그분의 공훈이 영원함이로다

성경을 어느 정도 읽다 보면, 다음과 같은 가장 인기 있는 후렴 가운데 하나가 번안된 것과 마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공훈은 영원하도다.”

사실, 하나의 시편 전체가 이 놀라운 권고의 구절을 둘러싸고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공훈이 영원함이로다”(시편 136:26).

이 시편에서는 스물여섯 번, 각 절에서 한 번씩 저자는 “하나님의 공훈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저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진리를 그토록 자주 반복하게 하셨을까요? 그

분은 그것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생각에 굳게 새겨지도록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만큼 충분히 자비로우신지, 혹은 우리의 불법을 사면하실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분의 긍휼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항상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사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모든 환경 아래에서,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당신에게도 그만큼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시편 118편은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 장으로서, 이는 신실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의 순례 여정 가운데 부르던 노래입니다. 예수님이 속죄의 날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으므로, 이것은 그분의 “반드시 불러야 할” 항목의 마지막 노래였을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해석자들은 그것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언, 즉 메시아의 시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이 시편을 노래할 때, 그분은 그 시편 가운데 직접적으로 그분을 가리키는 부분들을 매우 잘 아셨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런 시편을 노래하는 것은 과연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유다의 변절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아셨습니다. 그분은 베드로가 그분을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체포되고, 거짓으로 고소당하고, 사형 판결을 받고, 매를 맞고, 조롱과, 고문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박히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정황들로 볼 때, 당신은 왜 그분의 사랑하는 아버지

께서 시편 118편의 말들로 그분의 영혼을 강하게 하셨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오, 주께 감사하라.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이 영원함이라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다” 할지이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다” 할지이다. 이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다” 할지이다(1-4절).

예수님은 단지 몇 시간 안에 그분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요한복음 1:29)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죄가 되실”(고린도후서 5:21)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나무에 달려 그분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고치실 것이었습니다(베드로전서 2:24).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은 시편 118편의 구절들에서 입증되었으며, 이는 우리 구세주에게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신시켰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말씀의 진리를 통해 그분을 섬기셨습니다. “그분의 긍휼이 영원함이라다!”

## 하나님의 사랑은 훈계합니다

비록 때때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바르게 서도록, 혹은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고통을 가하셔야 하지만, 그분은 항상 사랑으로 그들을 다루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결코 자진해서 고통을 가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관대한 훈련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당신을 호되게 꾸짖기 전에 당신이 무시무시한 운명을 헤쳐 나가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러나 그분께서 비록 괴롭게 하실지라도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불쌍히 여기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를 괴롭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예레미야 애가 3:31-33).

하나님은 자진해서 치시지 않습니다!

내가 성장하던 때에 나의 아버지는 나를 훈계하기 바로 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아들아, 이것이 너를 아프게 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나를 아프게 한단다.” 나는 결코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도 안 돼!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부모가 될 때까지는 그것이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의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 적절하고 알맞은 처벌을 집행해야 했을 때, 정말로 그것이 그들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결코 자진해서 그분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분은 항상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은 심각한 영적 건망증을 드러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권하는 것같이 너희에게 권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하셨으니(히브리서 12:5-6).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징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의 부족을 나타냅니다

다. 하나님은 징계가 필요한 자들을 사랑으로 징계하심으로써,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요한계시록 3:19).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대 고린도의 육신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이유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아가랴?”(고린도전서 4:21).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분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지 우리에게 망공을 가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심판보다는 오히려 긍휼을 보이십니다. 그분이 대언자를 통해 “사악한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에스겔서 33:11)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긍휼을 보이기 원하고 그분의 은혜를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심판을 더디게 실행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때때로 나는 그분이 그렇게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매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패한 영향을 끼치면서, 그들의 더러움으로 이 땅을 채웁니다. 나는 지금 당장 그들을 없애 버리고 싶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인내가 나에게 큰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왜 그들이 그 일을 행하고

도 용케 빠져 나가게 내 버려 두십니까? 왜 그들이 그것을 하도록 허락하십니까? 주님, 왜 그들을 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심판을 늦추시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악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기회를 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기회 뒤에 기회를, 그 뒤에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시편 103:8-9).

대언자들은 그분의 진노의 잔이 넘쳐 흐를 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내를 당신이 행하는 악을 그분이 알지 못하시거나 보지 않으신다는 증거로 잘못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보고 계시며, 그분이 보는 것은 그분을 심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십니다. 단순하게 이제까지 당신이 죄를 짓고도 용케 빠져 나오도록 그분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인정하신다고 절대 상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악이나 죄를 지지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친절하시며, 당신의 삶 속에 고통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심판을 내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너무 긍휼이 많으셔서 종종 그분의 심판을 앞지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 마땅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분의 가장 참혹한 심판을 받을 만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긍휼이 많으셔서, 만일 당신이 그분을 부르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친절과 사랑은 그분으로 하여금 심판을 내리기를 꺼리도록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키지 않음과 거절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여러 곳에서 그분의 입장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내 법규들을 깨뜨리고 내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때에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범죄한 것을 벌하며 채찍으로 그들의 불법을 벌하리라(시편 89:31-32)

그러나 이와 같은 거친 구절들에서조차 그분은 부드러운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완전히 거두지는 아니하고 나의 신실함도 없어지게 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거나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번개하지 아니하리로다(시편 89:33-34).

아마도 이것에 반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시편 103편 17절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임하나니.” 누가 그분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즉 그분이 모든 왕들보다 위대하신 왕이며, 우주의 창조주시고, 온 땅의 심판주이심을 결코 잊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적절한 존경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인지 모릅니다.

나는 오늘날 유행하는 하나님을 막역한 친구처럼 대하는 태도가 악



간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거룩하며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는 “궁홀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적절한 존경과 경외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폐허 속에 피어나는 사랑

개인적인 시련들과 비극적인 사건들 그리고 신적인 징계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심하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우리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조차도 때때로 그분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특히 우리가 불순종으로 파괴된 삶의 잡석들을 헤치며 걸을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의 대언자”로 알고 있는 예레미야도 이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친 최악의 재앙들 가운데 하나를 이제 막 헤쳐 나왔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유대 국가를 침공해서 그것을 황폐시켰습니다. 그들은 죽이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사슬에 묶어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가장 가난한 자들만 폐허가 된 오두막에 남아 있게 했습니다.

이 낙심되고 괴로운 상태에서 예레미야는 그의 상한 마음을 쏟아 놓고, 예레미야 애가라는 작은 책에 그의 어두운 경험들을 기록했습니다. 세 장에 걸쳐서 그는 슬퍼하며 소리를 내어 울었고, 그의 깊은 고

통을 거리낌 없이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책의 중간에 그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보입니다. 그 살기등등한 포위 공격의 슬픔과 공포를 계속해서 떠올리기보다는, 그는 생각을 가다듬어 제 자리를 찾습니다. 그는 주님을, 무엇보다도 주님의 긍휼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나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예레미야 애가 3:22-23).

이것은 마치 그 대언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저는 오래 전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무시무시한 포위 공격으로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정말로 더 나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신실함과 사랑으로 나를 다루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에워싸시며 내 기도에 귀기울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춰 서서 시간을 가지고 더 성경적인 말씀에 따라 그의 생각을 조절하더니, 재빠르게 그 진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께 속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한 번도 그만 두신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만 두지 않으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예의 바르게 행동할 때 당신을 사랑하거나 당신이 불순종할 때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끊임이 없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사랑을 당신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지 않고, 오히려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마침내 생각해 낸 것처럼, 그분의 공홀은 쇠하지 않으며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익스피어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정이 변할 때 변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로다.” 그가 옳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을 때, 당신은 참된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오.” 한 남자가 그의 데이트 상대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꿈의 실현이오! 당신 곁에 있기 위해서라면 태평양이라도 헤엄쳐 가겠소. 당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라면 달까지라도 날아 가겠소. 실은, 지구가 돌기를 멈추고 별들이 불꽃을 내며 타오를 때까지, 나는 … 음 …, 이게 무슨 냄새요? 음, 당신 입 냄새가 좋지 않군요. 미안하지만, 마음이 바뀌었소.”

“사정이 변할 때 변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로다.”

배우자를 찾을 때, 우리는 너무 자주 완벽한 남자나 여자, 즉 우리의 “이상적인 상대”에 대한 심적인 상(像)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그들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불가능한 기준

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처음부터 결코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정이 변할 때 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을 인간들 사이에서 발견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입니다.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쇠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신실한 자를 찾을 수 있겠는가?”(잠언 20:6, NIV). 참된 사랑, 진정한 사랑, 즉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의 이상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일관성 있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이상화(idealization)에 속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냥하고 예의 바른 태도나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로 그분을 속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조금이라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당신이 얼마나 유치한 자인지 아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만큼 철저하게 당신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기적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 그분께 그것을 드리십시오

압박이 계속되고 마치 당신이 어떤 재난에 의해 삼켜질 것처럼 보이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떠한 신적인 반응이나 행동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 성령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고, 다시 한 번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분의 신실하심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영혼이 안식을 찾는 곳입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돌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항상 중간에 당신을 되돌리려고 애쓸 것입니다. 비록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겁을 주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무엇이 올라도, 당신의 문제는 사랑 많으신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아는 이상, 그 아름다운 안식을 즐기십시오.

그 일 전체가 무산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그것 모두가 수포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요? 걱정 마세요. 그것은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고 애쓰는 한, 당신은 그것과 씨름하고 그로 인한 중압감으로 신음하며, 온갖 종류의 정신적인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그것은 제 방식 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일들을 바라보고 당신의 방법으로 일들을 처리하기를 주장하는 한, 당신은 심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침내 “주님, 당신이 저를 사랑하심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것을 행하십시오. 당신이 아시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것을 처리하십시오. 당신이 하기 원하시는 것을 행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당신은 휴식을 취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음, 그것은 그분의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이 이 방법이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처리하실 거야.”

우리 교회가 컨퍼런스 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정부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내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 이 장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마침내 “주님, 이것은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또한 당신이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이제 그것은 지금부터 끝까지 당신의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는 자리에 오기까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인내의 자리로 데려 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분은 나에게 “환난은 인내를 ... 이루는”(로마서 5:3) 위대한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환난과 고집 센 정부 관리를 상대하는 일은 나의 마음에 인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것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 다음 청문회는 언제 여실 건가요?’ 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 다음 청문회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훨씬 더 바람직한 위치에 있고 삼림이 더 우거진 지역에 있는, 과거에 보이с카웃 캠프장이었던 더 좋은 소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훨씬 더 가까웠고, 이미 캠프장으로 구역 설정이 되어 있었으며, 모든 면에서 우리의 필요에 더 적합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대신해서 샀고, 25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캠프장을 건설했습니다. 우리는 이 고집 센 기획 위원회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소유지가 이용 가능할 때까지 그토록 많은 시간과 고통을 헤쳐 나가게 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 2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내 영원한 몫이시이다.” 그리고 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영존하는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분”(데살로니가후서 2:16)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정말이지, 그곳은 쉼을 얻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당신이 있을 만한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 두 개의 언약, 하나의 이야기

요즘 우리는 매우 자주 마치 성경이 우리에게 서로 분리되고 구별되는 두 분의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 대(對) 신약의 하나님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한 분은 위엄 있고 사나우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불과 심판을 내뿜는 화가 나 있는 하나님이고, 다른 한 분은 예수님에 의해 분명히 드러난 것처럼 “다른 뺨도 돌려 대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심술궂고 잔인하며 무자비한 분으로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은 엄하신 분이데, 그것도 아주 매우 엄하십니다. 다른 한편, 그들은 신약의 하나님을 시럽처럼 달콤하고 움직이기 쉬운 사랑으로 그립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오, 나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분은 분노, 심판, 복수가 전부입니다. 오히려 나는 신약의 하나님을 매우 좋아해요. 나는 사랑과 용서와 친절함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실제로는, 물론 성경 기록은 둘이 아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그분의 본질에 속하는 두 가지 근본적인 면을 가지고 계시는 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분을 그와 같은 분으로 계시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불경건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분을 그와 같은 분으로 계시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끔찍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도록, 그분의 위대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도록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결코 이 “구약의 하나님” 대 “신약의 하나님”이라는 신성 모독에 속지 마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은 곧 신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야말로 우리가 그분이 제공하신 구원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는 명확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정말로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정말로 시간에 따라 변하신다면, 어떤

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백만 년 동안이나 아닐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소식일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신다면,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쉽게 한 가지를 약속하고는 내일 그 약속을 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대해 어떠한 확신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기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아니하시  
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리요? 어찌 그 이르신 말  
씀을 행하시지 아니하리요?(민수기 23:19).

성경 기록은 그분의 변하지 않는 본질에 기초를 둔 하나님의 신실하  
심을 주장합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을 확실히  
성취하실 것임을 말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끝부분 즈음에서 하  
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  
게 확신시키기 위해 그분은 자신의 불변하는 성품을 언급하십니다.

“이는 내가 주요, 변치 아니하는 자이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말라기서 3:6). 만일에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우리는 걱정거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이 변하시지 않으므로, 그분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자  
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분의 약속을 확실히 지키실 것입니다.

대언자 말라기가 이러한 생각을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대  
보다 수세기 전에, 어느 익명의 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입니다. 그것들은 사라지려니와 오직 주는 지속하시겠고 참으로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바꾸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는 동일하시고 주의 햇수는 끝이 없으리이다(시편 102:25-27).

신약 성경의 한 저자는 이 구절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그것을 지지하며 인용했습니다(히브리서 1:10-12 참조).

또 다른 신약 성경의 저자인 야고보는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불렀으며,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야고보서 1:17)고 우리에게 확증했습니다. 성경은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브리서 1:3; 13:8)고 주장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변함이 없으신 것은 정말이지 매우 기쁜 일입니다.

##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도전

더 친절한 “신약의 하나님”을 지지하며 까다로운 “구약의 하나님”을 거절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관점의 주된 근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용합니다. 여하튼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그림과 강하게 대조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바라보며 나는 의아해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것을 그들이 실제로 한 번이라도 읽어 본 적이 있을까?’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구약 성경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동조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정말 미안합니다만, 성경이 그것을 오해했군요. 내가 그 기록을 바르게 하지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왜곡되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관행들에 자주 도전하지만, 그분은 결코 한 번도 어떤 식으로든 성경 기록에 반대되는 하늘의 아버지의 모습을 제시한다고 주장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와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해 “아버지”라는 단어를 매우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구약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과는 다른 아버지를 마음에 두고 계셨을까요? 우리는 마가복음 12장 26절(또한 마태복음 22:32과 누가복음 20:37)에서 이에 관한 큰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은 분명하게 그분의 아버지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어느날 몇몇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대항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제외한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거부했던 물질주의적인 유대의 한 종파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교리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종종 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오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불멸이나 부활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나중에 대언자들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모세 오경의 어떠한 내용도 그러한 생각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문제에 관해 예수님께 도전했을 때, 주님은 그들

이 잘 아는 영역인 모세오경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하지 아니하느냐?”(마가복음 12:24)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즉시 다음과 같이 폭탄 선언으로 그들에게 일격을 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세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너희가 크게 잘못하는도다, 하시니라(마가복음 12:26-27).

예수님은 사두개인들 자신의 “공인된” 모세의 책을 증거 본문으로 사용해서 그 기록을 바르게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구약 성경의 맨 처음 책들에 그려져 있는 그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보증 선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하려고 하셨던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행하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라고 끊임없이 부르셨던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기록에 대언된 것과 같이 그분의 아버지의 일을 하려고 왔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요한복음 5:19).

그분은 자신이 바로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말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요한복음 12:50).

확실히 그분은 결코 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알린다고 주장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성취하려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리라(마태복음 5:17-18).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그분이 그 거룩한 분의 팔을 비틀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셨다고 믿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며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요한복음 16:27).

사실상,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 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요한복음 6:38-40).

이를 간결하게 하면, 예수님은 그분이 아버지를 알리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요한복음 14:9). 우리의 구세주는 창세기에서 말라기서까지 그려져 있는 하나님과는 다른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격 안에서 친밀하고 개인적이며 “육체로” 계시는 구약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 구약: 사랑과 공의

어느 특별한 날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주님의 더 완전한 모습을 보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참된 본질, 그분의 진실된 성품을 살짝 엿보기를 원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분의 겸손한 종의 요구를 받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모세를 바위의 갈라진 틈에 두시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그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되(출애굽기 34:6-7).

이제 확실히 이것이 성경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인 두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다는 신화를 잠잠하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이 두 번째 책에서 자신을 어떤 분으로 선포하시나요?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며,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들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 선언된 하나님의 놀라운 특성들입니다.

모세 시대 이후로 수백 년이 흐른 뒤에, 대언자 이사야는 출애굽 시대를 되돌아보며 선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에 따라 내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찬양을 말하며 또 자신의 긍휼에 따라, 자신의 많은 인자하심에 따라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그 큰 선하심을 말하리라(이사야서 63:7).

주님의 선함에 놀란 이사야는 숨을 돌린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대하셨는지를 새롭게 떠올립니다.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 당하시고 자기 앞에 있는 천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친히 사랑하고 동정하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품으시며 이끄셨 느니라(9절).

얼마나 아름다운 성경 기록인가!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 당하시고.” 초기 제자들은 그들이 어떤 핍박을 당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것을 당한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가르치지 말 것을 그들에게 명령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의 길을 갔습니다(사도행전 5:41).

당신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 어떤 핍박을 견딜 때마다, 당신의 모든 고난 가운데 그분이 친히 고난당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슬픔을 짊어지십니다. 그분은 역경과 환난과 핍박을 당신과 함께 나누시며 이제까지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한 전능하신 주님의 변함 없는 마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끌어 내는 일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출애굽기 3:7).

그분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은 이집트인들의 가혹한 대우로부터 노예가 된 히브리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은 그들을 품으셨고 그 모든 날에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 모든 괴로운 광야 생활 동안 주님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지키셨으며 그들

을 보존하셨는데, 그것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부드러운 사랑의 마음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세대가 지난 뒤에, 느헤미야가 바빌론 유수 이후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백성들의 완고함과 반역으로 인해 그의 백성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화나게 했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수세기 전 이집트를 떠난 이후로 그들이 항상 그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다른 것도 알았습니다.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행하신 이적들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반역하여 대장 하나를 임명하고 자기들을 속박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느헤미야 9:17).

느헤미야는 출애굽 이후로 영적인 실패가 그의 백성의 특징이었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은혜로우십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용서하십니다. 당신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내심이 강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음을 내가 압니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할 때, 그의 펜으로부터 곧바로 나온 것처럼 들립니다. 오, 하나님은 정말이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정말이지 긍휼이 많으시며, 사려 분별이 있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 신약: 공의와 사랑

신약의 하나님은 온통 용서와 친절과 인내와 상냥함과 모든 사람을 위한 우주적인 구원이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헌신과 상관 없이 성경의 마지막 27권의 여러 부분들을 다시 읽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조금 더 주의깊게 읽는다면, 그들은 그분이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분께 반역하는 자들과 그분과 대립하기로 작정한 자들은 언젠가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을 맞이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에게 귀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로마서 1:18).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 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히브리서 2:1-3; 10:30).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입증하셨지만, 그 은혜와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적들을 삼킬 불 같은 격노와 심판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일만 남아 있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떨치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공흠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히브리서 10:27-29, 31; 12:29).

기억하십시오. 위의 구절들을 말한 사람은 두려운 위협을 큰 소리로 말하던 대언자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그는 히브리서의 저자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공흠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십자선에 포착된 불경건한 자들의 반응을 예언합니다.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요한계시록 6:15-17).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시며, 공흠이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고, 인내심이 많으십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의로운 심판관과 눈하나 깜박이지 않는 거룩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두 가지 면을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그러셨습니다.

##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사랑

그러나 이것만은 꼭 말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조차 그분은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파괴적인 결정과 활동들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파괴시킬 수 있는 것들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십니다.

어떤 활동들은 일정한 짜맞추어진 심판을 수반합니다. 만일에 당신이 어떤 불경건한 일을 행한다면, 그에 따른 자연적인 결과로서 당신은 어떤 불쾌한 영향으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갈라디아서 6:7). 특정한 활동과 행동들은 자동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 기록에 제시된 하나님의 법을 공부할 때 당신도 알게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파괴적인 선택들, 즉 당신의 건강과 배우자,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는 선택들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자연적으로 파괴하는 것들을 불법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른 한편, 그분은 당신을 단련하는, 즉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증대시키는 것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흠잡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시편 19:7)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흠잡을 수 없지만, 종종 그것에 대해 반항합니다. 나의 육신은 하나님

의 법이 금지하는 것들, 즉 본질상 나를 파괴하는 것들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들을 행하면, 나는 나의 반역의 피할 수 없는 결과로 고통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행하면 저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분은 분명하게 그분의 법을 위반하는 것에 따르는 결과를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이는 그분이 은혜로우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종종 파괴적인 것들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대해 자비로우십니다. 그분은 혼란 가운데 있는 나를 보십니다. 그분은 슬픔 가운데 있는 나를 보십니다. 그분은 비통함 가운데 있는 나를 보십니다. 그분은 나를 파괴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피하기를 원하시고 심지어 그것들을 피하도록 나를 도우시지만, 여전히 나는 반역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그것들을 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결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 가엾은 것, 왜 그런 짓을 했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는 내려 오셔서 웅덩이 밖으로 나를 들어 올리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당신은 뒤에 앉아서 당신의 아이들 중 하나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것이 부모들이 언젠가는 직면해야만 하는 가장 애타게 하는 일들 중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성인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나이가 되어, 당신이 아는 한 잘못되고 파괴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들을 볼 때, 당신은 비탄에 잠기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결정이 그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지켜 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당신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을 상하게 하거나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다가오는 참담한 고통과 슬픔을 그들이 면하도록 해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를 그토록 절실하게 원하지만, 때때로 그들은 완고합니다. 그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며, 당신의 선한 판단과 청원, 당신의 충고와 모사, 심지어 협박에 거슬러 행동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행하고, 그들이 멈추도록 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옆에 서서 그 끔찍한 순환 주기가 다 끝나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들의 계획이 날아가 버리고, 그들이 면하기를 원했던 바로 그 참혹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발견할 때, 당신은 그들의 삶에 개입해서 그 깨진 조각들을 줍고 그들의 삶을 다시 하나로 모으도록 돕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그 모든 것에 귀기울였다면,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당신의 충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보는 것은 몹시 괴로운 일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볼 수 없는, 즉 그 뒤에 분명히 뒤따를 파괴와 몹시 괴로운 고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힘든 상황들이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경험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불경건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것들은 고통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설득하여 어리석은 선택을 단념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집이 세고 완고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냥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의 결정적인 부분, 즉 고통스러운 부분에 도달할 때, 그분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우리를 찾아 오십니다. 그분은 매우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깨진 조각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귀기울였더라면, 그분은 우리가 이 모든 험악한 장면을 피하도록 도우셨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완고한 뜻 가운데 우리에게 고통과 상처를 가져다 주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 무엇인가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 때, 그분은 “좋아, 이제 그만. 너라면 이제 지겹다! 나는 이제 너와 아무 관계가 없어. 다시는 나를 부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당신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지요? 당신은 그들의 고통과 상처를 느끼고, 그리고 나서 적절한 때에 그들이 그 조각들을 주워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을 돕습니다. 하나님은 꼭 그와 같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훈계하실 때조차, 그분이 교회 구성원들을 징계하실 때조차 그분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조차 그분은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렇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끔찍한 고통과 깊은 슬픔으로 고통을 당합니까?

### 사랑으로 가는 나의 여정

전에 언급한 것처럼, 나는 매우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첫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내가 13일째 되던 날부터 부모님은 나를 교회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나는 교회 의대에서 잠을 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십대들이 그렇듯이, 나는 영적인 성장과 발전 과정에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형성해야만 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영적인 기초를 개발하고 개인적인 신학을 완성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만 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면서 나는 공부, 특히 철학과 생물학 수업에서 지적으로 도전을 받았고, 모든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짧은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로 그분을 믿었는가를 의심했습니다.

‘아마도 무신론에 무엇인가가 있을 거야. 이 모든 영적인 것들은 사람이 창조한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몰라.’ 나는 숨이 막힐 듯한 생각의 무게로 거의 가라앉을 것 같은 상태에서 진짜 고뇌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것은 모두 사람의 개념과 생각들일 거야.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말이야.’ 이와 같은 생각들을 더 많이 마음에 품으면 품을수록, 내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보다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더 쉬워.’ 세상과 우주를 보았을 때, 나는 내가 본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많은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그냥 우연히 이 모든 능력들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나에게만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은 창조를 관찰할 때 강해졌습니다. 자연을 연구할 때, 나는 모든 곳에서 디자인과 목적을 보았습니다. 나는 자연 안에서 섬세한 균형을 보았습니다. 나는 산소와 질소의 순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2/3 대 1/3이라는 물과 마른 육지의 중요한 비율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당신은 “저, 하지만 그것을 증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할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당신이 옳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만일 당신이 물 속에 가라앉고 있다면, 그 순간 당신의 발이 무엇인가 단단한 것을 밟고 서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몹시 위안을 주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제한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나는 창조가 일관성 있는 신적인 디자인과 목적을 계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나는 이 모든 정교한 조직들과 필연적인 균형이 인간의 존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위한 디자인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분은 또한 반드시 나를 위한 디자인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고안해 내셨을까요?

거기에서 나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느 누가 그 참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 밟아야 했던 그 다음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나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불교를 연구했습니다. 나는 또한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음

과 같이 추론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만일 그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초기 역사에서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분은 그 계시를 오늘날까지 영속시켰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중도에 낙오된 과거의 모든 종교적인 체계들을 그 즉시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 전에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린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나 다른 종교들을 들여다 보기를 귀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것들 중에 어느 하나가 진리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요구된 계시를 현재까지 살아 있는 것으로 유지할 수 없으셨다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현대의 인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으며, 또한 그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분명히 그 선택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나는 또한 상대적으로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종교들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세상이 이 종교들의 대언자로 인해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숨겨져 왔던 하나님의 “참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대언자들”을 멀리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신속히 모든 현대의 이단들을 거절했는데, 그 이유는 마치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다가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 인류에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그들이 그 새로운 “대언자”가 도착하기 전에 죽었던 모든 남자와 여자들을 본질적으로 저주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러한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어떠한 참된 하나님의 계시도 역사의 초기에 시작되어서 오늘날까지 계속되었어야만 한다는 것을 추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연구할 대상으로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불교와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연구를 하면 할수록, 나는 성경만이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다른 것들로부터 떨어져서 분리되고 구별되며, 많은 경우에 인간의 종교적인 체계에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종교적인 체계들이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인간의 시도들을 보여 주는 반면, 기독교는 인간에게 도달하려는 하나님의 시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종교는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질 정도로 선택될 수 있는가를 인간에게 보여 주려고 애를 썼지만, 기독교만이 죄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질 정도로 선택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구원하는 행위의 체계라는 모든 생각을 무시했고, 대신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게까지 확장된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받기만 할 수 있습니다.”

계다가,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대언적인 국면들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나는 성취된 대언이 그것의 신적인 근원에 대한 짜맞추어진 증거라는 사실을 성경 자체가 진술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해 그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것들이 발생할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과 같은 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4:7-8 참조).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요한복음 14:29; 이하 참조 마태복음 24:25; 마가복음 13:23; 요한복음 16:4).

이제 나는 성경의 독특하고 신적인 기원에 대해, 혹은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 어떠한 의심도, 어떠한 주저함도, 어떠한 초조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기록할 때 그가 의미했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로마서 8:14-16).

이 세상 어느 누구든지 발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혹은 그녀를) 위한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은 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는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안내자는 바로 신약과 구약이 있는 성경입니다.

### 그분은 모든 것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하겠다고 제의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결코 죄를 그냥 눈감아 주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심판과 진노의 의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도록 사랑으로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그분들은 하나이시며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있고, 또 다른 신약의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그들이 원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신약과 구약 둘 다 하나님을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용서하시는 분으로 계시합니다. 그리고 두 언약에서 우리는 참된 회개가 없을 경우에 반드시 그 죄인들을 제거하시는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느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음, 너는 좋은 사람인 것 같구나. 네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어! 그래, 용서해 주마.” 또한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누가복음 13:3, 5).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은 당신이 그분과의 점점 자라는 생명의 관계를 즐기고 그분의 존재 모두를 스스로 발견하기를 그분이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 그분이 오신 목적

해마다 달력의 마지막 페이지에 다가갈 때 즈음이면,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나무(살아 있는 것이나 인공적인 것)를 세우기 위해 집안의 한 특정한 장소를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색색의 불빛들은 건물의 높은 곳에 매달려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뚱뚱한 사람들이 거의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한 해의 다른 때에는 듣지 못하던 멜로디가 라디오 방송국에서 들려 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책이 저술되고 있는 동안에도, 크리스마스 절기가 한 번 더 한창 진행중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절기가 장식용 금속

용기들과 선물들과 옛날을 동경하게 만드는 휴일 고전영화 감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목자들이 경배하며 바라보고 있을 때 구유에 누워 있던 어린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을 기억합니다. 처녀가 첫 아들을 낳았으니, 이는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왜 예수님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오셨을까요? 성경은 그분의 강림에 대한 많은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목적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는 유일하게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이고 전적으로 정확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한복음 1:1-2). 잠시 후에 이 복음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한복음 1:14).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은 말들로 시작됩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

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히브리서 1:1-3).

비록 하나님이 과거의 대언자들을 통해 그분 자신에 관한 무엇인가를 계시하셨을지라도, 그분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참된 본질을 매우 완전하고 완벽하게 입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 중 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하느냐?”(요한복음 14:9). 그리고 조금 더 일찍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요한복음 12:45).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전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장합니다(골로새서 1:15).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당신은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의 참된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이 선언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야만 했습니다.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 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요한복음 1:18).

어느 때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사람들은 그분과 그분의 본성에 대한 생각들을 섞어 버렸는데, 그 가운데

데 많은 것들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데, 이는 오해를 말끔히 없애고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 많은 잘못된 생각들

수세기에 걸쳐서 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셀 수 없이 많은 거짓된 생각들과 개념들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의 열정들을 통제하고 지배했던 많은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감정을 위한 신, 각각의 열정을 위한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성들과 태양과 달과 별자리를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신들을 숭배했는데, 그 신들 모두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힘을 사용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들이 정복한 광범위한 땅에서 섬기던 많은 다른 신들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신들도 받아들였습니다. 만일 오늘 인도에 가서 힌두 사원들을 본다면, 당신은 수백 개, 심지어 수백만 개의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신들 가운데는 끔찍할 정도로 괴상한 모습을 가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분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에 관한 계시를 이스라엘이라는 오직 한 민족에게만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나?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나?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 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로마서 3:1-2).

즉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오로지 한 민족, 유다 백성에게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모세는 그의 동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 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법도를 가진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신명기 4:7-8).

하나님은 자신을 이 민족에게 계시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자신의 법규들과 판단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도다. 그분께서 어느 민족도 이렇게 대우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분의 판단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시편 147:19-20).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세상의 나머지 백성들과 그 계시를 함께 나누도록 그것을 고대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매우 배타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세상과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그것을 거의 그들의 것으로만 간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즈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너무 오용하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마가복음 11:17).

그분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눈먼 자”라고 부르시며, 그들이 눈먼 자들을 도랑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마태복음 15:14). 그분은 또한 “네 눈이 악하면 네 온 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

라. 그런즉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마태복음 6:23)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조차 하나님에 관한 거짓된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매우 엄하고 무자비한 분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가혹하고 비합리적이며 요구만 하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하나님을 떠나 버렸고, 그분의 방법들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모두 그 엄하고 꼼꼼한 방법들 때문이었는데, 그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들의 거짓된 해석들을 적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와 같은 왜곡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고 느끼는 이유를 아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들은 그분과 친밀해진다는 소망을 결코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뒤틀린 개념 때문에 그들은 특히 그분께 가까이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곳에서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심하게 잘못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신격화된 영웅들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서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개념들을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그들 자신과 추종자들을 통제하려는 그들의 욕망을 반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희생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또 요구하는 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 단지 그 지도자가 사치스러운 삶을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 익살극을 만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참된 계시를 주시는 것이 왜 그토록 필요했는지를 당신은 압니까?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작은 아기는 인간의 육체를 입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성인이 되어 아버지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오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이해하기 원한다면, 당신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것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분은 어떤 분이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말하고 행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27-31절을 숙고해 보십시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또 네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 주며 네 겹옷을 빼앗는 자가 네 덧옷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네 물건을 빼앗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그리고 그분은 여기에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머리가 어지러웠음에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 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곧 겹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이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

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공흠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공흠을 베푸라(누가복음 6:35-36).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분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주된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지어 그분의 적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적으로 만든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뜻을 거슬러 자신의 뜻을 세운 자들, 이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에게까지 선을 행하십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5:45). 그분은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그분을 저주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저주한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직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저주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적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은 후에 그분이 하신 기도를 기억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3:34). 그분은 그분을 학대했던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모든 반대를 이겨내고 모든 장애물을 깨끗이 제거합니다. 성경은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



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로마서 2:4)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토록 자주 나를 굴복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분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십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누가복음 6:37). 이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예로운 특색과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7).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 하시려고 오셨고, 또한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의 본보기를 따르며 계속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나타내기를 기대하십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육체적 본질을 대적하고 화나게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거나,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거나,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거나, 우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다른 뺨을 돌려 대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를 거절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아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누가복음 6:46).

다른 한편, 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것들은 행하기를 원치 않을까요? 그것들의 어떤 면이 그토록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것일까요? 만일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명령들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았다면, 이 세상이 훨씬 더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일 모든 사람이 당신이 대우받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대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어느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가 새로운 지역사회가 사랑하는 사람들, 즉 누군가 그들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이들에게 행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에게만 집을 판다고 광고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집도 문을 잠그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서도 없을 것이고, 판사, 법원, 감옥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사랑과 배려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당신에게 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누구도 크리스마스 때에 공공 장소에 예수 탄생 그림을 세워 놓을 수 없다고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당신이 공립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를 수 없다고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 집 앞에 있는 흉하고 오래된 나무를 베어 내라고 당신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의 생활을 통제하는 것을 돕고 그러한 규칙들을 강행하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금이 높은 이유입니다.

아마도 내가 그 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서명하는 첫 번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보다 그것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

자리를 기꺼이 양보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여 뒤에 서서 내가 서명하는 것이 더 편하게 보일 때까지 내 차례를 기다릴 것이며, 적어도 그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디어 유형들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원리에 따라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를 그리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가치 체계를 강요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싸워서 안 되며, 속여서도 안 되고, 혼외에 성관계를 가져서도 안 된다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음란물과 간음과 술을 금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검열 제도를 강요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참으로 참담한 일입니다. 그들은 랩 그룹들이 그들의 노래에 사실적인 가사와 천한 말을 넣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 참! 우리는 아마도 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술집이나 클럽에서 밤새도록 맥주를 마시며 댄서들이 춤추는 것을 지켜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멋대로 산다면, 그 사회의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썩게 될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우리가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길을 만든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려고 오셨습니다. 사람들

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응시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최대한으로 부여된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2천 년 전 그들에게 그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날 더 이상 우리 주변에 계시지 않습니다. 절망할 때마다 나는 이스라엘로 날아가 그분을 만나 볼 수 없습니다. 그토록 오래 전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을 믿도록 도우신다는 말입니까?”

나는 바울이 이 작은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바울도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오르신 지 몇 해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의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연설하시는 예수님을 본 적은 전혀 없지만, 그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 드러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든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직접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 예수님에 의해 입증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뿌리를 둔 이 신적인 사랑을 너무 굳게 믿은 나머지, 로마서 8장에서 성경 어디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가장 귀한 구절들 가운데 다섯 구절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바울은 신적인 사랑이 깃든 이 아름다운 구절을 그 책의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쓰고, 끝부분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론을

내립니다(로마서 8:35-39). 그리고 중간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라고 질문합니다.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별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로마서 8:35). 그는 우리가 결코 이런 참담한 것들을 직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요한복음 16:3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 교회는 많은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당신을 떼어 놓을 수 있습니까?

혹은 곤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긴장되는 상황들을 경험하는데, 몇몇 어려운 갈등들로 인해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핍박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요한복음 15:2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마태복음 5:11-12).

그리고 야고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야고보서 1:2). 그래서 핍박이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떼어 놓을 수 있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내가 초대 교회를 검토해 볼 때, 심지어 오늘날 고통

당하는 교회를 관찰해 볼 때, 사탄은 핍박을 통해 교회를 파괴하는 일은 한 번도 제대로 해 낸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교회는 보통 핍박 가운데 더 강하게 되고 성장합니다. 마귀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타협을 끌어들이기 위해 교회와 결탁하는 것인데, 이는 불경건한 것으로서 교회가 세상의 호의를 얻기 위해 양보하도록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이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 놓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가뭄이나 별거벗음이나 위협이나 같은 어떻습니까? 끔찍한 자연의 재앙이나 집이 없는 것이나 치명적인 위협이나 전쟁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그러한 것들은 당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급히 떠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도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로마서 8:36). 이것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기대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37절).

그것은 바로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이라는 하나의 구입니다.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모두 정복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당신은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고 승리합니다. 당신이 정복자입니다. 그렇다면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승리를 거둔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전쟁의 와중에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탄알들이 여전히 당신 머리 주변을 스쳐 지나가고 결과는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미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고 그것과 함께 오는 유쾌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복자보다 더 나은”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대항하고 악의 세력을 대적하여 전쟁에 참여할 때, 당신은 승리자로서 참여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싸움 중간에 이미 정복했습니다. 당신은 전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전쟁의 열기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시면, 누가 당신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누가 이기는지를 압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직 다 끝내지 않았습니다. 끝내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음과 같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리라(로마서 8:38-39).

정사들과 권능들이 천사와 같은 존재의 서열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21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도 하늘의 처소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정사와 권능”보다 훨씬 위에 계시는지 말해 줍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15에서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대항했던 “정사들과 권능들”을 이기셨는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분은 심지어 그분의 승리를 과시하

셨습니다. 이 정사들과 권능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당신을 떼어 놓을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일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전혀 뜻밖에 찾아오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바울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리라(로마서 8:38-39).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하게 당신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가 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한 손으로 온 힘을 다해 당신을 꼭 붙잡으실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당신을 떼어 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통해 당신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비록 당신이 마지막 결과를 보기 위해 여전히 잠시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분은 당신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에서 그것은 이미 끝났으며, 그리하여 그것은 이미 성취된 사실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과 그것의 모든 정황들을 단호하게 제어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고, 또한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로마서 8:28 참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배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예레미야서 1:5). 심지어 예레미야가 수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의 삶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그가 심지어 수정란이 되기도 전에 그를 완전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당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아셨습니다. 당신의 몸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성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로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신의 삶을 통해, 또한 당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만일 그것이 당신을 묘사하는 내용이라면, 당신은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분의 계획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나는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 즉 그분의 섭리에 따른 돌보심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나에게 혹은 다른 어떤 것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구요? 왜냐하면 무엇이 오든지 간에,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때 비로소 그것이 나에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 작용할 수 있는 것들만을 허용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파괴하려고 하는 어떤 것도 허용하시지 않을 것이며, 나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 작용할 것들만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로부터 그분의 사랑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허락하지 않고, 내일도 허락하지 않으며, 영원히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내고 나서도 다음날 아침 마음 속에 새 생명을 간직하고 입술에는 새 노래를 머금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주시는 확신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할 수 있는 한 빈틈없이 자신의 주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가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나 보잘 것 없고 소심한 혼은 여전히 거기에 서서 떨어뜨리며, 하나님이 어쨌든 자신을 버리실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더 이상 사랑하실 수 없어. 그분과 나는 이제 끝났어! 그분은 나에게 질리신 거야!”

저, 잠깐만,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당신을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천사나 정사나 권능이나, 전에 있던 것이나 앞으로 올 것이나, 현재 있는 것이나 장래 있을 것이나, 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당신을 떼어 놓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

릴 수 없느냐구요? 왜냐하면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지 않고, 무한한 사랑이라는 그분의 변함 없는 본질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이 되지 않으며, 그러므로 그것은 끊임이 없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당신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더 좋아지든지 더 나빠지든지, 더 부유해지든지 더 가난해지든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넉넉히 그런 식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거기에 있으며 끊임이 없습니다. 삶에서 심각한 문제들과 갈등에 직면할 때, 당신을 대신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민감한 의식과 인식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자원들을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돕기 위해, 당신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 당신을 들어 올리기 위해 거기에 계십니다. 만일 당신이 넘어진다면, 그분은 당신을 일으켜 주기 위해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당신 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당신의 실패와 약함과 나쁜 날들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대항하신다는 것을 당신으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시지만, 여전히 그분은 당신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느 방향에서 오는 어떤 것이든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을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우리를 위해 가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도록 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당신의 자리를 예약하십시오

크리스마스 때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귀여운 아기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떠올리며 감상적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잠시 멈추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가를 당신과 나에게 보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늘에서 그분과 영원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분의 오심과 탄생을 우리가 어떻게 기념하기를 원하실까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원수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아마도 올해 그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냄으로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하기를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 주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 주느니라”(누

가복음 6:32-34).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행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왜냐구요?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께서 더 많은 것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오늘 교통체증에 걸린다면, 당신이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위해 그것을 유쾌한 경험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인내심을 주님이 당신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격앙되어 경적을 울리더라도,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키스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당신은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해를 비추시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당신에게 말했던 그 지역사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보다 더 나은 지역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보다 더 나은 지주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친절하시며, 긍휼이 여기시고, 은혜로우시며, 용서하시고, 도우시고, 강하게 하시며, 당신에게 선을 베풀고자 하십니다. 그곳은 하늘이라고 불리는데, 나는 이미 내 자리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당신도 예약하셨나요?







제2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19)

당신과 나의 삶은 각각 중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 중심점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 우리의 삶은 무엇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날들이 선회하는 축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적과 의미를 찾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주변으로 맞추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구요? 그분만이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중심점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되셔야 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선회해야 할 바로 그 중심축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기로 결심할 때, 그 일은 우리 모두를 위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최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삶으로 가는 길로 내딛는 첫 번째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 새로운 마음

당신은 정직한 질문과 부정직한 질문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부정직한 질문은 대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논쟁을 원합니다. 한편, 정직한 질문은 진실한 대답을 구합니다.

“나는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이것은 정직함입니다.

“나는 증명할 것이 있어서,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당신에게 보이기 위해 당신과 논쟁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논쟁을 시작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이것은 부정직함입니다.

내 생애 이 정도 나이가 들다 보니, 나는 내가 정직한 질문을 받고 있는지 부정직한 질문을 받고 있는지를 상당히 빠르게 분별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왜 당신은 사람들이 예수  
를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나는 내가 정직한 질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람은 왜 우리가 새로운 회심자들을 그 밤에 해변가로 끌고 내려  
가 파도 밑에 그들을 풍덩 내던지지 않는 이유를 아는 데 진짜 흥미  
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정직한 질문입니다. 그들이 원하  
는 것은 큰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재침례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침례를 받기 전에는 진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만일 새로운 믿는 자가 다음 주 토요일의 침례식 전에 죽  
는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을 탱크로 데려 가서 물에 담그라”는 긴급한  
침례를 지지합니다.

나는 성경 기록에 대해 어리석게 논쟁하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직한 질문을 인지하자 마자 이야기하기를 그만 둡니다.  
나는 단지 어리석은 분쟁이나 논쟁에 말려드는 것에 흥미가 없을 뿐  
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누가 알려 하지 아니하  
거든 알지 못하게 내버려 두라”(고린도전서 14:38). 물론 이 구절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위대합니까?**

어느 날 한 젊은이가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의 한 무리가 그 구세주에게 부정직한 질문을 하  
고 그로 인해 따끔한 비판을 받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심에서 우려한 질문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명령

중에 첫 번째가 어떤 것일까?”를 궁금해 했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이 오랫동안 간절히 알고 싶어 했던 정직한 질문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확신한 적이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라면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하찮은 게임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첫 번째 명령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라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는 중요성의 순서로 볼 때 첫 번째 명령에 대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명령 중에 첫째 명령은 이것이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주시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마가복음 12:29,30).

예수님은 ‘쉐마’[*Shema*]라고 알려져 있는 신명기 6장 4절로 거슬러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동그랗게 말아서 작은 상자에 넣어 손목에 매거나 이마에 둘러 묶곤 했던 성경 기록의 일부분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절기에 성전 뜰에 모여 그것을 읊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부르면서 그 노래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주시니라”(신명기 6:4).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이 되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임을 의미하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위에 있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닌 오직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분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우리 삶의 가장 깊은 영역), 혼을 다하고(우리 삶의 의식적인 영역), 생각을 다하고(우리 삶의 지적인 영역-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열거된 항목에 덧붙이신 것임), 힘을 다하여(우리 삶의 육체적인 영역)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우리가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상 우리는 정확하게 그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답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디자인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에 대한 모든 이유입니다.

## 한 가지 대안적 계획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이 소명을 놓치지 않기를 매우 원하셨기 때문에, 몇몇 장소에서 몇 번에 걸쳐 동일한 개념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디선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을 읽어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오직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 안에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섬기고(신명기 10:12).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 것, 우리가 그분의 모든 길로 걷는 것,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

여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습니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다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당신의 고백의 실패는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로마서 3:23)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났고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주님은 한 가지 대안적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은 몇몇 사람들이 다음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요한복음 6:28). 이것은 다음의 질문과 동일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요한복음 6:29).

감사하게도,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이상적인 요구를 성취하는 데 실패했지만, 나는 믿음을 통하여 실제적인 요구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당신은 생명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안에 들어와 내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분의 내주하시는 능력과 임재를 통해, 그분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이상에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의의 길로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부족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당신에게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을 위해 행하시며, 당신 안에서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주 오래 전에 선포하신 신적인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은 당신과 나에게 그 신적인 이상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당신의 삶을 그분께 헌신하는 그 즉시 당신은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 허망한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는 조금 뒤로 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분의 축 주변을 회전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지만,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우리도 불시착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 이후로 사람은 자연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우선, 성경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허망함과 절망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합니다. 사실상, 전도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고전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솔로몬 왕은 제멋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내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어떤 것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애처로운 울부짖음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혹은 “허망하고 허망하며 모든 것이 허망하고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해 보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욕망에 집중시켰기 때문에, 그의 날들의 마지막에 가서 그는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실망스럽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결국은 쓸쓸한 냉소자로 끝을 맺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산다면, 당신은 그것과 조금이라도 다른 어떤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 길의 마지막에 가서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어. 삶은 실수야, 비극적인 실수야. 그것은 하나의 익살극이야.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지. 나는 우연히 생겨났고, 우연히 사라지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데는 아무 이유도 없어.”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무익합니까! 그리고 만일 당신이 거기에서 끝마치게 되면,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당신의 존재의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시면서 예수님이 의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최우선의 일이다. 너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성장해 가는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를 즐기기 시작하라.”

십계명의 처음 네 개의 계명이 모두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다루고 있음을 실감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네 개의 계명 각각은 당신의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의 온전하고 완전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처럼 들립니다. 만일 우리가 아담과 이브를 따라 즉각적으로 불순종의 길로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가장 쉬운 것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역하려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언젠가 우리의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의 신적인 계획을 성취하여,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과 그분의 우주를 즐거워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단단한 마음에 대하여 무엇인가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행하시도록 그분께 맡기십시오!

###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돌같이 굳은 무감각한 마음처럼 치명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진지한 간섭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맨 처음부터 무엇인가 큰 것을 마음에 두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에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의 간략하고 신비로운 대언 가운데 그것



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언자 에스겔의 시대에는 그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그것을 계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사악함이 만연한 시대에 살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심지어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작은 유다 왕국은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져서 하나님은 이제 곧 바빌론의 사악한 군대를 통해 그 나라를 멸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집행이 유예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암흑을 뚫고 한 줄기 소망의 밝은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그분은 그분의 백성에게 새로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로운 영을 넣어 주며 그들의 육신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연한 마음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걸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니 되리라(에스겔 11:19,20).

우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너무 단단하게 굳어져서, 제어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공허이 없는 돌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길에 너무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변화할 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변론과 간청들을 돌 같은 저항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살 같은 마음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고안하신 것으로, 마침내 모든 사랑과 헌신을 다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입니다. 에스겔이 그의 대언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판에 그분의 법을 기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의 마음속 육체의 서판에 기록하실 그 날에 관하여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예레미야 31:33,34; 히브리서 8:7-13)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그분은 당신과의 의미있는 사랑의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율법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통해 당신을 그분 자신에게 묶어 두는 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슬로 매어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랑에 기초한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께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어떤 외적인 율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 그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 옛 율법이 아닌 새로운 갈망

『오디세이』(*Odyssey*)라는 책에서, 작가 호머(Homer)는 어떻게 오디세우스(Odysseus)가 내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트로이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 집을 떠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오는 데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오디세우스와 동료 선원들은 사이렌(siren)이라고 불리는 여인의 모습을 가진 요정들이 거주하는 마법의 섬을 지나 순항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요정들은 너무 아름답게, 그러나 너무 무시무시하게 노래를 불렀고, 그들의 노래는 감히 그 섬을 지나서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법을 걸었습니다. 마법에 걸린 선원들은 불가피하게 그들의 배를 바위가 많은 해안가로 몰고 가서 갑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맙니다. 그 요정들은 그들의 노래에 저항할 힘을 가진 인간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 멋진 멜로디를 듣고 싶어서, 선원들에게 그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신을 배의 돛대에 묶도록 지시했습니다. 물론 그의 귀는 밀랍을 바르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의 배가 마법에 걸린 그 섬을 지나갈 때, 오디세우스는 불가능할 정도로 아름다운 요정들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는 선원들에게 배를 해안으로 돌리라고 애걸했습니다. 그는 소리 지르고 위협하고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귀에 있는 밀랍으로 인해 그들은 요정들의 소리 뿐만 아니라 그의 어이없는 명령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해를 계속 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살아 남았지만, 그의 마음을 빼앗길 뻔하였습니다.

고대 신화는 이 요정들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 주는데, 이번에는 올페우스(Orpheus)라는 재능있는 음악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람과 그의 선원들 역시 사이렌의 섬을 지나 항해했습니다. 그들의 황홀한 음악이 파도를 따라 퍼져 가자, 마법에 걸린 선원들은 배를 해안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올페우스가 잠에서 깨어 그들이 처한 위험을 감지하자, 그 즉시 자신의 플루트를 꺼내 들고 요

정들의 노랫소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배의 선원들은 그 마법의 노래에 대한 흥미를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노를 저어 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디세우스처럼 주님께 매여 있다고 느끼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압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노래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슬을 끊고 사이렌의 암혹 세계로 뛰어들기를 바라고 애쓰며 애처롭게 읊니다. 그들은 “이 율법들이 나를 하나님께 묶어 놓았어”라고 불평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처지이며, 나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지만 당신이 의로운 원리들에 묶여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하나님과의 율법적인 관계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완전히 풀이 죽어 있습니다.

주님의 무한히 더 아름다운 노래를 듣는 것이 정말이지 훨씬 더 좋습니다! 세상이 그 매력을 잃을 정도로 그분의 사랑과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린다는 것은 정말이지 즐거운 일입니다. 일단 당신이 참으로 그분의 탁월함을 지켜보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면, 사이렌의 초청은 그 매력을 잃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망은 더 이상 당신을 제압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아름다운 음악에 즐거이 귀를 기울이며, 동시에 당신을 죽음으로 유혹하려는 자들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의 마음속에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 즉 살 같은 마음

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즐길 수 있도록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살과 같은 그들의 새로운 마음은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기를 갈망하고, 그분의 법령들을 지키기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을 사랑하거나 섬기기를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분께 요청한다면,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고 당신에게 성령의 일들에 대한 새로운 갈망을 주실 것입니다.

### 한 가지 아름다운 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린도후서 5:17).

나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성격을 가진 몇몇 사람들, 즉 거칠고 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자, 부드럽고 심지어 애정 깊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관찰하는 것은 정말이지 아름다운 일입니다.

수십 년 전 우리가 투산(Tucson)에 살았을 때, 옆집에 짐(Jim)과 쟈(Jan)이라는 이웃이 살았습니다. 쟈이 먼저 주님을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영은 그녀의 마음 가운데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기를 시작

하셨고, 그녀는 대단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순간은 정말이지 전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매우 기운찬 성격의 소유자였고, 주님은 단지 그녀의 전체적인 개성을 강화시키셨습니다.

그 즉시 잰은 남편에게 자신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말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엄한 사람이었고, 특히 주님에 관한 일들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말할 더 적당한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짐이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날 저녁 막내 딸이 매우 흥분해서 깡충깡충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 아이는 숨가쁘게 말했습니다. “오늘 척 목사님이 오셨을 때 있었던 일을 아빠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녀는 마침내 짐이 “내가 집에 없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야”라고 물을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잰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순간적으로 평화와 기쁨의 파도가 자신의 영에 밀려드는 것을 느꼈는지를 묘사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일로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짐은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그도 주님을 영접했고, 나는 그와 함께 무릎을 꿇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짐은 알래스카로 전임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며칠이 지난

후 나는 짐으로부터 내가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편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편지에서 그는 자기에게 예수님을 나누어 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주 새로운 생명을 소개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척, 한때 나는 아이들을 미워하곤 했습니다. 내가 세 명의 예쁜 여자 아이들의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나는 아이들이 이 땅의 천벌이라고 말했고, 내가 결혼과 아이들이라는 뒷에 걸렸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란 이런 나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는지 설명할 수가 없군요.”

짐은 나머지 가족들이 그와 합류하기 전에 먼저 알래스카로 떠나야 했고,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새 집에 도착하기 전에 나에게 그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그들을 몹시 그리워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껴안고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을 때까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끝맺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나는 이제 이전과는 매우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살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대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목할 만한 변화들은 법적인 구속과 같은 어떤 외부적이고 강압적인 것로부터 오지 않고 내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명 없는 계약에 서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분은 그런 “게임”을 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세부 사항을 놓칠 때마다, 그분은 “이보게, 자네, 계약서 세부 사항을 읽지 않았군!”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구속력 있는 법적인 협정에 묶어 두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직 당신과의 사랑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새로운 마음, 즉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당신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 어떻게 그런 일이?

만일 당신이 이 “새로운 마음”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아마도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신비한 일들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나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로 이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주님은 새 생명, 새로운 탄생, 성령으로 난 생명의 새로운 차원에 대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는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이까?”(요한복음 3:1-21)

예수님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와 같습니다. “니고데모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기로 약속하신 이유이다. 그들이 살과 같은 그런 마음을 다른 어떤 곳에서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러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요한은 성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 당신이 그분께 당신의 삶 속에 들어와 당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십니다.

나는 성령의 방법들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당신 안에 새로운 영을 부어 주기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살과 같은 새로운 마음을 당신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삶은 변화됩니다. 당신은 영원히 변화됩니다. 당신이 한때 미워했던 것들을 이제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한때 사랑했던 것들, 당신에게 그토록 소중하게 느껴졌던 활동과 태도들을 몹시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그것들의 실체인 파멸의 도구들로 그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었는가, 혹은 주님을 대항해서 얼마나 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 모든 것을 한 순간에 바꾸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수년 간의 신랄함도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시는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예레미야 17:9)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질문에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예레미야 17:10). 이는 그분이 그것을 철저하게 알기 위해 당신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마음의 가장 깊은 문제들에 그분의 판단의 기초를 두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그분만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당신 자신의 마음은 어떻게 정리됩니까? 당신의 마음의 후미지고 은밀한 곳에서 다른 신들이 왕위에 앉아 있습니까? 다른 문제들이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우선합니까? 당신은 어떤 것들이 주님의 일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보시오, 단지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읽고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은 요구되는 종교적인 것들을 당신이 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신 마음 속에 있는 그것입니다”(로마서 2:17-29 참조).

같은 방식으로 단지 교회에 출석하고 영적인 노래들을 부르며, “아멘, 설교해 주세요, 형제여!”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침례를 받고, 기도하고, 십일조 헌금을 하고, 설교하고, 모든 다른 종류의 종교적인 일들을 행하면서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것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큰 재난이 닥칠 때 그로 인한 슬픔과 애통을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옷을 찢곤 했는데, 아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나쁜 소식을 듣게 되면, 그들은 “아니, 뭐라고?”라고 말하며 옷을 찢습니다. 그것이 슬픔이나 회한과 같은 그들의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언자 요엘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을 찢으라! 나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원한다. 겉으로 보이는 찢어진 옷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정말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요엘서 2:13 참조).

당신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안다. 너는 나를 속일 수 없어. 네가 너 자신은 속일지 모르지만, 결코 나는 속일 수 없어.”

만일 당신이 허용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분의 길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거나 놀랄 수도 있지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의 실제 상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기를 권고합니다. 당신에게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 에스겔서 11장 19-20절에서 약속하신 살과 같은 마음을 주시도록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마음 속에 있는 바위들

당신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면, 많은 바위들을 볼 준비를 하십시오.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도시 주변에 흩어져 있는 많은 바위들에 압도당합니다. 왜 고대 사람들이 중요한 범죄들에 대해 돌로 치는 형벌을 내렸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한 장소에서 그토록 많은 바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또한 어떻게 이 바위들이 그 곳에 모이게 되었는지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이 두 천사에게 세계 전역에 바위들을 흩어 버릴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한 천사는 전세계를 날아 다니며 바위를 흩어 놓았으나, 다른 한 천사는 게을렀습니다. 그는 모든 바위를 예루살렘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여행 안내자로부터 들은 것입

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예루살렘을 보고 싶은 소원을 두셨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보고자 하는 오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사람의 마음은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돌처럼 될 때까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어느 영광스러운 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예루살렘을 방문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시에 다가가자, 그는 너무 기쁘고 신나서 그 오래된 돌 같은 마음을 꺼내서 던져 버립니다. 마침내 그의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를 황홀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는 예루살렘 주변에 쌓여 있는 그 모든 바위들은 사실은 무수한 방문자들의 돌 같은 마음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경험들과 쓸쓸한 절망과 엄청난 불법을 통해 굳어지고 냉혹하게 변해 버린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것이 돌처럼 될 때까지 주님에 대해 단단하게 굳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가져가시고, 민감하고 부드럽고 사랑하는, 살과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대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쓴 마음을 녹이시고, 모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그분의 영의 아름다운 역사를 남겨 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발견하고 즐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 나뉘지 않은 마음

나의 젊은 시절 대중 가요들은 쉽게 내 나이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노랫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연인인가요? 요즘 당신의 행동을 보면, 웬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Is You Is or Is You Ain't My Baby, 재즈 R&B 가수인 루이 조던과 빌리 오스틴의 공동 작곡으로 1944년에 히트함). 나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와 유사한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나의 연인인가요? 요즘 당신의 행동을 보면, 웬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노래 하나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거야.” 이 노래의 작사가에 따르면, 이 노랫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 전부를 원하거나, 조금도 원치 않

습니다. 만일 내가 그것 모두를 가질 수 없다면, 나는 차라리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 노랫말처럼, 확실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눠지 않은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기를 간청하고 계십니다.

혹은 어느 옛 노래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은 한쪽 발은 보트에 다른 하나는 부두에 걸치고, 빠져 나갈 여지를 남겨 두려고 애를 씁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어느 정도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또 어느 정도는 월 스트리트(Wall Street) 주식을 신뢰한다는 것인데,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나뉩니다.

나는 오늘날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가 두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의 어느 한 편에서는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욕신을 좇아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것이 가진 매력을 알고 있고, 확신하건대 당신 또한 알고 있습니다.

### 우상들은 계속 살아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끕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지성주의(intellectualism)에 매력을 느낍니다. 나에게서는 배우고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지적인 능력 개발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매 순간을 배우고 지식을 구하고 사실들을 축적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것은 강박관념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시간을 연구하고 배우는 데 쓸 때까지 그것은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점거해 버립니다.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디모데후서 3:7). 내가 말한 것처럼, 나는 이것이 나에게 매우 매력적인 유혹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즐거움에 더 매력을 느낍니다. 그들은 흥분과 전율, 황홀감과 열광적인 기분을 위해 삽니다. 그들은 모든 삶의 방향을 유쾌한 순간들에 맞춥니다. 아마도 그것은 마지막 순간의 필드 골이나 9회 마지막 공격에서의 홈런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즐거움에 집착하면서, 그 특별하고 덧없는 전율의 한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기꺼이 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권력에 매력을 느낍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를, 즉 그들을 발 밑에 엎드리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호의를 얻기 위해 그들에게 구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의원에 출마하고, 그 다음에는 주의원, 주상원, 주지사,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직에 입후보합니다. 그 동안 내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할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다음 선거에서 그들이 나에게 투표할까?’ 그래서 그들은 항상 권력의 더 높은 자리를 발전시키는 데 열중하며 전 생애를 보냅니다.

고대 사람들은 자연과 훨씬 더 가까이 살았고, 그래서 또한 일반적으로 실체에 더 가까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뒤섞이고 혼란한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의 삶으로부터 매우 동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세련되고 현대화되었기 때문에 실체와의 접촉이 끊어지기 쉽습니다.

오래 전에 쾌락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쾌락이 그들의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작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몰렉(Molech)이다. 그는 쾌락의 신이며, 전율과 흥분의 신이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작은 몰렉을 얹혀 놓고는 그 앞에서 향을 태웠습니다. 그들은 그 주위에 촛불을 밝히고 “파도가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몰렉을 그들의 삶의 신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쾌락을 위해 삽니다. 이것은 나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했던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욕망에 물리적인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욕망으로부터 나무나 돌로 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권력을 숭배하던 이들은 또 다른 작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신을 맘몬(Mammon)이라고 불렀고, 그것을 집에 두고는 그것을 위해 제단을 세우고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그것 앞에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권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권력에 대한 그들의 집착을 신격화했다는 것을 인식했으므로, 그들은 그것에 대해 정직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작은 우상이 대표하는 권력을 숭배합니다.”

지적인 추구에 집착했던 남자와 여자들은 지식을 그들의 신으로 인식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신을 ‘바알’(Baal: “주”를 의미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작은 우상을 만들고, 지식을 얻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주된 목표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식으로 그것

에게 절하고 기도하며 향을 피웠습니다.

성경시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분이 무엇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상숭배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읽을 때, 우리는 매우 우쭐대기 쉽습니다. 우리는 “나는 어떤 우상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라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우리집 거실이나 현관으로 데리고 갈 수 있으며, 당신은 거기에서 탁자 위에 있는 어떤 작은 형상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매우 독선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고대 사람들이 한때 나무나 돌로 된 작은 신들로 의인화했던 바로 그 원리들을 숭배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배우는 것, 쾌락, 권력 혹은 다른 어떤 강박적인 욕망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 더 심각해지는 문제

물론, 우상들은 결코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믿는 자는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세상의 자질구레한 장신구들에 마음을 두고, 실제로는 종종 세상적인 활동에 붙잡히기도 합니다.

그는 주님께 마음의 일부분을 드리지만, 온 마음을 다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는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일들을 좇아 가지만, 또한 육신에 이끌려 세상의 일들을 좇아 갑니다.

보통 일요일에 교회에서 그를 볼 수 있겠지만, 그 주간의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은 그의 삶에서 아주 작은 자리를 차지할 뿐입니다. 그는 거의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삶의 활동들로 너무 바빠서, 하나님은 한쪽 구석에 밀려나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은 둘로 나뉩니다. 그는 하나님과 성령의 일들로 마음이 끌리지만, 또한 세상으로도 마음이 끌립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세상의 매력에 끌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은 전부에 못미치게 됩니다. 당신은 이러한 문제로 갈등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가끔 그렇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러한 유혹에 끌리고 이러한 욕망에 사로잡힐 때, 나의 마음은 나뉘어집니다.

### 나누어진 마음의 비참함

나는 심하게 나누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나를 포함해서)이 비참하게 느끼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끔찍합니다.

이런 사람은 불경건한 환경에서 매우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주님에 관한 것을 마음에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재미”에 푹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세상에 완전히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감독 장치를 그의 영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 가운데 세상에 관한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행복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

뿔을 얻지 못합니다. 그는 긴 사슬로 연결되어 세상에 부착되어 있는 고리를 그의 혼 안에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가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비참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끊임없는 혼란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실제적으로 매일 매순간 그는 계속해서 양방향으로 끌어당겨지는 것을 느낍니다. 한편으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열망으로 강하게 이끌리지만, 다른 한편 그는 세상의 일들에 대한 강한 매력을 감지합니다. 보통 그는 아주 강한 접근-회피 갈등(어떤 한 가지 목표가 매력적인 것과 불쾌한 것을 동시에 갖추고 있을 때의 상황-편집자 주)을 경험하는데, 이는 심각한 노이로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참함, 이것은 나누어진 마음의 한 가지 결과일 뿐입니다.

### 나누어진 마음의 많은 문제들

나누어진 마음은 비참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한 것으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끝도 없이 계속해서 문제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잠시 다른 쪽에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나누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적어도 그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주요한 약점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1. 나누어진 마음은 종종 곁에서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누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협력자들이나 심지어 좋은 친구들도 만들지 못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러한 남자와 여자들은 대열을 흐트러뜨리고는 달아나기 쉽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남편감을 찾고 있는 여성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나누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물론 이 구역에 사는 다른 모든 예쁜 여자들도 사랑하구요.” 그건 절대 안 되지요! 당신은 그의 마음이 당신을 향한 일편단심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그의 헌신에 이의를 제기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부감을 찾고 있는 남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는 따라오는 모든 남자와 새롭거리지 않고, 그가 신뢰할 수 있는, 그를 향한 단일한 마음을 가진 여자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신뢰하는 동료나 친구나 배우자에게 나누어진 마음이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역대기상 12장 33절은 스블론 지파의 5만 명이 충성된 군사로 보이기 위해 다윗 앞에 한때 어떻게 모였는가를 묘사합니다. 이 전쟁 전문가들은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니다.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압력이 가해질 때, 다윗은 이 사람들이 단결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모든 군사들이 완전한 마음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

로 삼으려 하였더라”(38절).

참된 힘은 결코 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능에 있지도 않습니다. 참된 힘은 항상 마음의 단일함에 있습니다.

2. 나누어진 마음은 승리하는 것에 전념하지 않습니다.

열의가 없는 사람은 결코 시종일관된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가 그 과정에서 몇 번의 승리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거의 항상 우연히 이루어집니다.

어떤 코치도 승리에 열의가 없는 선수들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사람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야, 정말이지 아름다운 날이로군요! 이 꽃들은 정말 사랑스럽네요! 연습을 해야겠지요. 이기든 지든 상관 없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품위 있는 코치라면 “여기에서 나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그의 선수들이 이기는 것에 완전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승리가 그들에게 강박관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다음과 같은 옛 격언을 인용하는 것을 당신이 듣게 되는 이유입니다. “승리는 모든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는 그의 팀이 그 경기에 완전히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분명히 어떤 나누어진 마음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다고 말합니다(야고보서 1:8).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그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일이 어렵게 돌아가거나 위급할 때, 이기거나 지는 것이 그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그는 그냥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이보

게, 만일 그것이 고되면, 난 그냥 떠나 버릴 거야. 나는 이 일에 헌신 되어 있지 않네.” 참된 헌신은 결코 말이나 의도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헌신은 항상 마음의 단일함에 있습니다.

3. 나누어진 마음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나누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형편이 좋고 유리하게 느껴질 때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방패를 들고 교회의 합창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다른 군중과 함께 있다면, 물론 그들은 그 단체에 속해 있는 다른 어떤 사람과 똑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누어진 마음으로 고생하는 영적인 카멜레온입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어두운 날들이 오면, 그들은 주님께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약속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을 바라지 모르지만, 그것에 아주 많은 것을 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카멜레온의 가족도 그들에게 약간의 위로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참된 확신은 결코 적응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것은 융통성에 있지도 않습니다. 믿음과 참된 확신은 항상 마음의 단일함에 있습니다.



## 나누어진 마음은 미지근합니다

나누어진 마음은 욕지기나게 하는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뜨거운 물과 찬 물의 수도꼭지를 모두 틀어 놓았을 때 발생합니다. 그것은 둘이 혼합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히 당신과 그분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한번은 고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들이 미지근하게 변해 버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그것을 칭찬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요한계시록 3:15,16).

주님은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를 관대히 다루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나누어진 마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의 삶의 일부분이 되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섬기는 여러 다른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그분을 포함시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온 마음과 혼과 생각과 몸을, 즉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과의 미지근한 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사실상, 그것은 그분께 욕지기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원

하십니다. 그분은 두 마음을 가진 다정함이 아닌 당신의 나누어지지 않은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오직 당신의 마음의 단일함만을 원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이나 다른 어떤 사람 사이에서 당신의 헌신을 나누려고 할지 모르나,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마태복음 6:24).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애쓸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맘몬, 둘 다를 섬기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영원히 율타리에 올라타고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십니다. 당신은 나누어진 충성을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따라 살면서, 동시에 육신을 좇아 걸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서로 배타적입니다. 당신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맘몬을 숨씨있게 다루어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미지근한 물을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으나, 또한 그들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것은 중대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누어진 마음을 얼마나 혐오하시는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고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으로 미지근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한가하게 옆에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으니 이제 그들이 잘못된 자로 드러나리라.”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분께서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형상들을 못쓰게 하시리니”(호세아 10:2).

만일 조지 갤럽(George Gallup)이 그 시대에 살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 그는 아마도 95퍼센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87퍼센트는 그 해 어느 때에 예배에 참석하였으며, 92퍼센트는 종교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90퍼센트는 공립학교에서 그들이 기도를 해야만 한다고 믿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시대에 거의 100퍼센트의 사람들이 나누어진 마음을 가졌습니다. 세간에 퍼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해 나뉘어졌으며, 성실하지 않았고 미지근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크게 복 주셔서 매우 부강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슬프게도, 그 백성들은 다른 신들에게 바칠 화려한 제단을 만들기 위해 그들의 부유함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우상들을 만들고 숭배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의 선함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주셨지만, 아무것도 그분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

실,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수록, 그들은 더 많이 다른 신들에게 바쳤 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형 화면 TV와 레드 삭스(Red Sox: 매사추세 츠 주 보스턴의 메이저 리그 야구팀) 팀의 야구 경기 입장권과 아스 펜(Aspen: 미국 콜로라도 주의 스키 휴양지)에 있는 콘도를 사기 위 해 그들의 여유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아닙니다, 성정은 정말로 그렇 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오늘날 살았다면, 그 본문 은 당연히 정확하게 이러한 것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주 작고 가치 없는 것들에게 그들의 제물 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쾌락의 신 몰렉에게 형상을 만들어 주었고, 그것으로 쾌락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아스다 룯의 형상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그들의 성적인 욕망이 최고조에 달 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것에 대해 정직했습니 다!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은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최고 우 선순위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매 안식일에 회당에 갔으며, 거기에서 토라 를 골라 읽고 몇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간의 나 머지 날들 동안 그들은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나누어진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은 매 우 작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그들의 에너지를 다른

신들에게 써 버렸습니다. 그들은 아시리아 사람들에 의해 이스라엘로 이주해 온 외국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더라”(열왕기하 17:33). 하나님은 수퍼볼(Super Bowl: 1967년에 시작된 미국 프로 미식 축구의 왕좌 결정전)이 안식일에 있는 것을 금하시는데, 이는 그들이 집회에 빠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나누어진 마음과 미지근한 태도에 대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그들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형상들을 망가뜨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분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빼앗겨 버린 이 세상의 것들, 나로부터 너희 마음을 빼앗아 갔던 자질구레한 장신구들과 너희가 얻으려고 애쓰던 소유물들, 그것들 모두를 내가 너희로부터 빼앗아 버릴 것이다. 내가 이제 곧 너희의 제단들을 빼앗고 너희의 형상들을 파괴하리라. 그것들이 나로부터 너희를 유혹했고 너희의 나누어진 마음을 만들어 냈으므로, 내가 철저하게 그것들을 파괴하리라.”

당신 주위의 세상을 보십시오.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관찰하고, 그것들이 모두 불타 없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들 모두를 파괴하실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보물만이 영원한데, 그것은 당신이 하늘에 쌓아 둘 영적인 보물입니다. 나머지는 나무와 건초와 짚입니다(고린도전서 3:11-15). 그것은 모두 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 불에 타지 않는 재

료를 마련해 두십시오.

##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편지를 쓴다면, 당신은 어떻게 서명하겠습니까? “나의 모든 사랑으로, 척,” “헌신적인 당신의 것, 찰스.” 기억하십시오. 비록 당신이 말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당신이 “헌신적인 당신의 것”이라고 서명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정말로 전념해 온 것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분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말들은 값싸고 어느 누구라도 그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헌신이 정말로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 주며, 하나님은 당신의 나뉘지 않은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당신의 시간과 마음을 전부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 보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하나가 된 것과 나뉘어진 것 중에 어떤 것으로 분류하겠습니까?

“음,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당신은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 나갑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나뉘임이 있습니까? 지난 주를 되돌아 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에 전념했습니까? 어떤 행동들이 당신의 대부분의 시간을 가져가 버렸습니까?

“나는 많은 시간을 나의 정원에 쏟았어요”라고 누군가 말합니다.  
“나는 많은 시간을 해변가에서 보냈어요”라고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은 무엇에 당신의 시간을 쏟았습니까? 주변을 살피며 무엇이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과 당신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들이 바로 당신이 몰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마음의 단일함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비록 당신이 거기에 앉아 있다 해도, 당신의 마음은 배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일요일 오전에 주님의 집에 있으면서 그날 밤 술집에 갈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일요일을 교회에서 보낼지 모르지만, 그 주간의 나머지 시간에 당신은 하나님과 다른 어떤 교제도 나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다시 한 번, 당신 자신에 대한 솔직한 인물 조사 기록을 만드십시오. 당신은 당신과 주님의 관계를 뜨겁다고 묘사하겠습니까? 당신은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분이 진정으로 당신의 삶의 주님이십니까? 그분이 맨 먼저입니까? 그분이 다른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십니까? 당신은 그분을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존중합니까? 혹은 당신은 예수님과 가벼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과 열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아마도 당신은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미지근합니다. 그

리고 하나님은 변화되기를 당신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누어진 마음을 관대히 다루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절반의 현신이나 부분적인 신실함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그분만을 섬기고 숭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나누어진 마음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치료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모두는 세상의 매력과 압력을 느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의 놀라운 행위와 수고를 칭찬하신 후에,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요한계시록 2:4)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 나누어진 마음에 대해 그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전의 불타는 사랑으로부터 떠나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표류하는 것은, 정박장도 없이 표류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는 파도 위에 떠다니는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느린 과정입니다. 우리는 바다 멀리에 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도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고 지적하셨지만, 그리고 나서 그분은 그들에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치료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라”(5절, 참조)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을 처음 발견했던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씻기고 모든 죄로부터 당신을 깨끗케 하신 것을 깨달았던 그 기쁨의 순간들을 상기시켜 보십시오. 당신은 주님에 대해 매우 흥분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깨달았을 때, 당신은 그분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당신은 아무리 해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예배당 문이 열려 있을 때마다 당신은 성경을 가지고 거기에 있었으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령의 일들을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할 때, 당신의 삶은 정말이지 기쁨과 흥분으로 벽차 올랐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회개하라”(5절, 참조)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돌아서라! 당신은 너무 멀리 떠나려 가서 지금은 바다 멀리까지 갔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서십시오! 당신의 관계에 들어오도록 허용했던 그 냉랭함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것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반복하라”고 충고하셨습니다. 즉 “처음 행위를 하라”(5절). 그분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반복해서 처음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분과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 당신이 행하고 있었던 것들로 돌아가십시오. 아마도 그것은 정기적인 성경공부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복음전도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지역사회 구제시설에서 돕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이 한때 행했던 것을 반복하십시오.

## 기억하라, 회개하라, 반복하라

예수님이 이 효능 있는 처방전을 주시기 오래 전에, 다윗 왕은 그 자신의 방황하는 마음을 치료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치료는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시편 86:11). 이 단순한 청원에서 우리는 그의 기도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세상이 그의 마음을 끌었던 많은 매력적인 것들을 제공했으며, 그것들이 그의 마음을 나누고, 그로 하여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한 마음의 단일함을 나에게 주소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속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당신을 향해 하나가 된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과 같이, 당신도 그분을 섬기도록 당신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나누어진 마음을 없애 주십시오. 저는 제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나누어지고 있으며 무엇인가에 끌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된 마음을 주소서.”

당신이 이 처방전을 신실하게 따른다면, 다윗이 누렸던 것과 동일한

놀라운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새롭게 된 주님과와의 관계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오리니”(시편 86:12).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시면, 당신도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날 것이며,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그분을 즐거이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부터 그런 종류의 나뉘지 않은 사랑을 갈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이렇게 말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불을 새롭게 하소서, 오 주님. 당신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주소서.”

### 하나된 마음의 능력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는 비탄의 내용을 가진 시편과 공통점이 많았던 어느 유행가를 들곤 했습니다. 한 가난한 젊은이는 그의 여자 친구에 대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뜨겁지도 아주 차지도 않았고, 그리 온순하지도 그리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자 친구에 대한 강한 감정을 결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는 이것이 되든지 혹은 저것이 되어야 합니다. 울타리 위에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그대

는 이 쪽에 있든지 혹은 저 쪽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울타리 위에 걸터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되든지 아니면 저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전부 그분을 향해 있고, 그분을 향해 하나가 되어 있는 열렬한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한 마음을 가진 열한 명의 제자들을 취하셨고, 그들과 함께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이 열한 명의 제자들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더 심오하게 인간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고자 하는 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 부디 하나님이 우리들로부터 두 마음을 없애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 자신의 세상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소서.





##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

수년 전에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는 “목사님, 새 차 하나 구입하시지 그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절대로 새 차를 사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 지나친 감가상각 때문예요.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 손실을 떠넘기게 되잖아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차량 판매업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 번 들러서 마음에 드는 차를 골라 보세요. 가격에서 감가상각을 빼 드릴 생각입니다.

그것은 제가 부담할 테니, 와서 원하는 모든 부가 사항들을 고르실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제가 부담할 게요.”

그래서 나는 차량 판매소에 갔고,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가 제공하는 모든 부가 사항들을 갖춘 내가 원하는 색깔의 꿈에 그리던 내 차를 골랐습니다. 그는 디트로이트에 내 차를 주문했고, 그들은 그 차를 만들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전화해서는 “차가 여기 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시 나는 그 차를 가지러 갔습니다. 나는 나의 오래된 중고차를 돌려 주고, 접는 포장이 달린 아름다운 새 차를 타고 차량 판매소를 나왔습니다. 나는 새 차를 가져 본 적이 전혀 없었는데, 새 차의 그 향기는 모두 내 것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새 차의 냄새는 나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운전하며 그 차량 판매소를 빠져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멋진 새 차를 타고 지나가자, 나를 보려고 사람들의 머리가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라이브는 아주 좋았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내내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와우! 이것은 분에 넘치는 일입니다! 나는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에게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차량 판매소를 향해 떠나기 전에, 아내가 돌아오는 길에 우유를 줌

사다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나는 식료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통로를 걸어 내려가면서 나는 계속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는 주차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새 차를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나는 그것에 너무 매료되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님, 이것은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

내가 고른 물품들에 대한 돈을 지불하고는, 나는 거의 가볍게 뛰면서 급하게 새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어떤 무분별한 바보가 부주의하게, 그리고 분별없이 내 꿈의 차의 운전석 문을 움푹 패이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 차를 아직 집에 가져가 보지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나는 격노했고, 마침내 양값음하기로 결심하고는 아주 작은 페인트 긁힘 자국을 복구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탐정 흉내를 내서라도 내 차를 이렇게 만든 차량의 색깔을 알아 내기를 바랬습니다.

‘아마도 여전히 여기 주차장에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나는 그 녀석을 세계 두들겨 줄 수 있을 거야!’

집으로 오는 길 내내, 나는 마음을 풀이며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비참해졌습니다. ‘부패한 사람들, 부패한 세상! 나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 무분별하고 버릇없는 녀석들 같으니라고!’ 이런, 내가 하나님이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눈감 짝할 사이에 이 세상의 절반을 지옥으로 보내 버렸을 것입니다!

집에 들어서자 나는 식료품들을 확 집어 던졌고, 나의 아들 척 주니어는 나에게 “아빠, 새 차 사셨어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오, 저도 보고 싶어요!”라고 그가 외쳤습니다.

“물론이지,” 나는 투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차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차의 지붕을 올렸다 내려 보기도 하고, 창문과 좌석 그리고 차량 전체에 있는 모든 버튼을 다 눌러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칭찬하기 위해 뒤로 물러섰을 때,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앗, 아빠 저게 뭐예요?”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가게에 있는 동안, 어떤 어리석고 비열하고 부패한 ...”이라고 내가 말할 때, 내 코가 노여움으로 벌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작지만 긴 비난의 연설을 장황하게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척은 나를 향해 머리를 약간 들어 올리고는, “저, 아빠 전부 다 태워 버리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다음에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전부 다 목구멍 안에서 죽어 버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필요했다.” 정말이지 나는 너무나 빨리 균형을 잃었습니다! 새 차의 번쩍임, 화려한 비품들, 나에게 쏟아졌던 감탄하는 표정들, 나는 이것들로 하여금 이 우주 안에 있는 유일하게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에 대한 나의 주의를 흐트러뜨리도록 허용했습니다. 나는 대략 0.003초 만에 “주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에서 “나는 당신이 창조하신 가치 없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로 가 버렸던 것입니다.

멋진 새 차를 타고 거리를 폼나게 달리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라고 말하기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아아, 그러나 어떤 일이 닥치든 간에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전자의 길로 가는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 매춘부와 바리새인

예수님이 저녁식사 초대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당신은 알았습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복음서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할 때마다 그분은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사실, 때때로 그분은 심지어 자신을 초대하시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리고를 방문하는 동안, 삭개오라는 키가 작은 사람이 예수님을 훔쳐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은 삭개오 바로 밑에서 멈추시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저녁을 먹으려고 너의 집으로 가던 중이니라”(누가복음 19:1-10 참조)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조차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일곱 교회에 대한 그분의 메시지를 마무리 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요한계시록 3:20). 주님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왜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그분은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눌 때에만 생기는 친밀함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시몬이 다소 무례한 주인이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먼지가 많은 길에서 앞이 트인 샌달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인들은 하인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발을 씻을 깨끗한 물을 대야에 담아 문앞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만일 하인을 둘 여유가 없다면, 적어도 물은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집에 들어올 때, 주인은 그의 손을 친구의 어깨에 얹고 종종 두 뺨에 가볍게 대는 평화의 입맞춤을 건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예의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것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은 손님들의 머리에 장미향의 향수를 한 방울씩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제스처는 그 분위기에 사랑스러운 향기를 더했고, 실제로 “우리 함께 더할 나위 없는 멋진 시간을 가져 봅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그것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대부분의 집들은 축제하기에 좋은 장소인 안뜰을 중심으로 주변에 지어졌습니다. 손님들은 마루 바닥 위에 있는 낮은 탁자에 둘러 앉았는데, 왼쪽 팔꿈치로 기대고 발은 그 뒤에 두었습니다. 그

들은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음식을 먹기 위해 오른손을 사용하였습니다.

저녁 식사에 랍비를 초청했을 때는 언제든지 대중들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 두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은 초대받은 손님들 주변에 둘러 서서 랍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특별한 날에, 한 매춘부가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식사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여자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헬라어 용어는 그 여자를 매춘부로 규정하는데, 그것은 그녀가 먹고 사는 방도였습니다. 그녀는 그분에게 귀기울이기 위해 다가와서 그분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거기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의 바로 그 존재가 그녀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행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자신의 죄많은 상태를 슬퍼하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 가까이에 떨어지기 시작하자, 그녀는 무릎을 꿇고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녀가 가지고 다니던 작은 줄마노 상자에 들어 있는 향유로 발들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누가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제 그분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리라, 그 여자는 죄인이니라 하니라(누가복음 7:39).

당신은 그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을 손대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어쨌든 죄가 단순한 접촉만으로

도 전이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연히 죄인과 부딪친다면, 그들은 기혼의 샘으로 달려가서 옷을 벗고 의례적인 목욕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때까지는 성전 뜰에 접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인”과 접촉한다는 생각 자체도 너무 싫은 나머지, 그들은 거리를 걸어 내려갈 때 겹옷을 매우 단단히 몸에 둘러 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삭삭거리는 겹옷이 죄인이나 여자나 이방인과 접촉할 수도 있는 우연한 기회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잘 알려진 한 매춘부가 그분에게 손을 대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셨고, 이를 바라보던 바리새인은 그것을 그분이 하나님과 어떠한 특별한 관계도 가질 수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말할 것이 있다.”

“선생님이여, 말씀하십시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빚을 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친구는 5만 달러의 빚을 졌고, 다른 한 친구는 5천 달러의 빚을 졌습니다. 빚을 진 두 사람 모두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돈을 빌려 준 그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장부에서 지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즉 네가 말해 보아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그가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니이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옳게 판단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누가복음 7:40-43).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그 이야기 속의 재정적인 빛과 우리 자신의 영적인 빛을 비교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짓습니다. 어떤 이들은 매우 도덕적이고, 항상 황금율에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그들도 죄를 짓지만, 비교에 따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성경책에 있는 거의 모든 규칙들을 범합니다. 그들은 최악의 죄인들 열 명의 목록을 만들고, 세계 기록의 기네스북에 등재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죄를 많이 지었든 적게 지었든 간에, 당신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빛을 갚을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으며, 당신의 죄많은 상태로부터 당신을 구속할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적인 은행 계좌는 제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무례한 행동에 그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그 이야기를 사용하셨습니다.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오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오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오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누가복음 7:44-46).

예수님은 단순히 시몬을 책망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다. 오히려, 그분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이

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누가복음 7:47).

시몬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당신은 아마도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많이 사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적게 사랑하는 자입니까?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때때로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받는 것이 악한 사람들이 받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몬과 같이 선한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필요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때, 그들은 아주 조금만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범죄가 너무 극악무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부터 뒷걸음질칩니다.

여러 해 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연쇄 살인범 제프리 다머(Jeffrey Dahmer: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 중의 하나로, 시체와 죽어가는 육체에 성적으로 집착하고, 약물 복용과 살인에 인육을 먹기도 함)가 감옥에서 회심한 후에, 미국 전역에 있는 신문들은 그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몹시 화가 난 독자들로부터 온 성난 편지들을 기사로 찍어냈습니다. 어떻게 누군가 그러한 괴물이 하늘나라에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할 수 있겠

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만일 그 동물이 하늘나라에 있다면, 나는 거기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당신은 그 악명 높은 맨슨 집단(Manson family: 찰스 맨슨이 이끄는 일종의 사교 집단으로 마약과 혼음, 살인을 일삼았다)의 찰스 “텍스” 왓슨(Charles Tex Watson: 맨슨 가족의 일원으로 찰스 맨슨의 사주를 받아 살인을 저지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감옥에 있는 그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와 정기적으로 서신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렬한 증거와 주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용서받았고, 그래서 그의 사랑은 그의 믿음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훨씬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용서해 주신 것을 당신이 안다면, 당신은 그분을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적게 용서해 주셨다고 상상한다면, 당신은 그분을 적게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1부터 10까지의 등급에서, 당신은 주님에 대한 당신의 마음 속 사랑 계량기가 어디쯤 놓여 있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가볍습니까, 아니면 열렬합니까? 큼니까, 아니면 작습니까? 열렬합니까, 아니면 냉담합니까? 당신은 그분을 많이 사랑합니까, 아니면 적게 사랑합니까?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이 최상의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주님과의 관계에 실패합니다. 그들

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을 조금만 사랑합니다. 다른 것들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주님의 일들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초과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분이 바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즐깁니다.

하나님은 그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을 능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십니다(출애굽기 20:5; 고린도전서 10:22). 그분은 그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랑들 위에 우뚝 솟아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반드시 최고로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방법으로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주님을 안다는 것조차 부인했습니다. 그 후 그는 의기소침해졌고, 아마도 제자로서의 그의 시기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재확인해 주시고 슬픔에 잠긴 그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기 위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른 아침 티베리아 바다 어느 한적한 해안가에서,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나섰던 베드로와 여섯 명의 그의 동료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만드셨습니다. 이들이 살아계신 그들의 구세주를 다시 만나는 충격으로부터 벗어난 후에,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먹는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 그분은 베드로에게 중대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요한 복음 21:15).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본문이 그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독단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막 잡혀 그물에서 퍼덕이는 물고기들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대부분의 상업에 종사하는 어부들처럼, 의심할 바 없이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고기잡이하던 너의 옛 삶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혹은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실 때, 아마도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당신도 기억하겠지만,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 모두가 그분을 버릴 것이라고 예견하셨습니다. 그 때 베드로는 “모두가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큰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나는 나의 동료들보다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저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바위같이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제자, 저 베드로를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저를 몹시 필요로 할 때, 제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얇고 작은 조각일지 모르지만, 당신은 저를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베드로의 오만한 자기 비교를 언급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분이 무엇을 염두에 두셨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

요한 문제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이것들”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무엇이 서로 경쟁합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능가합니까? 혹은 그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다른 모든 사랑을 초월합니까? 그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최고입니까? 다른 모든 것은 보류될 수 있으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만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을 최고로 사랑할 것을 당신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아침 당신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계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분이 수저를 내려 놓고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그분이 당신에게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분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계실까요? 당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 무엇이 그분과 경쟁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관계, 즉 경건치 않은 사람에 대한 낭만적인 애착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가 당신에게 당신의 기준을 타협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가 당신에게 그와 함께 잠자리를 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주님과 그의 관계보다 그를 더 사랑합니까? 당신은 그녀와 당신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기꺼이 희생하겠습니까?

혹은 아마도 예수님은 당신의 직업의 “이것들”에 대해 당신에게 묻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위한 높은 목표와 기준

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당신은 재정적으로 안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당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입니다. 당신이 바라던 승진의 기회가 마침내 찾아왔지만, 당신은 이 새로운 과제가 의심스러운 사업 관행을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이 수준에서 당신은 고객들을 계속 행복하게 하기 위해 다소 도덕적으로 불미스런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야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그러한 목표들이나 너의 꿈을 성취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론 당신이 깊이 즐기는 도덕적인 관계들과 활동들 그리고 소유물들을 가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낚시를 하거나 로맨스를 즐기거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것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주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능가할 때 비로소 잘못된 것이 됩니다. 그것들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사랑이 될 때, 즉 당신이 이러한 다른 열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기꺼이 희생하고자 할 때,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당신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혹은 내 이름이 우선순위 목록에서 저 아래 어딘가에 있느냐?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이 너의 삶의 다른 모든 관심과 다른 모든 사랑을 초월하느냐? 내가 첫 번째이냐? 내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느냐?”

“주님, 당신은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 당신을 더 많

이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라고 유창하게 대답하기는 쉽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인 실체가 되었을 때, 그것은 단지 공허한 고백입니까? 혹은 그것에 실제적인 무게가 담겨 있습니까?

## 사랑과 미움에 관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깜짝 놀랄 만한 비교를 하셨는데, 이는 문제를 더욱 분명하게 하면서 동시에 많은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누가복음 14:2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문제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언급하기를 시작하십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문제는 극복하기가 쉽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랑하다”와 “미워하다”라는 두 단어가 정반대의 극단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것들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그러나, 중동지역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것들은 반대되는 단어들이 아니라 비교되는 단어들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미워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분은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우

리의 사랑보다 반드시 못해 보여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랑도 그에 비해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그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실제로 미워하라고 당신에게 가르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명백하게 그 반대를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누가복음 6:27).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에베소서 5:25).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한복음 15:13).

명백하게,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기 위해 당신이 어머니와 아버지, 자매들, 형제들, 당신의 가족 구성원들, 자녀들, 그리고 친구들을 반드시 미워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 혹은 아내나 자녀들, 형제들이나 자매들, 혹은 친구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반드시 초월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반드시 최고로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만일 당신의 부모가 당신에게 “예수님에 대한 너의 사랑이나 우리에게 대한 너의 사랑 둘 중에 하나이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당신의 아내가 “당신이 이 그리스도인의 강박 관념을 고집한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아내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초월

해야만 합니다. 만일 당신의 남편이 “난 더 이상 이런 종교적인 것들을 참을 수 없어! 만일 당신이 그것을 계속한다면, 난 떠날 거야”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가 떠나도록 내버려 두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린도전서 7:15).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가장 먼저가 되고, 또 최고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태의 복음서는 이 격양된 비교를 매우 명확하게 해 줍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마태복음 10:37). 그러므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이 반드시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다른 어느 누구라도 미워하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들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분의 영을 통해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반드시 다른 모든 사랑을 초월해야만 합니다.

### 심지어 당신 자신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친구들과 가족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미움처럼 보이게 만들어야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극단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과격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더 멀리 나아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누가복음 14:26,27). 지금 그분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은 당신이 문자적으로 당신 자신을 미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선, 바울에 따르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에베소서 5:29). 또 다른 예로, 예수님 자신이 십계명의 일부분을 인용하셨습니다.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9).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비해 미움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분의 진술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만 합니까? 이러한 생각과 관련해서 수년 동안 사람들은 많은 어리석은 것들을 언급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장모님은 정말로 잔소리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장모님 덕에 갈 때마다 그

걸 참느라고 힘들어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어찌겠어, 그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이니 말이야.”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발가락에 관절염이 있는데,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가 봐.”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겐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39)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당신 자신을 완전히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적으로 당신의 의지를 내어 드리는 것은 고통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픔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당신의 때이른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랑을 초월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키워 가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기꺼이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없이, 그러한 제자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또한 존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자, 그런 종류의 열정은 그것이 맞는 사람들에게는 좋습니다. 그들에게는 잘 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와 같이 만드시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서, 그것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밀 하나를 말해 줄까요? 그것은 나로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그것은 우리 모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연적인 상태를 초월해서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살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분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쓸 때, 성경은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 처럼 견지 아니하느냐?”(고린도전서 3:3)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의해 살아가기를 선택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유다서 21)라고 말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 위에 그분의 선하심을 수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불신앙으로 행했던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서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작정하셨던 충만한 복으로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교만과 반역으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수여하기 원하시는 충만한 복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멀리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가 살아가는 모습 좀 보아라! 나는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죄로 인해 슬퍼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길들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분은 당신을 위해 행하시기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인처럼, 만일 당신이 증오로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발람처럼, 만일 당신이 탐욕으로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고라처럼, 만일 질투가 당신의 삶을 주관하도록 허용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그분이 정말로 행하시기 원하는 것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신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당신을 위해 행하시기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자리에 당신 자신을 두십시오.

**여기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접는 포장에 달린 나의 빛나는 새 차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집으로 가져 가기도 전에 누군가 움푹 들어가게 했던 그 멋진 차 말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불에 타 버린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나는 차량등록국으로부터 내가 그 차량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를 묻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차량등록국에 전화를 해서 “미안하지만, 나는 수년 전에 그 차량을 팔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전화를 받던 사무원은 “저, 그 차가 고속도로에 버려져 있거든요. 엔진이 폭발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 놓을 때, 주님이 수년 전에 나에게 하신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화를 내며 가게에서 집으로 차를 몰고 올 때, 나는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가 조금 전에 말하던 그 모든 기쁨과 영광과 복과 사랑은 어디로 갔느냐?” 자동차에 난 움푹 패인 작은 자국 하나가 나를 “오, 주님, 당신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저는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에서 “하나님, 저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로 보냈습니다.

만일 사도 요한이 나와 함께 차를 타고 있었다면, 그는 내 어깨를 툭 치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보게, 척?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내 생각에 자넨 거짓말쟁이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이야”(요한일서 4:20).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함으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요한복음 15:12).

새 차가 움푹 패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사려 깊은 운전자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말입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이 최고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오직 당신과 그분만이 그 답을 아십니다.





## 다시 불붙는 마음

첫사랑의 꽃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 생애에 특별한 향기를 부여합니다. 당신은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자나 깨나 사랑하는 이에 대한 최근의 모든 생각을 음미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에 대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했을 때 가졌던 주님에 대한 당신의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물론, 그분이 처음에 당신의 등에 있던 무거운 죄책을 들어 주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을 때의 그 달콤한 느낌을 당신은 기억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에 반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님을 위한 희생은 어떤 것도 그리 커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당신은 심지어 그것을 희생이라

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든 순수한 기쁨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매우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무모하게 양도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나는 예수 운동(Jesus Movement: 갈보리 채플 초기의 교회 운동) 시절 가장 유명했던 밴드 가운데 하나인 “러브 송”(Love Song)이라는 음악 그룹의 단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주님께 처음 나왔던 그 초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어디든지 기꺼이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밴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한 상자의 건포도와 한 봉지의 귀리와 약간의 휴대용 식품이었으며, 이 친구들은 그 일을 영원히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매우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어디든 기꺼이, 또 열심히 가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으로 격양되었으며, 이는 그들의 행복한 마음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의 꽃이 한창 피어난 이후로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잠시 동안이었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자주, 인생의 길고 고된 여정은 예수님 안에서 느끼는 기쁨과 열정이라는 우리의 초기 경험들을 짓밟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구서들의 만기일이 다가옵니다. 질병이 침투합니다. 관계가 나빠집니다. 차들은 고장이 납니다.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차리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주님을 알기 전의 차갑고 메마른 껍질로 오그라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 하나님의 비애

그분이 길을 잃고 헤매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법을 보았기에 나를 떠나 멀리 가고 허무한 것을 따라 걸으며 허무한 자가 되었느냐?”(예레미야서 2:5)라고 물으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비애를 거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때, 당신은 그분의 고뇌에 찬 소리를 분명히 듣습니다.

오 하늘들아, 너희는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몹시 두려워할지어다. 너희는 심히 황폐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스스로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예레미야서 2:12,13).

그분의 백성들이 그들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떠나 육신의 일들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은 고대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슬퍼하셨습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그들은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슬픈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썼고, 마침내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큰 기쁨과 흥분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했지만, 그들이 주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길로 가 버릴 때까지 점차적으로 그들의 헌신은 약해졌습니다.

이런 영적인 방황 뒤에 있는 이유들은 다양합니다. 재난, 분주함, 비판, 탐욕, 낙담, 야망, 부주의, 그리고 그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치료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뜨거운 사랑의 빛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활기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그분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시도록 허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 전에 방황하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과 내가 주인 줄 아는 마음을 주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리라(에레미야서 24:7).

그 일이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 예수님을 위한 고난

많은 사람들은 삶이 그들을 힘들게 할 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잃어 버립니다. 그들은 높은 음으로 시작하지만, 공기가 가슴 밖으로 다 빠져 나가게 되면 곧바로 노래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의 삶은 시편 44편과 매우 유사하게 흘러 가는데, 이는 엄청난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시작되지만 무서운 딜레마로 끝이 납니다. 저자는 “우리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로부터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로 옮겨 갑니다. 이 모든 내용이 15개의 짧은 구절들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류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시편 44편의 한 구절을 로마서 8장에서 인용하는데, 거기에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묘사합니다. 그는 우리의 영적인 확신을 증진시키기 위해 구성된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집니다. “만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로마서 8:31).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로마서 8:33-35).

그와 같은 엄청난 격려의 말 후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로마서 8:36). 이 구절은 시편 44편 22절로부터 인용된 것으로, 특히 이 문맥 안에서 다소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군가 플루트 구역에서 틀린 음정을 내는 것과 같은 불협화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휘자가 각각의 음정을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심한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사실상, 그들이 핍박을 당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문을 당하고, 사자의 먹이가 되고, 말뚝에서 화형을 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계속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면, 여기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편하지 않은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안락한 환경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이 세상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은 인기있는 처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철저하게 나쁜 평판을 받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참된 용기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유쾌하지 않은 일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그분을 신뢰해야만 하며, 계속해서 그분께 헌신해야만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불쾌한 교훈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네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네게 띠를 띠워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요한복음 21:18). 요한은 그의 복음서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 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19절).

예수님은 베드로의 팔이 언젠가 십자가 위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처럼 십자가형으로 죽을 것이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막 처형당하려고 할 때 그는 거꾸로 십자가형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그가 주님처럼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오래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분을 따르는 것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그것은 너의 생명을 요구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십자가에 매달을 것이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만일

나를 따른다면, 너의 인생은 즐겁고 유쾌한 경험들로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그 즉시 너는 영광스러운 더없는 기쁨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에게는 어떤 문제도, 어떤 걱정도,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모든 일들이 너에게 매우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 앞에 펼쳐진 것은 험한 길이란다. 세상은 너를 미워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미워했고, 너는 너의 주님보다 더 크지 않다. 너는 나를 위해 핍박을 받고 투옥될 것이다. 네 가족들조차도 너를 대적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대가로 그것을 곧바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은 베드로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고난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훨씬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그분과 당신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당신이 이 어려움과 역경들을 기꺼이 경험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당신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더욱 굳게 합니다. 그것은 욥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 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욥기 13:15).

물론, 베드로는 이 소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인들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을 둘러 보다가 요한을 보고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요한복음 21:21). 그러자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22절).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야, 그는 네가 상관할 바

가 아니다. 너의 일은 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야. 네가 걱정해야 할 것은 너 자신의 헌신이다.”

주님은 항상 인격적인 기반 위에서 당신과 나를 다루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에게 무엇을 행하기로 결정하든, 그것이 네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이 너의 일이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만일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계속 불타오르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눈을 주위에 있는 것들 대신에 예수님께 고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 우리는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첫 번째 부활 주일 아침입니다. 낙심한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1킬로미터 떨어진 조그만 마을을 향해 외진 길을 따라 터벅터벅 걷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그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그가 주님에 대한 어떤 기록 활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록되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제자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제자, 즉 그저 평범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부활의 날에 모든 사도들과 보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 두 평범한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 날 아침 이른 시각에 그분은 막달라 마리아를 잠깐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분은 텅 빈 무덤을 떠나던 다른 몇 명의 여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날 아침 어떤 시간에 그분은 베드로를 우연히 만나셨고, 우리는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것 외에는 그 만남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분은 베드로를 격려하고 그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명의 이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은 그 날 오후의 상당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1킬로미터가 조금 못 되는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낙심하여 풀이 죽은 채로 그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오래 걸렸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으며, 계속해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믿으며, 주님의 일들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곧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탐욕의 사람들은 폐위될 것이로다! 의가 통치할 것이로다! 전쟁은 그치고 고난은 끝이 나리라!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실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지켜보았을 때,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들의 모든 소망은 주님의 죽은 몸만큼이나 무기력해졌습니다. 그 불꽃은 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즉각적으로 세우려는 그들의 불타는 열정은 죽어 버렸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을 따라 걸을 때, 그들은 낙심하며 슬퍼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때 신분을 숨긴 예수님은 그들을 따라 잡아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 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슬퍼하느냐?”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그 중의 한 제자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단지 나그네로 있기에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들이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마치 그분이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질문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질문하시는데, 그분이 그 답변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현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훨씬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낙심한 이 두 제자가 그들의 절망과 슬픔과 문제들을 표현하도록 권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제자들은 그분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

과 말에 능력있는 대언자라고 불렸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처럼 처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고통을 덜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보다 더 많은 소망을 가져다 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보다 더 고상한 행위를 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 주어 죽도록 정죄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하며, 그들은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예수님이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그들이 기다릴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꽃이 타올랐지만, 삼일 전 로마 병사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그 불꽃은 꺼져 버렸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그 날 아침 일찍 돌무덤에 다녀와서는 돌이 굴러져 있는 것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천사들이 선언한 것에 대해 말했다고 보고하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짐짓 흥분하기 쉬운 여자들의 이야기로 받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돌이 굴러져 있는 것과 예수님의 몸이 놓여 있었던 장소를 보았으나, 그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텅빈 무덤조차도 그들의 절망을 쫓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그들의 소망이 어떻게 와르르 무너지고 타 버렸는지를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은 그들에게 성경 기록들을 설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문제를 아십니까? 그들은 그 이야기의 일부분만을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수백 개의 대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 성경 기록들은 온 땅에 평화를 가져오며 다윗의 왕좌에 앉아 다스리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 말합니다. 이 대언들은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전쟁의 끝을 예언합니다. 그들은 탐욕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사랑과 조화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날에 대해 말합니다. 범죄가 사라지고, 질병도 사라지고, 부패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날이 오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행할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했던 그 모든 일들을 그분이 행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진리의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성경 기록들은 메시아의 고난과 거절당하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들은 그 성경 기록들을 보지 못했거나 믿지 않았으며,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들이 그토록 당황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대언자들이 그분에 대해 말했던 모든 것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면서, 이 평범한 제자들을 모세에서부터 대언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내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인류의 죄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등장하는 보기 흉한 장면을 그들에게 보여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씨” 즉 메시아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뱀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사탄에게 말씀하셨으며,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룰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대언이었습



니다(창세기 3:15 참조).

창세기에서 조금 더 뒤로 가면서, 예수님은 아마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희생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는가를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분은 그들이 어떻게 헤브론에서 모리아 산까지 삼 일 동안 여행했는지와 어떻게 이삭이 그들에게 희생 제물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자, 아브라함이 이에 대해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창세기 22:8,14)고 대답했는지를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도 예수님은 모리아 산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도록 그분의 아들을 내어 주신 바로 그 장소였다는 것에 주목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을 출애굽기로 안내하며 이집트의 노예생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상기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 보십시오. 어느 운명적인 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모든 집안의 장자를 죽이기 위해 그 땅을 통과했는데, 어린양을 잡아 그 피를 대야에 담고 우슬초로 그 피를 문의 양 옆 기둥과 위에 있는 가로대에 뿌린 집은 제외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거기에 바른 피가 십자가를 형성했다고 언급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유월절 어린양의 모형을 성취하셨는지를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다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레위기로 안내하시고,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의 참된 의미와 왜 죄의 사면을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이 요구되는지를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분은 어떻게 이 모

든 것들이 인류의 죄를 위해 하나님이 제공하신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위한 단 하나의 희생을 향해 있는가를 드러내셨을 것입니다.

의심할 것 없이, 예수님은 아마도 시편 16편을 펼치셨을 것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자의 혼을 지옥에 버려 두지 않으며, 그가 씌음을 보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은 아마도 예수님은 시편 22편으로 바로 옮겨 가셨을 것인데, 거기에서 다윗은 십자가형에서처럼 메시아가 물같이 쏟아지고, 그의 모든 뼈가 어그러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분은 아마도 사악한 자들이 그분의 손과 발을 찌르고 그분의 옷을 놓고 제비를 뽑을 것이라는 대언을 강조하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사야서 50장인데, 거기에서 그 대언자는 메시아가 때리는 자들에게 그분의 등을 내어 주고 털을 뽑는 자들에게 그분의 뺨을 내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도 같은 책 52장으로 향했을 것인데, 이는 그분의 얼굴이 너무 상해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확실히 이사야서 53장으로 옮겨 갔을 것인데, 거기에서 그 대언자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거절당하는 메시아, 즉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아마도 예수님은 이들에게 대언자 다니엘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을 것인데, 그는 메시아가 오실 바로 그 때, 즉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후 483년이 되는 때를 예언했습니다. 또한 그분은 어떻게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그분의 왕국을 즉시 받지 못하시느지를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스가랴서로 끝을 맺으면서 아마도 예수님은 어떻게 메시아가 온 30에 팔리게 되며, 그 돈이 나중에 성전에 던져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데 사용되는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로부터 대언자들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되짚어 가시면서 그분 자신에 관한 모든 성경 기록을 설명하셨는데,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관한 기록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기록들도 설명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별써 엠마오라니? 이런,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났군!” 예수님은 마치 더 멀리 가실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 아닙니다. 날이 점점 저물어 가고 있고, 여행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우리와 함께 머무르지 그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께 남아 있기를 강권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분은 빵을 나누셨고, 갑자기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자마자, 그분은 다시 불붙은 마음과 사도들에게 전할 놀라운 소식을 그들에게 남겨 두고 사라지셨습니다. 당신은 엠마오로 가는 것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적게 걸린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은 그 열정의 불꽃을 다시 불붙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꺼져 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문제, 즉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그 불꽃이 꺼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왜 글로바 북음서는 없을까요?**

오, 글로바가 그 날 들었던 것을 기록해 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글로바 북음서를 우리가 성경의 일부로 가지고 있다면 좋을 텐데.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성경 기록들에 대한 그분의 강해를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내놓을 텐데!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것이 기록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탐구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마도 그분은 단순하게 그것을 은쟁반에 담아 우리에게 넘겨 주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에는 우리는 이미 너무 게으릅니다! 아마도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조금 수고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혹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분은 당신이 낙담하고 열정의 불꽃이 꺼져 갈 때, 그 길을 따라 당신과 함께 걷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그분은 단순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위해 그분이 행하셨던 것을 당신을 위해 행하기를 원하실 것이며, 이는 단지 개인적으로 그 모든 성경 기록들을 당신에게 열어 보여 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장 위대한 경험들 중에 몇 가지는 주님이 내게 오셔서 성경 기록들을 펼쳐 보여 주시는 순간들입니다. 갑자기 나는 그것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나는 새로운 통찰력과 이해를 얻습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전율이 느껴지는 일입니다!

확실히, 그 두 제자들처럼 나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나는 어떤 특별한 관계나 구체적인 사건에 소망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처럼 보일 때 나는 흥분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해 낼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이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나는 신음하며 말합니다. “아이구 저런,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그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 열정의 불꽃은 흔들리다 꺼지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완전히 낙심합니다. 내가 나의 삶과 환경에 대해 나 자신을 무감각하게 하면서 냉랭함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엄습합니다. 나는 삶이 나에게 호된 일격을 가했다고 느낍니다. 나는 소망을 가졌지만, 그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그 불꽃은 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와 동일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분의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그 자리로 데리고 갔습니까? 그

들은 모든 성경 기록들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진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니다. 만일 그들이 그 진리 전체를 알았다면, 그들은 그토록 낙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이야기의 절반만을 가지고 서둘러 판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데려 가시는 그 최종적인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절반만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꽃을 꺼뜨리고 완전히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해 보려고 애쓰는 것은 아무 소망도 의미도 없습니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야기의 절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성경 기록을 펼쳐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 이야기 전체를 보게 해 주셨고, 그 이야기 전체를 보면서 불꽃은 다시 점화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다시 한 번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주심으로써 그들의 소망에 다시 불을 붙이셨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 낙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소망을 잃었고, 열정의 불꽃은 꺼져 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은 지금 힘없이 타고 있지만, 네가 처음 나

에게 왔을 때를 기억하니? 너는 한 시간 전에 예배당에 와서 맨 앞줄에 앉아 있곤 했지. 그렇게 해도 너는 만족할 수 없었다. 오, 네 안에서 타오르던 그 불꽃은 정말이지 강렬했어!”

그러나 어쨌든, 아마도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실망과 불행한 경험을 맛보거나 다른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불꽃은 가물거리다가 꺼져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무감각해지고 냉담합니다. 그 열정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주님은 그 불을 다시 불태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거룩한 영이 타다 남은 것들에 입김을 불어 넣어 그 불꽃을 다시 불붙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성경 기록들을 당신과 함께 훑어 보면서 그분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열정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 도전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단 둘이 있도록 도전합니다. 앉아서 그것을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 곁에 오셔서 당신에게 성경을 펼쳐 보여 주시는지를 알아 보십시오. 그분이 성경 기록들을 설명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그토록 낙심하게 했던 그 일들에 대해 당신에게 깨달음을 주시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소망을 잃은 모든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특히 힘없이 불타거나 꺼져 버렸을지도 모르는 당신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불꽃을 다시 불붙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미래의 소망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왕국에 있는 그 집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과 충만함이 있습니다.

한편, 이 땅에서의 순례의 길을 걸어 가면서 당신은 낙심의 순간들을 예상해야만 하는데, 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길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원을 넘지 않은 이쪽 편에서, 당신은 항상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용기를 얻고, 그분이 당신을 도우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분의 복된 왕국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을 당신 자신에게 상기시켜야만 합니다.

### 되찾으십시오

첫사랑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의 감흥을 경험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온 몸으로 느끼는 그 열렬하고 불붙는 듯한 감정을 우리는 모두 맛보았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그것을 그리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그것을 되찾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가능한데, 왜냐하면 당신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당신이 처음 그것을 발견했을 때만큼이나 강렬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의 사랑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다면, 변한 것은 바로 당신과 나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소원해짐에 대해 회개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다시 한 번 그분께로 우리를 이끄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불붙게 하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반응하며, 결코 이전과는 다르게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 변화된 마음

갈보리 채플이 처음에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할 때, 때때로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나의 생애 가운데 한 번도 큰 규모의 회중을 목회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여기에서 큰 교회의 목사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멈추어 설 때마다, 나는 정말로 내적으로 동요하곤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나는 걱정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무엇에 빠지게 하신 것일까?’

단순히 그 도전에 대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주님, 무얼 하고 계십니까? 만일 이런 일이 일어

나면 어떻게 하지요?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종종 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교회이냐?”

“음, 그것은 당신의 교회입니다” 라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왜 걱정하느냐?”

“모르겠습니다” 라고 나는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문제를 그분께 넘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주님, 그것은 당신의 교회이고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다루어 주십시오.”

나는 내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살아 남을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일 내가 우리에게 닥친 그 모든 문제들과 도전들의 무게를 짊어지려고 했었다면, 그것이 나를 녹초로 만들어 버렸을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바꾸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그분의 교회라는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만일 재난이 닥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보게, 그것은 그분의 교회야.”

만일 우리가 파산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그분의 것이야.”

만일 우리가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또한 그분의 문제야.”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 중에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고, 초조해 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면서 그 여행에 동승하며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것은 당신의 교회입니다.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십시오.”

당신은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 보여 주어야만 하는 최선의 방법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압니까? 우리가 걱정하기를 거절하고 대신에 우리의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참된 사랑을 입증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서 변화의 역사를 행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변화된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 기도의 역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의 전체적인 태도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관심사들을 그분께 가져 가는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혼에는 확신을, 우리의 영에는 새로운 결의를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종종 우리가 직면한 상황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 즉 하늘의 관점을 얻게 됩니다.

갈보리 채플의 초창기에 나는 종종 내가 혼자라고 상상했습니다. 나는 나 혼자서 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때로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지만,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왕좌에 앉아 계신다는 새로운 확신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믿음은 한층 고무되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돌보실 것임을 내가 다시 한 번 깨달았을 때 나의 확신은 되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종류의 변화되는 경험을 기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곤란한 입장에 처한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의 헌신과 확신은 우리의 것과 마찬가지로 종종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와 구세주에 대한 그의 사랑을 다시 얻었을까요? 매우 자주, 그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서 시편 13편을 시작했습니다.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잊으려 하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1절). 그는 여러 절들에서 이와 같이 계속하지만, 그 후 그의 기도는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끝부분에서 그는 처음 탄원을 시작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음정으로 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긍휼을 신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관대히 대하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위해 노래하리로다” (5-6절).

만일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변화된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 변화의 핵심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야만 하는 주요한 도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 기도를 통해 일어난 저 위대한 변화들을 보십시오!

### 하나님의 명령들: 쉽다 혹은 어렵다?

성경은 우리 마음의 변화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잘 협력하는가를 판단할 쉬운 시험 하나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은 퀴즈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5:3).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한다고 말하는 것과 그 명령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이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당신의 동료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당신이 참을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

고 지금 그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라고 당신은 묻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다루어야만 할 때, “난 그를 사랑할 거야”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나도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나 자신을 설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는 몇 가지 좋은 점들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해 그런 식으로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나는 알아. 그는 목소리도 크고 성미도 급하고, 어리석은 말들을 하지만, 정말이지 그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는 그다지 불쾌한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에게 관대할 수 있어.” 그것은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말하곤 했던 것과 같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만큼만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나 그 때 이 사람이 파티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가 큰 소리로 떠들면서 품위 없게 행동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말하면서 들어올 때, 나는 ‘오, 당신은 그냥 집에 머물러 있지 그러셨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좋은 의도들은 창 밖으로 나가 버리고 맙니다. 나의 마음을 사랑하는 상태로 유지하려는 나의 모든 노력은 아주 작게 일어나는 연기 속으로 사라집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들과는 단순히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당신과 너무 많이 닮았을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내가 범한 것과 동일한 죄들을 범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그 죄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내가 범할 때는 그것들이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다른 누군가가 그것들을 범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추하고 끔찍하게 보입니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을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의 특별한 역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흥분시켜서 아가페 사랑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랑의 존재가 바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본래는 내가 참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의 태도를 바꾸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을 압니다. 여러 차례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을 사랑할 것을 당신이 나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서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당신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를 위한 당신의 사랑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당신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그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주십시오.”

어쨌든 그분은 진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솔직해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로 하나님을 속하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모든 사람을 위해 나에게 주신 이 위대한 사랑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강렬하게 그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의 사랑의 강도를 높여 주십시오.” 이런 가짜가 있다! 당신이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으면, 그분은 당신을 위해 어떤 것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정직하고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나는 그의 외모나 그에 관한 다른 어떤 것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일 나로부터 그에게로 흘러 가는 어떤 사랑이 있게 된다면, 당신이 그것을 공급해 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당신이 그것을 행하시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제발 나의 마음 안에서 일하십시오. 나의 미움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당신이 정직할 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일하시고 그 문제를 다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을 속하려고 하는 한, 당신은 잘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진실을 아시며, 그분은 그것이 안으로부터 밖으로의 변화의 역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 외적인 것 대 내적인 것

십계명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유익을 즐기기 위한 하나님의 조건들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실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은 이 새 언약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서 31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러니 그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히브리서 8:8-10).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안으로부터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기본적인 차이는, 옛 언약이 외적인 규칙들에 복종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의지하는 반면, 새 언약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그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누가복음 22:19,20).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변화된 삶을 가능케 하는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안으로부터 밖으로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썼던 이유입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나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골로새서 3:9,10).

그리고 그것은 그가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썼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니라(빌립보서 2:12,13).

예수님의 시대 이후로, 하나님은 안에서부터 일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십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열망하도록 하기 위해, 그분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새로운 뜻을 당신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꺼이 행하기를 원하는 일들을 하도록 당신을 안에서부터 변화시키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편 37편을 읽고, 잘못된 이유들로 힘을 얻습니다.

그들은 4절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네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네게 주시리라”를 읽고, 다음과 같이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와! 내가 행해야 하는 모든 것은 주를 기뻐하는 것이고, 그러면 새 벤츠를 가질 수 있구나! 나도 발보아(Balboa) 섬에 있는 해변가 집에 살 수 있구나! 오 나의 주님, 정말이지 나는 당신을 기뻐합니다!’

아니오, 아닙니다, 그것이 말하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을 기뻐한다면, 그분은 당신의 마음에 그분의 소원들을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당신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도록 그분의 법을 당신의 마음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시편 기자를 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시편 40:8).

하나님이 안으로부터 당신을 변화시키실 때,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도록 당신의 마음에 그분의 소원들을 집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당신이 더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갈망이 되고, 당신의 소원이 되고, 당신의 사랑이 됩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에 그분의 소원들을 두시고, 그것들을 행하도록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 죄 안에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믿음으로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실 때,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시며 거기에서부터 당신을 변화시키시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옛 것들은 떨어져나가기 시작하고, 당신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 당신은 때때로 진흙탕에 다시 빠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뒹굴며 누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당신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당신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당신을 바른 길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분은 주님과 의 올바른 관계로 당신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안에서부터 일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타락한 육신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당신이 외적으로 열심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 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24절)이라고 기록합니다. 당신도 그것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변화는 당신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처음 언약은 실패했는데, 이는 죄 있는 인간이 그 계약에서 그들이 맡은 일을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언약은 다음과 같이 행하실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 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24,25절).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당신 안에서부터 일하시며, 당신으로 하여금 최고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 이의 제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기로 주저하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기준들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는 싶지만, 술 마시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혹은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는 싶지만, 나는 내가 만나는 여자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고는 싶지만, 나는 음란물을 볼 때 느끼는 흥분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포기할 수 없다고 느끼는 모든 종류의 일들을 열거합니다.

변함없이, 이것들은 그들의 넋을 빼앗고, 그들을 인질로 붙잡아 둡니다. 그들은 정말로 순결하고 더 나은 삶을 간절히 바랄지도 모르며, 심지어 이 일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 자신을 자유롭게 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갈망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약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 옛 일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새 언약에 들어갈 때, 이 옛 일들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처럼, 그것은 어둠을 몰아 내는 것과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어두운 방에 들어갈 때, 당신은 방망이를 가지고 그것을 몰아내기를 바라면서 어둠을 향해 휘두릅니까? 물론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전등 스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 칩니다. 불빛이 들어오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어둠을 쫓아 버립니다. 방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 당신은 더 큰 능력의 쫓아 내는 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당신의 마음속에 켜질 때, 어둠은 물러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빛과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밝게 비추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자동적으로 어둠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아집니다. 주님이 그 오래되고 부패한 것들을 그와 같이 부요한 복과 온전한 경험으로 바꾸어 놓으시므로, 당신은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당신이 얻게 되는 더 큰 사랑, 더 큰 기쁨, 더 큰 흥분은 한때 당신을 흥분시켰던 불경건한 일들을 훨씬 능가합니다. 당신이 가지는 하나님과의 이 새로운 관계의 아름다움에 당신은 마음을 빼앗기고 전율을 느낍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의 음악이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삶은 옛 것보다 훨씬 더 좋으며, 당신은 곧 죄의 일들에 대한 욕망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기 위해 안에서부터 일하십니다.



## 사랑, 그리고 섬김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예수님이 부여하시는 그 중요성을 당신은 실감합니까? 그분은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행함만을 받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의무감이나 책임감에서 행한 일들에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에 대한 당신의 섬김이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흘러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랑의 흘러 넘침과 그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의 표현이어야만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 불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 나는 오늘 어느 어느 형제를 방문해야 하는데”라고 푸념합니다. 믿는 자가 사랑의 충만함보다는 오히려 푸념하는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슬픈 일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반드시 짊어지야만 하는 무거운 짐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마태복음 11:30)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짊어지려고 하는 짐이 너무 무거워 그것이 당신을 무겁게 내리누른다는 것을 발견하면, 당신은 그 짐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분으로부터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자신에게 부과한 것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내려 놓도록 당신이 허용한 것으로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짐을 나에게 내려 놓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망치고는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좀 처리

하세요, 척. 그것은 당신의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고 그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짐을 나에게 내려 놓지 마십시오” 라고 나는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베드로전서 5:7)고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스스로 판 구멍으로부터 그를 끌어올리는 일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몹시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의무감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당신의 사역들이 판단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받으실 단 한 가지 사역은 바로 사랑의 동기로 행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고린도 후서 5:14)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이 그런 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섬김을 희생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특권으로, 기쁨으로, 복으로 여깁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대단한 즐거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간절히 바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점점 자라는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갈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과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갈망하는 교제를 당신의 행위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분으로 인해 바쁘게 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앉아서 쉬면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에 옵니다.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노예의 표시입니다.

고대에, 주인의 소유로 남기를 원했던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분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분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노예를 문기둥으로 데려가 그의 켓불을 송곳으로 뚫습니다. 그 후로 내내, 그 노예는 그 주인의 소유로 남게 됩니다.

“나는 나의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내가 그분을 섬기기 원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값진 섬김의 유일한 참된 동기입니다. 그분을 위해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당신은 이 동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받아들이시는 유일한 동기입니다.

## 기쁨의 마음

수백 년 전에 아빌라(Avila)의 테레사(Teresa)라는 한 성인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곤 했습니다. “오, 주님, 어리석은 헌신과 심술궂은 표정을 짓는 성인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나는 까다로운 얼굴을 한 그리스도인이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증인들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교회 역사의 한 비극적인 시기 동안에, 믿는 자들은 웃는 것이 사람을 의심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웃는 것은 명백한 죄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우울해야 하며 결코 쾌활한 영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믿는 자들은 착색된 유리와 같은 목소리를 연습했고, 손을 포개며 목을 굽히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형제여,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더 엄숙하게 보일수록 더 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

님의 일들에 관한 어떤 기쁨도, 어떤 웃음도, 어떤 흥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울한 표정을 깊은 영성의 표시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서투른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다 기뻐하며”라고 성경은 대조하며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인해 항상 기뻐 외치게 하소서. 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도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시편 5:11).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쾌한 기쁨 가운데 하나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로마서 14:17).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즐기십시오! 심지어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한 증거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다음과 같은 옛 노래를 상기해 보십시오. “주 예수 사랑, 기쁨, 소망 내 마음 속에.” 우리는 그것에 한 소절을 덧붙이곤 했습니다.

“불신자들 조롱하는 내 마음 속에.” 그러한 기쁨은 정말로 어떤 사람들을 성가시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당신에게 꼭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여,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에 대해 들었소. 참으로 유감입니다.” 만일 당신이 “아시겠지만,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분이 그것을 이런 식으로 혹은 또 다른 식으로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라고 반응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이마를 찌푸리며 당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당신이 빈털터리라는 것을 모르시오? 이 모든 고지서들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서도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당신이 행복해 할 때, 당신은 믿지 않는 자들을 조롱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증거입니다.

### 감옥에서 노래부르기

어느날 바울과 그의 사역 동지, 실라는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준 것 때문에 지저분한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지역 행정관들은 그들을 때리고 지하 감옥에 가두어 차꼬에 채워 두라고 명령했는데, 그곳은 쥐들과 질병과 온갖 종류의 오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말라붙은 피를 닦아 주지 않았으며, 그것은 살갗이 벗겨진 등 위에 두껍게 엉겨 붙었습니다. 사실, 아무도 그들을 돕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 비참한 조건 속에 그들을 버려 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낯선 땅에서 풀려날 소망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오래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등은 맞아서 여전히 육신육신 아팠으며, 사태는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당신이 티화나(Tijuana: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 주의 한 도시)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당신을 보석으로 꺼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상

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며, 당신이 멕시코로 선교 여행을 갔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들은 왜 당신이 돌아오지 않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당신은 당연히 불안해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비참한 곳에 내가 얼마나 오래 있게 될 것인가?’ 그리고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주님, 정말 우리를 멕시코로 부르셨나요? 당신이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다고 생각한 것이 실수였나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서 풀려 나게 될 것인가? 주님, 당신은 언제 우리를 이 혼란으로부터 끌어 내 주실 것입니까?’ 만일 당신이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한 자신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바울과 실라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차꼬대에 앉아서, 두 사람은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그들의 소리를 들었고, 당신은 바울과 실라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했던 영성한 소견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강한 지진이 그 감옥의 기초를 우르르 소리나게 했을 때, 그곳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작은 방의 문들이 활짝 열렸고, 간수들은 깨어났습니다. 죄수들이 모두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불가피한 심한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간수는 자결하려고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네 몸을 해하지 말라!”고 바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어둠 속에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처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당신의 발이 차꼬에 채워져 있지만, 당신의 영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육체적인 비참함 때문에 당신 자신에게 미안해 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신은 주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된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당신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과 당신의 근심과 걱정이 달아나고 있는 것을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이윽고 당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분은 실패하시지 않을 것임을 아는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의 위대함과 그분의 사랑의 광대함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당신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남동생은 어릴 때 심한 천식을 앓았습니다. 그가 그것으로 고통받을 때마다, 나의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와 그를 침대에서 들어올려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방에는 사용할 때마다 빼걱거리는 아주 오래된 흔들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의자에 그를 내려 놓고 흔들으며, 나는 침대에 누워서 그가 씨근거리며 숨쉬기 위해 애쓰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또한 어머니가 이렇게 노래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네,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네. 하늘과 땅은 지나가도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네” (*Jesus Never Fails*, words and music by Arthur A. Luther). 그 노래는 그녀의 찬미가가 되었습니다.

나의 세 형제들과 내가 자라면서 우리는 종종 어머니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고 이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네,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네. 하늘과 땅은 지나가도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네.” 그것은 그녀의 삶의 주제가 되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묘비에 이 노랫말을 새겨 넣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페어헤이븐(Fairhaven) 묘지 공원에 있는 나의 어머니 무덤을 방문한다면, 당신은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네”라는 노랫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실패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흥미로운 것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리 오래 전 일은 아닙니다. 나는 산타 바바라(Santa Barbara)에 있으면서 친척의 장례식 사회를 보았습니다. 나의 외할머니도 그 묘지 공원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실에 외할머니의 묘지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그들은 지도상으로 그 위치를 우



리에게 보여 주었고,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는 외할머니의 무덤을 찾아 나섰습니다. 나는 전에 그곳을 가 본 적이 없었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묘비에서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네”라는 노랫말을 읽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를 당신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진 이 놀라운 간증을 보십시오! 내가 가면, 나의 묘비에도 이 노랫말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네”를 집어 넣을 수 있겠지요.

당신은 지금 어떤 역경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으며, “어째서”라는 질문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아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한 그분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확신은, 어떤 것보다 더 전적으로 그분을 위해 뛰는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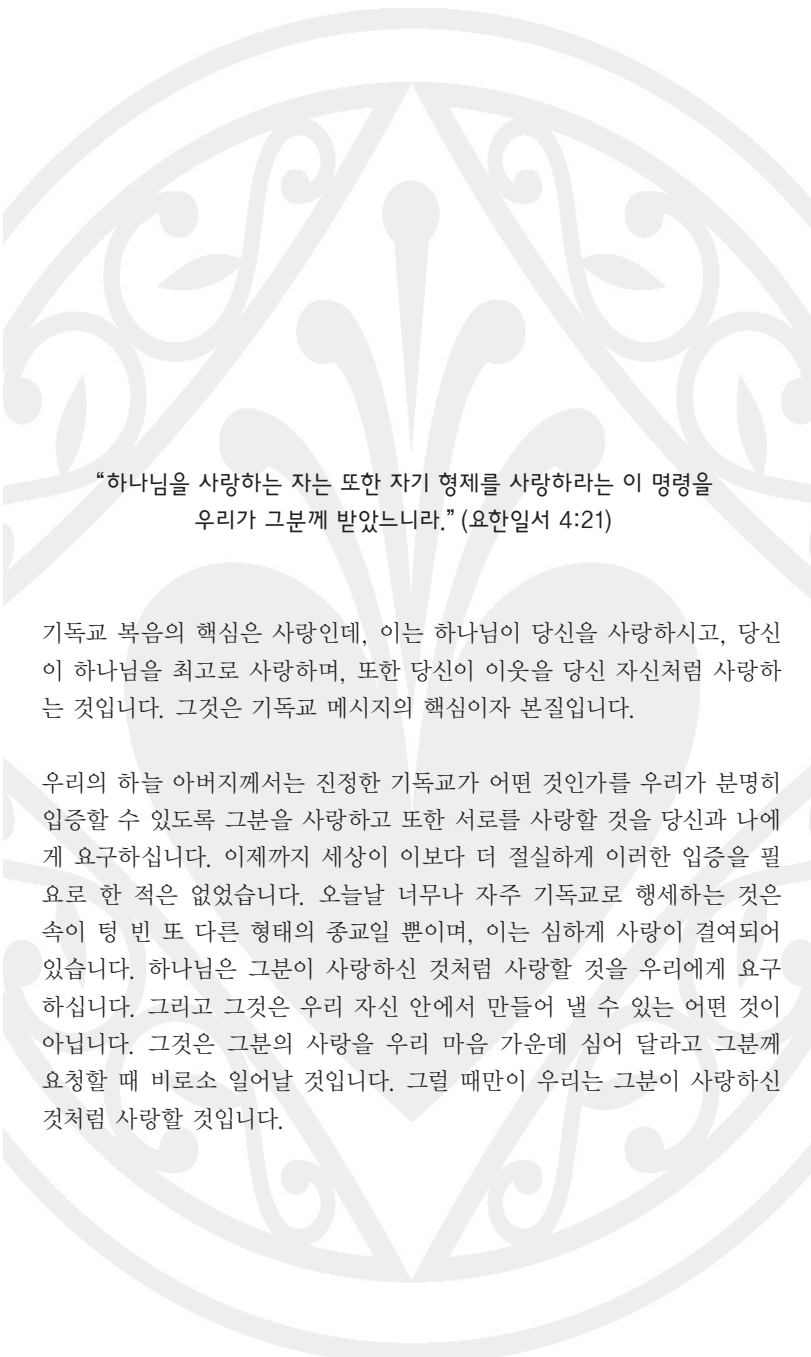






제3부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로 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4:21)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사랑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또한 당신이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진정한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입증할 수 있도록 그분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를 사랑할 것을 당신과 나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까지 세상이 이보다 더 절실하게 이러한 입증을 필요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자주 기독교로 행세하는 것은 속이 텅 빈 또 다른 형태의 종교일 뿐이며, 이는 심하게 사랑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 안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달라고 그분께 요청할 때 비로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것입니다.



##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

예수님께 질문을, 특히 함축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생각도 해 보지 않은 많은 답변을 얻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아주 많이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로마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을 곤경에 처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를 그분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그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 때, 무리 가운데 있던 다른 반대자들이 훨씬 더 거칠다고 여겨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탁월한 답변에 그들이 할 말을 잃었을 때, 여전히 조심성 있는 다른 관찰자들이 “선생님이여, 잘 말씀하셨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누가는 “그 뒤로는 그들이 감히 그분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더라”(누가복음 20:39,40)고 덧붙입니다.

내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는 깜짝 놀랄 만한 답변을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 날 한 율법사가 그분께 “첫째 명령”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예상했던 답변을 하셨습니다.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마가복음 12:29,30).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청중 가운데 많은 수의 머리가 이것에 찬성하며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당신이 생각도 해 보지 않은” 부분이 등장했습니다.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하시매(마가복음 12:31).

첫째 명령과 같은 둘째 명령?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쨌든 그들에게 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그분은 이 두 명령이 정말로 동일한 한 가지 명령의 서로 다른 면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켰습니다. 이 두 행위는 나누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 와야 하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

니다. 당신은 연이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 부자 청년 치리자

우리가 보통 “부자 청년 치리자”로 기억하는 한 부자 청년이 한번은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선한 선생님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선생님이며,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마가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길로 가서 네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마가 복음 10:17-21).

그리고 다시 한 번, 한 청년이 기대하지 않았던 답변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 그는 고개를 숙

이고 돌아서서 슬퍼하며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많은 소유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가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어릴 때부터 이 모든 명령들을 다 지켰습니다. 아시겠지만, 나는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웃에 관해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참 대단하구나! 예수님은 그 주장 가운데 어느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가 하나님의 법의 참된 핵심에 이르기를 원하셨으며, 이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부자가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했다면, 그가 그보다는 덜 복받은 몇몇 이웃을 돕느라고 분주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나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명령들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견해와는 상당히 다른 우리 자신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흠이나 결점들을 눈감아 주기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행한 것처럼 반응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눈에 유효할까요?

예수님이 그분의 답변에서 첫 번째 율법 서판에 있는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그 청년과 하나님의 관계를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처음 네 개의 명령은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너는 주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출애굽기 20:3-8). 그분은 그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다루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도덕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부자 청년 치리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몇 가지 선한 일을 하는 전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선한 일들을 행하며 그의 삶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동료들과의 관계에 주의를 집중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지를 깨달았을 때, 그 청년은 상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부자 청년 치리자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매우 확신하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데 헌신하기보다는 자신의 재물에 더 집착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 당신은 이미 자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주장하는 것처럼, “당신은 자

신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미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단순히 인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을 개발하는 것이 오늘날 인류의 가장 큰 필요도 아니며, 자존감의 부족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며, 이 세상의 가장 큰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예외 없이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에베소서 5:29)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척.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합니다! 나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가 너무 못 생겨서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합니다.”

잠깐만! 당신이 미워한다고 말한 거울 속의 이 사람이 못 생겼기 때문에 당신은 화가 납니까? 혹은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에서 그런 추함을 보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만일 당신이 정말로 당신 자신을 미워한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봐, 저 사람 정말 못 생겼군, 난 그게 좋아! 하, 하, 하, 나는 너무 못 생겼어.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왜냐하면 나는 나를 미워하거든.”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자신을 위해 최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이는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원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Blaise Pascal)은 목을 매 자살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자기 사랑을 입증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취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번 주에 예배당에서 나오는 회중을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하고, 나중에 그것을 보여 주기 위해 대형 스크린을 설치한다면, 당신은 스크린에서 누구를 찾아볼 것 같습니까?

“쉬! 조용히! 그 다음 나아.”

아마도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다르겠지만, 단체 사진을 볼 때 나는 항상 나를 먼저 찾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 내가 눈을 감았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랬다면, 그것은 끔찍한 사진이 됩니다. 그것은 못 나온 사진입니다. 찢어 버리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멋지게 보일지라도 내가 잘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끔찍한 사진이고 찢어 버려야만 합니다.

당신은 하루에 세 끼의 실속 있는 식사를 하도록 자신에게 배려할 정도로 당신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따금씩 약간은 호사스러운 것을 누릴 기회를 갖도록 배려할 정도로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거처할 집을 소유하도록 배려할 정도로 당신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자신이 편안하도록 배려할 정도로 당신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사랑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내가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일단의 허튼 수작일 뿐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기를 배워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어리석음은 성경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미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그 사랑도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 타락과 더불어 뒤틀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마치 네가 자연스럽게 너 자신을 위해 최선을 원하는 것처럼, 너는 반드시 이웃을 위해 최선을 원해야만 한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쉬운 것처럼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위해 최고를 원하는 한편,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것인지를 입증하기 위해 당신 자신에게 한 가지 단순한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내가 나 자신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나는 내 이웃의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만일 당신이 “예!”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이런 종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의 마음에 그것을 넣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자연적으로 이런 종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수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가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중심으로 옮겨 가시는 순간, 당신이 주님께 절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맡기자마자, 당신은 그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수로가 됩니다. 그분을 통해 당신은 당신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이웃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게서 어떤 것도 훔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식으로든 그를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를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급소를 공격합니다. 만일 당신이 먼저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분의 명령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당신은 큰 계명의 두 번째 부분, 즉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당신이 당신의 동료와 의미 있고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당신과 나는 수평면 위에 있는 우리의 관계의 균형을 잡기 위해 우리의 삶의 수직적 축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수평면 위에 있는 우리의 관계의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위선에 불과

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 수평면 위에서 엉망이 되다

사람들이 수평면 위에서 모두 엉망이 되었다고 굳이 내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들과 기술들을 거의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정신과 의사를 만날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반응할까요? 왜 내가 저렇게 반응할까요? 왜 내가 소리를 지를까요? 왜 내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를까요? 왜 내가 사람들을 쫓아 버릴까요? 왜 내가 이런 반사회적인 태도로 행동할까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 위해 우리의 정신 세계를 탐구하려고 합니다. “자, 만일 당신이 이런 저런 행동을 한다면, 내가 처방해 주는 이 작은 알약을 복용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는 수평면 위에서 너무 심하게 엉클어진 우리의 인간 상호간의 관계들의 균형을 잡는 것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관계에 집중해서 그것의 균형을 조금 잡자마자, 다섯 개의 다른 관계들이 그 배의 반대편으로 미끄러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한 쪽이 가라앉는 동안, 다른 쪽은 훨씬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

서 우리는 그 일의 균형을 잡으려고 높은 쪽으로 재빠르게 달려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의 균형을 잡느라고 우리의 모든 삶을 소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어느 정도는 뒤죽박죽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유일하게 영구적인 해결책은 중심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인간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트랙을 벗어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일 축이 기울었다면, 그 축을 돌고 있는 수평면은 계속해서 미친듯이 선회하며 날아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 하나님, 이것을 멈추어 주세요! 이제 그만 하고 싶어요!”라고 말할 때까지, 그것은 계속해서 위 아래로 움직이며 돌고 돌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출 때, 그 다음 두 번째 것이 주문에 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능력을 발견할 것입니다.

###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잠시 십계명으로 돌아가 봅시다. 처음 네 개의 명령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주로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너는 하지 말라, 너는 하지 말라, 너는 하지 말라.”



예수님은 동일한 이 명령들을 취하셔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완전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사랑할지니라.” 그것은 부정적인 것들을 해결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 그리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머지 여섯 개의 명령들은 당신과 당신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출애굽기 20:12-17). 다시 한 번, 대부분의 명령들이 부정적으로 시작됩니다. “너는 하지 말라.”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그것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요약하십니다.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긍정적인 명령 하나가 다시 한 번 그 모든 부정적인 명령들을 처리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 당신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것을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죄와 이기심에 대한 가드레일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맨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과 당신의 관계를 다루는 모든 법을 성취하는 한편, 당신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이웃에 대한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연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이런 소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

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명령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진가를 인정하지 않았던 율법사의 후임자로 들어 앉습니다. 그를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도 해 보지 못한 것을 조금 더 우리에게 주십니다.

###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분이 종종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보다 이야기들의 강조점을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수님은 몇몇 친숙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이야기 하나를 제공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어느 유대인 장사꾼과 한 쌍의 종교적인 전문가들, 그리고 어느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데, 당시 사마리아인은 혐오의 대상인 혼혈아로서 대부분의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니다.

그 이야기의 진가를 제대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간의 역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있기 수백년 전에 아시리아가 그것의 수도 이름을 따서 종종 사마리아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의 북왕국을 침입하여 파괴했을 때, 정복자들은 대부분의 히브리 사람들을 강제로 이송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외국인들로 대체시켰으며, 그 외국인들이 남아 있던 소수의 히브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곧 이 혼합된 종족은 전 지역에서 행해지던

구약의 종교적인 관습을 타락시켰습니다. 이 백 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에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 갔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 사마리아인들은 북쪽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으며, 그 후 그 땅에 정착한 두 집단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하던 유대인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 길을 따라 가는데, 한 도적의 무리가 그를 놀라게 하고 때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취하고는, 그를 죽도록 버려 두고 갔습니다. 그가 길가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을 때, 어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곤경에 처해 있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겂옷을 단단히 움켜 쥐고는, 신음하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그 후 곧 또 다른 종교적인 전문가인 어느 레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도 때를 맞아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서둘러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때 한 사마리아인이 말을 타고 같은 지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는 곧바로 그가 유대인임을 알아챘고 나귀에서 내려 그 사람의 상처난 부위들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자신의 동물에 태워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중간 쯤에 있는 한 여관에 머물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관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행을 계속해야 하니,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내가 돌아와서 갚아 주겠소. 그것을 나에게 청구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분의 이야기를 다 마치셨을 때, 그분은 바로 그 질문을 했던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곧

경에 처한 그 사람에게 이웃으로서 행하였느냐?” 그 율법사는 즉각적으로 그분의 요지를 알아차렸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어려움에 처한 자는 누구든지 다 나의 이웃입니다.

예수님이 종종 그렇게 하신 것처럼, 문외한을 그분의 이야기의 영웅으로 만드시는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의 모든 자기 의로움 가운데서 상처 입은 그들의 동포를 돕기 위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자랑했으나,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디도서 1:16)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돕기로 결심한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가 그 이야기의 영웅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 주연의 자리에까지 올려 놓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그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해 보지 않은 답변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걷고 있다면,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가갈 것입니다. 누가 당신의 “사마리아인”입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 혹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당신을 불편하게 합니까? 그의 혹은 그녀의 필요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아버지를 어떻게 묘사하셨는지 기억합니까?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질 때조차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마태복음 10:29)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그분의 사자와 대리자로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사마리아인들”의 필요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허용해야만 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며, 그분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보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의 이웃입니다.

### 요약하면

마태의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그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하신 후에 그분은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마태복음 22:40)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법 괜찮은 요약 진술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당신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 당신은 구약 성경 전체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다 배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의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율법의 모든 것과 대언자들의 모든 대언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당신이 자연적으로 당신

자신에게 보이는 것과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와 같이 산다면, 당신은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말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들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법을 당신에게 말해 주는 율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서판(처음 네 개의 명령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되고, 한편 율법의 두 번째 서판(나머지 여섯 개의 명령들)은 당신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거기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두 가지를 행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확실히 이것을 이해했으며, 또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 있느니라(로마서 13:9).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와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개의 명령 안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것을 행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모두 행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사랑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갈라디아서 5:14).

당신이 성령님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은 사랑 안에서 걷게 될 것이며, 그렇다면 당신의 생활을 규정할 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법은 방종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경건한 원칙에 따라 사는 이들은 악한 행위를 금하는 법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법들은 방종한 사람들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랑 안에서 걷는다면, 즉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최고의 사랑 가운데 걷는다면, 어떠한 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모든 법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대언자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기록한 책은 이 두 명령들에 달려 있습니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당신은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이보다 더 위대한 명령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점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절정입니다.

**잘 하십시오!**

바울이 그 큰 명령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끌어 가는 힘을 대표한다는 것을 이해한 유일한 신약 성경의 저자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싸움 붙이기를 좋아하는 사도가 한 사람 있었는데

데, 비록 그가 그것을 “큰 명령”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성경기록에 따라,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야고보서 2:8).

야고보는 그것을 “왕가의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가 조금 더 일찍이 그의 편지에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야고보서 1:22)고 썼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내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은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 우선적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 카툰 “피너츠”(Peanuts)에 나오는 루시와 같지 않습니다. 그녀는 “나는 세상을 사랑해. 내가 미워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일 뿐이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진실된 사랑의 행위로 스스로를 입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그 부자 청년 치리자가 실패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는 그가 어떻게 하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기 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매우 잘 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켜 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



가 내적으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그의 삶에서 무엇인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해 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가 이미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아들아, 이제 네가 이 왕가의 법을 지키기 위해 네 재산의 일부를 사용해야 할 시간이다. 네 자신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기는 쉽지만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당신의 이웃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가 “당신은 정말이지 대단한 사람이예요! 나는 당신의 이웃으로 사는 게 정말 좋아요!”라고 말할 때는, 당신이 당신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내가 어떻게 당신만큼 어리석고 천치 같은 썩어 빠진 이웃과 얽히게 된 걸까?”라고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매우 다른 과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에게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잘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 사랑을 묘사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인지를 묘사하는 단어 하나를 찾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 자신의 사랑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셨던 것과 동일한 헬라어 용어인 ‘아가페’(agape)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행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입증하게 하신 바로 그 사랑을 그가 매우 조심스럽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의 유명한 “사랑장”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서 흘러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종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하고도 강한 흥미를 돋우는 묘사를 위해 바울은 헬라어 용어 ‘아가페’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 주기 원하시는 아가페 사랑의 몇 가지 흥미로운 부분들을 살짝 엿보기 위해 그 놀라운 장의 마지막 열 개의 구절들을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아가페는 되풀이되는 성나게 함을 계속해서 참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의 외부 한계선으로 사용되는 어떤 수를 가지고 있는데, 종종 그 수는 3입니다. 우리는 “그래, 네가 그것을 한 게 이번이 세 번째야, 이제 됐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수를 선택했습니다. 하루는 자신이 정말로 은혜 안에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그리고 나서 그는 마음속으로 3을 두 배 하고 여분으로 하나를 더했습니다.

“일곱 번까지 하리이까?”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이 “야아, 베드로, 네가 정말로 성장했구나! 일곱 번이라고? 그것 참 대단한데”라고 말씀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분은 “일곱 번까지가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 하라”(마태복음 18:22)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틀림없이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백구십 번이라구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의미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은 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죄들을 기억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일흔 번씩 일곱 번에 도달할 때까지 “478… 479…”라고 말하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가 490에 도달할 때까지는 수를 잊어 버릴 것이고, 오래 참음이 산술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참고, 또 셈할 수 없을 정도로 참습니다. 그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 친절하며,

기나긴 오래 참음의 기간 끝에서도 아가페 사랑은 여전히 친절합니다. 그것은 보복과 복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저 귀찮은 행동을 충분히 오랫동안 참았어. 이제 그가 나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하게 될 거야!” 그것은 결코 친절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가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 주기를 원

하시는 그런 종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나는 저 불쌍한 영혼을 참고, 또 참고, 조금 더 참았습니다. 하나님 그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은 후에도 친절합니다.

… 시기하지 아니하며,

아가페 사랑은 너무 대단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받은 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얻은 것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을 기뻐합니다. 내 것 대신에 당신의 번호가 뿜혀서 나는 기쁩니다. 나는 당신이 승진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끊임없는 과대 광고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것이 이것을 위한 마케팅 과대 광고이거나 저것을 위한 거대한 상품 보증 선전인 것처럼 보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종류의 과대 광고가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는 교회가 그들의 프로그램을 판촉하려고 애쓰거나, 더 심하게는 목사들이 그들 자신을 판촉하려고 애쓰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스스로를 판촉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얼마나 애정 깊은지를 자랑하며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셰익스피어(Shakespeare)가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당신은 너무 맹

세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나에게 반복해서 말할 때, 나는 항상 조금 염려합니다. 때때로 나는 세익스피어처럼 느낍니다. “형제여, 당신은 조금 지나치게 칭찬하고 있군요.” 나는 이 끊임없는 확신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나는 화려하고 과도하게 아첨하는 말씨를 사용하며 나에게 엄청난 사랑과 헌신을 고백했던 이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강함이나 열정에 대해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우쭐대지 아니하며,

아가페 사랑은 거만한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급을 구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이 축적될 때, 그것은 우쭐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이나 개정 개역성경은 이 구절을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수년 전 학창시절, 우리 반에는 오페라를 배우는 정신이 이상해진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계발했고, 그것을 강조하여 관중에게 호소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섯 블록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

을 은혜롭게 표현하려고 하다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옷을 이상하게 입고는 그것이 경건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머리를 뺑 모양으로 뒤에서 묶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경건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전혀 화장을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불경건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경건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온갖 사소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로스앤젤레스의 도심에서 일했기 때문에 일터에서 기숙사로 돌아올 때 전차를 타곤 했습니다. 분명히 그녀도 도심에서 일을 했습니다. 가끔 그녀는 내가 탄 전차에 탔습니다. 어느날 그녀가 나를 발견하자마자, 그녀는 크고도 과장된 목소리로 “형제여,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차 전체에 울려 퍼졌고, 이 이상하게 보이는 여성에게 즉각적인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그것 모두가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그와 같이 이상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원하겠습니까? 나를 포함해서, 차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인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내가 타고 있는 전차를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그녀가 차의 앞문으로 들어오기 전에 뒷문으로 급히 내달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다음 차를 타고 집으로 왔는데, 그것은 추가로 들어간 10센트의 가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례하게 혹은 부적당한 태도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 자체를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도한 주의를 끌려고 하지 않습니다.

…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아가페 사랑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릅니다. 그것은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대장으로 삼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어울리지 않을 거야.”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 성내지 아니하며,

킹 제임스 성경에는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쉽게”라는 단어는 어떤 헬라어 사본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내가 “불행하게도”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음, 나는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애써 노력한다면, 나를 화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 구절의 최초의 헬라어 본문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것이 어떤 고대의 사본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본문에는 사실상 “쉽게”가 없이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라는 단어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권

위있는 주석가인 아담 클라크(Adam Clarke, 1762-1832)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합니다. “제임스 왕의 명령에 의해 만들어지고 인쇄된 그 번역서는 ‘쉽게’라는 단어를 온당치 않게 삽입하는데, 이는 왕의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 우리의 공인된 번역본이 이 부정확한 해석이 등장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 생각이 제임스 왕으로부터 왔든지, 혹은 그의 번역자들 중 한 사람으로부터 왔든지, 누군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혀 성내지 않는다구? 그것은 너무 가혹해. 어느 때라도 성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쉽게”라는 말이 본문에 삽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단지 “성내지 않습니다.”

…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런 종류의 사랑은 교활하지 않으며 혐의가 없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동기를 찾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밀스런 의제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한때 목회자로 사역했던 교회의 어떤 여성은 종종 내가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는 순간, 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는데, 당신이 정말로 의미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안녕하시오!”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어떤 구절을 취하고는 숨은 의도를 알아 내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것으로 의미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항상 숨겨진 미묘한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미묘하게 말할 정도로 영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의미할 선택권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어느 누구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증거가 다른 것을 증명할 때까지도 최선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것은 여전히 악을 생각하기를 거절합니다.

…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당신에게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의 새 차를 망가뜨릴 때, 당신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마침내! 그에게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군. 그는 그런 일을 당할 만해. 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지.”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적이 억압당하고 전멸되거나 교살당할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 진리를 기뻐하며,

아가페 사랑은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합니다. 진리의 선언은 그 진리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게 크게 기뻐할 근거를 제공합니다.

… 모든 것을 참으며,

모욕, 곤경, 핍박, 중상, 불행, 재난. 아가페 사랑은 이러한 모든 것 아래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극복합니다.

… 모든 것을 믿으며,

아가페 사랑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산타 클로스나 이스터 바니(Easter Bunny: 부활절에 선물을 준다는 토끼)를 믿도록 당신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그러한 신화와 공상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믿습니다. 그것은 사태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관계 없이 그분의 약속들 위에서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 모든 것을 바라며,

기독교는 앞을 향한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또한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야고보서 1:17)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아가페 사랑은 억제할 수 없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집니다.

…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나 그것의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가페는 그것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즉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에 물든 지구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사랑은 승리에 따르는 어려움들을 예상합니다. 그것은 인내가 그것의 연장통 안에서 지극

히 중요하고 명예로운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일이 닥치건 간에 인내할 힘을 얻기 위해 하늘을 바라 봅니다.

…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틀림없이, 많은 좋은 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령의 은사들은 어느날 그칠 것입니다. 그것들은 지금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지금 필요로 합니다. 그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어느날 이 은사들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영원하고 지속적인 것과 비교하기 위해 덧없고 일시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하늘에서 나는 또 다른 직업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권면하고 교화하고 위로해야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주님을 찾거나 그분께 헌신할 것을 권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분과 함께 더할 나위 없이 잘 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위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시련이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언의 은사는 제한된 시간의 가치를 가집니다. 지금은 그것이 좋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언이 없어질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일단 주님이 돌아오시면, 그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 타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이것은 ‘글로솔라리아’ [*glossolalia*]라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은사를 말하는데, 이는 우리 영의 깊은 것들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을 돕도록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돕고 찬양 가운데 우리를 거들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우리는 그분의 바로 그 임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언어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타언어들의 은사도 마찬가지로 그칠 것입니다.

…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이것은 지식의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특정한 상황을 다루는 것을 도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구체적인 지식이나 통찰력을 주십니다. 이 은사는 결코 우리에게 부분적인 지식 그 이상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에 관한 총체적이고 완전한 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다루는 것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충분한 정도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이런 은사가 어떤 용도로 쓰일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때,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 그러므로 지식의 말씀이 제공하는 어떤 정보가 우리에게 부족할 수 있겠습니까?

…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대언과 타언어로 말하는 것과 지식의 말씀은 모두 어느날 무대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대언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타언어들도 그칠 것입니다.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단지 부분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합니다.

…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지난 수백 년에 걸쳐서 “완전한 것”이라는 구절에 대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20세기 이전의 모든 성경 주석가들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1906년 이후에 그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오순절 성령강림운동(Pentecostalism)이라고 불렸던 현대의 성령의 은사주의 운동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관심에 다시 불을 붙였던 때입니다.

이 운동의 가치를 깎아 내리려고 했던 어떤 근본주의 설교자들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눈을 돌려 “완전한 것”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기나긴 19세기에 걸쳐서 교회가 항상 지지했던 것처럼, 그것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계시를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일단 교회가 성경 기록의 전체 정경을 받았으면, 우리는 더 이상 대언과 타언어로 말하는 것과 지식의 말씀

과 같은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것” 즉 성경이 사도시대의 끝에 세상에 나왔을 때, 그 모든 영적인 은사들은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지 캠벨 모간(G. Campbell Morgan)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 본문은 매우 명확하게 “완전한 것”이 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본 적이 있습니까? 나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바울도 또한 그 날에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아십니까. 그러나 이 순간에 당신은 그분을 완전하게 압니까? 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기록의 이 부분이 대언이나 타언어를 말하는 것이나 지식의 말씀과 같은 은사들의 행사에 대한 반증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그것은 놀라운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것” 즉 예수님이 능력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은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명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내가 나의 주님의 임재 안에 설 때, 나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행하는 많은 일들은, 영화롭게 된 믿는 자로서 그것들을 되돌아볼 때 매우 유치한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까지 나는 완전함과 충만함 가운데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바울 시대의 기술자들은 거울 만드는 과정을 완전하게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13세기 무렵까지도 장색들은 은으로 뒤붙임이 되어 있는 유리를 사용해서 현대의 거울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시기 전에 거울은 고도로 광택을 낸 금속에 불과했는데, 이것은 사실적인 투영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제법 자주 거울에 비친 모습은 왜곡되고 아른거리고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일그러진 금속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진리를 희미하게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마침내 완전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명확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영화된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데도,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벗어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나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나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심지어 내가 곱슬거리는 까만 머리를 하고 있더라도, 당신이 나를 알아볼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같이 나도 알리라.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만큼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미리 앞서서 알아볼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경험해야 할 것

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지식을 가지게 될 것이고, 어떤 소개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소개도 없이, 당신은 모세와 엘리야와 미리암과 드보라와 다윗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당신을 알 것입니다. 정말이지 멋진 일입니다!

…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 설득력 있는 트리오에는 오래 지속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래 지속됩니다. 그것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소망은 갈망과 기대가 결합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그것이 성경적인 소망으로서의 자격을 얻도록 존재해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의 한 대언자는 우리를 “소망 중에 있는 갇힌 자들아”(스가랴서 9:12)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소망은 당신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실패할 때에도,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만듭니다. “버티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이 일하실 것을 갈망하십시오. 그것은 일어날 것입니다.” 소망은 당신을 지키고 지지해 줍니다.

… 이것들 중의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 그것들 중에 가장 큼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나머지 둘을 완전히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은 사랑 안에 포함됩니다. 게다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소망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당신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것은 이제까지 최고로 군림해 왔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입니다.

### 당신 자신을 살피십시오

사도 바울은 아가페 사랑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또한 특히 그러한 사랑을 증명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자기검증도 권장했습니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고린도전서 11:28, 31). “너희 자신을 살피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고린도후서 13:5).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사랑장”은 자기검증을 위한 엄청난 기회를 당신에게 제공합니다.

이 검사를 받기 위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아가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그 자리에 당신 자신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예를 들면, “척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척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척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등등입니다. 그 목록을 따라 내려가기를 시작할 때, 당신은 긴장하며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할지

도 모릅니다. “저런! 그것은 어울리지 않아. 적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 하되?” 계속 하십시오. 웃어도 좋습니다만, 당신 자신의 이름을 거 기에 넣으십시오!

일단 그것을 다 했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구절로 가서 죽 읽어 내려 가면서 이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십 시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예수님 은)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 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 며, (예수님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예수님 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 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그것은 어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흘러 갑니다.

이 간단한 실습은 주님이 당신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을 향해 당신 이 얼마나 멀리 그 길을 따라 왔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검사입니다. 그분은 그분이 항상 입증해 보여 주시는 바로 그 아가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서 활발하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만 일 당신이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 는 그 모든 영적인 은사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사랑은 견딤니다

수년 전 우리는 나의 아버지와 동생을 마중하기 위해 오렌지 카운티

(Orange County)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개인용 비행기를 타고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한 시간 넘게 기다렸으며, 그들이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샌디에고(San Diego)로부터 날아 오던 중이었는데, 그 때는 비바람이 극도로 심한 11월의 밤이었습니다. 그들이 캠프 펜들톤(Camp Pendleton)을 우회해서 와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어쩌면 바다에서 추락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헌팅톤 비치(Huntington Beach)에 있는 우리 마을에서 밀려드는 파도가 세계 부딪치는 것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친 바다에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며, 우리는 전화벨이 울리고 그들이 무사히 외딴 임시 활주로에 착륙했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를 소망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전화가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착륙했기 때문에 전화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어쨌든, 아마도 그들은 살아 있을 거야.’ 우리는 폭풍우 치는 길고도 거친 그 밤을 지새우며 아주 작고도 가냘픈 소망에 매달렸습니다.

아침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민 항공 순찰대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그 비행기가 발견되었다고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캠프 펜들톤에 추락했으며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나의 가냘픈 소망이 사라지자, 다시는 나의 아버지와 포옹할 수 없다는 무서운 현실이 세차게 밀려 왔습니다. 나는 다시는 동생과 함께

스키를 탈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다시는 그들과 함께 서로의 의견과 사랑과 생각을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즉시 나는 무기력함과 절망 속에서 고통을 느꼈습니다. 나는 정말 이지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은 장래에 속한 것인데, 그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나라에서 그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빼앗겼을 때, 심지어 어떤 합리적인 기초가 없는 소망일지라도 그것을 빼앗겼을 때 느끼는 고독하고 허망한 느낌을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의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비극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절망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소망들은 희미해지겠지만, 나의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나의 사랑은 여전히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은 견뎌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코 없어지지 않는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표현하기를 그분이 바라신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로 향하게 하는 가장 좋은 시간은 항상 지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활동하는 사랑

어떤 사람이 자신을 예술 비평가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는 화랑에 가서 친구들에게 자기의 모든 지식을 자랑해 보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복도를 천천히 거닐면서, 반 고흐(Van Gogh) 학파와 그들의 색상 혼합과 그 예술가가 빛을 사용했던 방법과 무수한 다른 세부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의 방대한 예술에 대한 이해를 단지 자랑해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예술가의 작품에 다가가서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혹은 “그는 분명히 여기에서 올바른 기법을 쓰지 않았어요.” 또는 “명백하게 그는 원근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그런 유형의 친구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이가 들자 그는 약간 근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들과 함께 화랑을 거닐며 대부분 기억에 의존하여 각각의 그림에 대해 거드름피우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새로운 작품 앞에 자리를 잡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느 미술가가 왜 이런 멍청하게 보이는 모델을 선택했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틀 안에서 그가 본 것을 말로 갈기갈기 찢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그의 아내가 그에게 가만히 다가서더니, “여보, 당신은 지금 거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야고보서 1:22-24).

당신이 거울 앞을 떠날 때, 이내 당신은 자신이 잘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본 것의 진실을 잊어 버립니다. 당신은 그 결함들을 잊어 버립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적용은 분명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삶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 속에 거하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것을 당신과 나에게 요구



하십니다. 그분은 성령이 우리로부터 흘러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풍성하게 맺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으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으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갑자기 터져 나올 것입니다.

#### 가짜가 상처를 입힙니다

거듭났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자들은 항상 교회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지 않을 때, 그들은 큰 손해를 입힙니다. 세상은 그러한 모조품을 조롱하는데, 공정하게 그렇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보는 그 모든 싸움, 말다툼, 험담, 사악한 경쟁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비웃습니다. 세상 사람은 조직화된 종교를 구경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왜 그것이 나에게 필요합니까? 우리 집에도 그것은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을 찾기 위해 교회에 갈 필요는 없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명백히 드러낼 것을 당신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이것이 단지 어떤 이론적인 이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그분의 영계 양도할 것을 당신에

게 요구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당신 안에 거하기 시작하도록, 그분은 당신이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과 당신의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그분과 함께 곤란을 견딜 때,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삶 속에서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그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야, 정말이지 멋진 삶의 방식이야! 그것 참 놀랍지 않아요?”라고 말하다가도, 집에 돌아와서는 “있잖아,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녀가 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것 대신에 물어 뜯고 게걸스럽게 먹어 치우고 찢기 시작합니다.

한편, 성령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이아, 이것은 어떤 가공의 이론이 아니란다. 이 같은 사랑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 네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야. 그분의 사랑이 너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가도록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너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주장할 수 있겠니?”

### 하나의 열매가 많은 맛을 내나니

만일 고린도전서 13장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묘사하고 정의한다면, 갈라디아서 5:22-23은 그 사랑이 활동할 때 무엇과 같은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에 대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이 중요한 구절에 있는 각각의 부분들을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

바울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그는 “육신의 행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술하는 데 얼마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은 멋진 목록은 아닙니다. 간음, 음행, 부정함, 색욕, 우상 숭배, 마술,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 시기, 살인, 술 취함, 흥청댐,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수치스러운 행위에 연루된 자들은 기대할 만한 멋진 미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갈라디아서 5:19-21).

다행히, 바울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계획된 훨씬 더 좋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행위들과 첨예하게 대조됩니다. 행위가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열매는 생명을 가져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행위들은 복수로,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말합니다. 그가 성령의 열매를 묘사하기 위해 아홉 개의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사실상 성령의 열매는 단 하나 아가페 사랑입니다. 나머지 여덟 개 단어들은 단순히 활동하는 아가페를 묘사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성령의 은사가 아홉 가지인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아홉 가지라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성령의 은사는 아홉 가지 이상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한 가지,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22-23에 기록되어 있는 나머지 여덟

가지 특성들은 사랑의 뒤를 이어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보여 주기를 요구하시는 그런 종류의 사랑, 즉 아가페의 특성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한 간략한 탐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백히 드러내기를 요구하시는 사랑의 종류는 헬라어의 에로스 [eros]나 필레오[*phileo*]가 아니라, 아가페[*agape*]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발전할 능력을 초월하는 신적 사랑의 깊이를 묘사하기 위해 신약 성경에서 다소 신중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자기를 주고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영을 따를 때 그들을 통해 밖으로 흘러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 기쁨과,

서로 사랑하는 한 쌍의 부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당신도 연무가 짙게 낀 음산한 날에 그들이 손을 잡고 걷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아름답고 멋진 날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기쁨은 사랑의 의식(意識)입니다.

당신이 주님과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어떤 일도 단조롭고 고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위해 하는 업무는 어떤 것도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과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은

대단한 기쁨입니다. 그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그분의 위대함과 위엄과 당신에 대한 불멸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당신에게 가져다 주며, 그것은 당신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 … 화평과

이 아가페 사랑은 화평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전쟁의 부재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서로를 실컷 패려고 애쓰던 두 사람과 연루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개입해서 두 사람을 떼어 놓고, 그들을 서로의 반대쪽에 둡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감사하게도, 우리는 평화를 되찾았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요?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리면서 서로를 향해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일격을 가할 수 있도록 그들을 제지하는 것이 없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화평이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사랑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은 참된 평화를 마음에 간직할 수 있고, 당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화평을 얻을 수 있습니다.

#### … 오래 참음과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다른 장에서 이 단어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 그 용어를 번역하는 하나의 대안적 방

법은 “오래 누그러뜨리는”(long-tempered)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래 누그러뜨리는”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들 모두는 그 반대에 대한 무엇인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나는 “성미가 급하다”(short-tempered)고 말하면, 당신은 즉시 내가 의미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우연하게라도, 내 발가락을 다치도록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당신을 가만 두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오래 참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나는 참고, 참고, 또 참았어. 그리고 이제는 나도 정말로 그것에 대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그것이 단지 내 육체가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이 사람은 나의 분노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만일 내가 조금만 더 참아야 한다면, 그렇게 하지 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기를!’

아가페 사랑은 참고, 참고, 또 참아도, 여전히 친절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양값음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도리는 다했으니, 이제 나도 쓴소리 좀 해야 겠어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아가페는 오래 참습니다.

#### … 부드러움과

친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귀기울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들 자신에게만 몰두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났던 불쾌한 어떤 일에 대해 누군

가에게 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귀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마치 당신이 방금 말한 것을 전혀 듣지 않은 것처럼, 곧바로 전혀 다른 것에 대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라고 그들이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음, 오늘은 그리 좋지는 않네요. 아이가 아파서요. 기분이 엉망이에요”라고 대답합니다.

“아, 저, 만일 오늘 나중에 요한이네 집에 가게 되면, ...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혀 민감함을 보이지 않으며, 당신에 대한 어떠한 참된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너무 몰두해 있어서, 당신에게 귀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과 우리의 문제들에 관심을 보이며, 우리에게 귀기울여 주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의 불행한 상황에 대해 연민을 보여 줄 누군가의 주의 깊은 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군중 속에서 갑자기 그러한 필요를 느낍니다. 아마도 당신은 어느 일요일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를 바라며 일찍 교회에 나와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들 각각의 작은 무리들과 함께 걸어 들어오는 것처럼 보

이고, 거기에 당신은 혼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습니다. “여기 나와 이야기 나눌 분 계세요? 나는 내 이야기를 들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친절할 모습으로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 나오며, 우리의 무감각함을 드러냅니다.

“오, 저기 제인이 있네. 안녕, 어떻게 지내고 있어?” 우리는 일어서서 친구에게 손을 흔들며 그 상처 있는 사람 바로 앞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군가 자기의 상처를 알아 주기만을 바라며 계속해서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친절합니다. 그것은 민감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감지하며, 그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는 것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선함과

나는 법이 어느 누구를 선하게 만든다고 믿지 않습니다. 사실상, 나는 좋은 사람들이 법들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들만이 법들을 필요로 합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고분고분하다면, 아마도 교통 통제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고안된 지역사회의 규칙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는, 당신은 어떤 법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들은 일반적으로 나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법들은 어떤 사람도 선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누군가 악을 행하는 것을 억제할지는 모르나, 어느 누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 자니가 착한 아이 같지 않아요?”라고 어떤 관찰자가 일요일 예배 시간에 말합니다. “저기 앉아 있는 것 좀 보세요. 너무 예의 바르고 조용하게 앉아 있잖아요.”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인다면, 여길 나갈 때 네 머리를 때려 눕힐 테니 알아서 해.” 이 경우에, 당신은 자니가 좋은 아이인지 아닌지를 정말로 알 수 없습니다. 그는 단지 겁을 먹었을 것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척, 당신은 목사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는 아마도 미소를 짓겠지만,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거 아시오?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척, 당신에게는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장성할 때, 그들은 당신 안에서 본 것과 동일한 종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아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게 될 것만을 행하기 원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나쁜 본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정말로 선함에 대한 가장 강한 동기가 되는 이유입니다.

… 믿음과

아가페 사랑은 신뢰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요소를 보이는 사람은 신실합니다. 그가 당신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봐서 염려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가 당신의 등 뒤로 가서 당신을 파멸시키려고 할까 봐서 염려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신뢰할 만합니다. 그는 신실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특성은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자라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에게 잘못을 고백하라고 명령하지만(야고보서 5:16), 그 일을 생각 없이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백을 듣게 될 사람을 선택할 때, 당신은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민감한 정보를 털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런 종류의 모든 것을 털어 놓는 참회 에피소드로 인해 불거진 실제 사건으로 힘들어 했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고백을 들을 사람이 신뢰할 만한가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많은 상처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세 사람의 사역자가 서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양심을 깨끗하게 하려고 함께 모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역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술을 마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항상 집에 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지 않

고, 혼자서 마십니다. 그렇지만 나는 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두 잔을 마십니다.”

다음 사역자가 말했습니다. “나의 문제는 여자입니다. 나는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여자들과 함께 있고 싶은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끔찍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 사역자가 말했습니다. “음, 나의 죄는 험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에서 나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주의하십시오. 당신은 누가 남의 일을 수군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즉 당신의 최상의 이익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만 참회의 고백을 하십시오. 나는 결국은 신뢰할 수 없는 자로 판명된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에 번번이 속을 태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형제들에 대해 결코 편견을 갖지 않게 해 주소서.” 나는 신뢰하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뢰하고 속을 태우겠습니다.

물론, 어리석을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것 보시오. 내가 진짜 로렉스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집에 가려면 돈이 필요해서 말이에요. 이것 대신에 나에게 100불 좀 주시겠소?” 나는 신뢰는 하지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훨씬 더 많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신실한 자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아주 깊은 사랑에 빠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 온유와

“온유”(gentleness)라는 단어는 겸손과 온순이라는 말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참된 겸손은 대부분 그것 자체를 의식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가끔 누군가 “우리는 단지 우리의 하찮고 시시한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그 즉시 나는 그 사람이 반경 8km 내에 있는 가장 거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만일 당신이 정말로 겸손하다면, 당신은 자신이 겸손하다는 사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는 “이제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고 분명하게 자신에 대해 기록했지만, 그는 결코 그의 겸손이 그를 자만케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그가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당신이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서 주고 섬기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거나 당신이 속한 무리를 앞서 가려고 하는 것을 저지합니다. 그것은 “알다시피, 난 당신을 위해 그것을 했어”라고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답으로 무엇인가 정말로 멋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바

로 그것의 본질이기 때문에 주고 또 섬깁니다.

온유는 당신이 죄를 범한 믿는 자를 회복하는 과정에 관여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상,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 기록한 직후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갈라디아서 6:1).

하나님은 결코 죄인을 저주하기를 원치 않으시며, 도리어 항상 그를 회복시키려고 애쓰십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잘못을 범한 모든 사람을 저주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대해 하나님의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저주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결코 그분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 과정에서 온유하고 온순한 영을 드러냄으로써 돕기를 원하십니다. 겸손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환경만 조성되었다면, 나는 당신이 했던 것만큼 쉽게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일 사랑 안에서 걷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러한 회복 과정에 참여해서 도우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온유는 “음, 나는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이 괴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유의 영으로 죄인들을 회복시키도록 우리를 부르셨지, 오만한 영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안하게 만들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라고 말함으로써, 율법의 강압적인 규제를 규정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온유의 영으로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보게, 나는 능히 그와 동일한 일까지도 저지를 사람이라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와 동일한 죄나 그보다 더 나쁜 죄를 저질렀을 것이네.’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합니다. 또한 겸손하고 온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 절제니

절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중용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드레스나 보석이나 소비나 오락 추구에 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근원적인 헬라어 용어를 번역하기 위해 ‘템퍼런스’(temperanc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현대의 독자들에게 이 단어는 술에 대한 혐오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절대 금주가이면서 매우 무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무절제한 여인은 결코 술을 입에 대지 않으면서도, 많은 다른 면에서 비열하고 경솔하며 어리석음 정도로 대담합니다. 절제된 사람은 원만하며 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그 사람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박고 자신의 기본적인 본능을 통제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믿는 자나 사역의 신용을 떨어뜨리거나 상처를 입히기 위해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는 자나 어떤 기관이 시간 외에 일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절제가 휴지기에 들어갔다는 제법 좋은 생각을 떠올립니다. 육체가 이기고, 파멸이 곧 뒤따를 것입니다.

나는 다른 믿는 자나 사역의 명성을 손상시키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끼는 자칭 믿는 자들의 마음을 무엇이 사로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명성을 손상시킴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세우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육체의 일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절제의 부족이 아니고는, 어떤 믿는 자도 그 지경에까지 가지 않습니다.

나는 그다지 인터넷에 심취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악을 위한 엄청난 잠재력을 제공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나는 왜 그들이 그것을 “웹”(Web)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하는데, 이는 그것에 호되게 말려들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익명성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이 보고, 읽고, 말하는 것에 거의 억제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통신망 위에 온갖 종류의 거짓말과 소문들을 비밀리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들에게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몇몇 개인들과 단체들을 알고 있는데, 그들의 전체적인 인터넷 실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해체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사이트는 성경이 물어 뜯는 것과 계걸스럽게 먹어 치우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들로 넘쳐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물어 뜯고 계걸스럽게 먹어 치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들을 파괴할 뿐입니다. 나는 절제가 빠져 있을 때, 웹은 교회가 서로를 대항하도록

만들 수 있는 적의 강력한 도구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극입니다.

인터넷 상에 웹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좋은 변증학적인 사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리고 최고의 믿음의 견해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변증학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적대하게 만들고 다른 변증자들이나 사역들을 은밀히 손상시키기 위해 그들의 명석한 지성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하지만, 이 일이 일어날 때, 사탄은 그들이 서로를 적대하며 험뜯고 계걸스럽게 먹어 치우도록 만들고는, 뒤에 앉아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반드시 주의해야만 합니다. 약간의 절제가 적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들 중 하나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사랑을 대적할 법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고 기록함으로써, 성령의 열매에 대한 그의 영향력 있는 논문의 결말을 짓습니다. 당신은 단지 참으로 친절할 수는 있지만, 더 친절할 수는 없다고 당신에게 말할 법은 없습니다. 어떤 합법적인 명령도 당신이 너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판관도 “미안합니다만, 당신은 반드시 그보다 덜 신실해야만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을 대적할 법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율법이 억제하기로 되어 있는 사악한 일들을 행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 모든 사랑스러운 형태로 성령의 열매를 드러냄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은 당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명백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그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이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2절)고 썼을 때, 그는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질까요?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행동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단계들을 밟습니다. 즉, 우리는 그들을 위해 성령의 열매를 명백히 드러냄으로써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사셨는데,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의 짐을 지셨고, 십자가로 가는 길 내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확신있게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베드로전서 5:7)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당신의 짐을 기꺼이 지려고 하시는 것처럼,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습니다(고린도전서 12:26). 그러므로 그분의 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예리한 민감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형제가 곤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그의 편에서 그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반드시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 개입해서 그녀가 자신의 짐을 지도록 돕는 방법을 우리 자신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 아가페의 상급

복음 사역의 상급은 환상적입니다. 매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기분 좋은 편지를 받습니다. 말씀 사역을 통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들이 묘사할 때, 정말이지 나는 많은 복을 받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듣고 내가 복을 받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주심으로 육체적으로 나에게 복을 주셨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영적으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정서적으로도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매우 세심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가서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내가 이런 식으로 바울을 따라다고 생각합니다(고린도전서 9:18). 사람들이 “여기 오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드셨어요?”라고 물을 때, “나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부담을

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그것이 재미있기도 한데, 사람들이 나의 비용에 대해 물을 때마다 나는 항상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나의 아버지는 무지하게 부자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나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넉넉한 비용구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풍성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나는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물어 볼 것도 없이,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복은 그분이 나에게 보여 주신 아가페 사랑의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전율이며,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걷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삽시다. 그것이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의 삶의 비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선한 삶의 비결입니다.







## 사랑을 검증하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하기 힘들어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담배 꾹초를 주우며 교회 운동장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나는 담배가 얼마나 더러운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손대지 않아야만 하는지를 끊임 없이 나에게 말해 주시던 어머니 곁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확신은 나의 머리 속에 너무나 철저히 각인되어서, 그 더러운 것들에 손가락 하나 대 본 적이 없을 정도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손을 뻗어 담배 꾹초 줍는 일이 극히 어려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행히도, 교회는 나에게 작은 집기 도구를 마련해 주었고, 나는 더 이상 그것들에 손을 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훨씬 더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너무 불결해! 담배

꽁초를 땅바닥에 버리고는 발로 그것들을 짓누르다니, 정말 역겨워!  
내가 그것들을 치우면서 운동장 주변을 걸어 다닐 때, 나는 징징 대고 불평하며 대체로 나쁜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하루는 내가 또 다른 담배 꽁초를 줍기 위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러한 짓을 한 사람들에게 화를 내며 나의 정기적인 일상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나에게 물으셨습니다.

“음, 주님, 그야 당신을 위해서지요. 그것은 당신의 교회이며, 저는 그것이 쓰레기장처럼 보이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만일 네가 정말로 나를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더 이상 불평하지 말아라.”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그분을 위해 담배 꽁초를 줍는다고 나 자신에게 말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실제로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기쁨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강조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징징 대는 것은 내가 정말로 그분을 위해 그것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단지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 오랫동안 그 거짓을 되풀이해서, 마침내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 거짓을 믿다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해서 스스로 그것을 믿게 된 사람을 알고 지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일어납니다. 사실상, 그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제법 자주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에 대한 매우 깊이 헌신된 것들을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위대한 헌신에 대한 과장된 말들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헌신에 대해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자주 우리는 그런 말들 뒤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실과 반대로 말하는 것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일련의 테스트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하다(예레미야서 17:9)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은 되풀이해서 자기를 속이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요한이 특별히 이 분야에서 능숙한데,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이 종종 자랑하는 핵심 문제들을 강조하고 나서 우리의 고백이 사실과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줄 여러 가지 테스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첫 번째 서신 전체에 걸쳐서, 요한은 그가 마음에 두고 있던 그런 종류의 사랑을 묘사하기 위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수준에서 이 사랑은 전적으로, 특히 그것 자체를 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아가페가 내 안에 살아 있을 때, 나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사랑합니

다. 나는 그들의 최상의 복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과 그들의 필요를 위해 좋은 것과 최상의 것만을 원합니다. 나의 마음 속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처럼 돌아올 것을 바라지 않고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질문은 단순히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합니까? 그분이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주장합니까?” 오히려 다음의 질문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사랑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 두 종류의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정말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분을 압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반드시 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의 첫 번째 서신은 두 개의 헬라어와 관련하여 “알다”라는 용어를 30번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20번 정도는 “알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기노스코’[ginosko]에서 유래하는데, 이는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전기가 살아 있는 소켓에 손가락을 대면, 당신은 지독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에 호기심에 열린 소켓에 손가락을 넣어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때 느꼈던 감전의 충격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노스코’ 즉 경험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아는 것”을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분



을 아는[ginosko] 줄 우리가 아느니라[ginosko].”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것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알다”의 두 번째 헬라어인 ‘오이다’[oida]는 요한일서에 열 네 번 정도 등장합니다. 이 용어는 직관이나 외부의 자원을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그것들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혹은 직관으로, 즉 ‘오이다’로 그것들을 압니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3장 2절은 “...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oida]...”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까요? 우리가 아직은 그것을 경험을 통해 알 수는 없지만, 성경 기록이 그것을 단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우리는 ‘기노스코’ 즉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알기보다는 ‘오이다’ 즉 직관이나 믿음을 통해 그것을 압니다.

이러한 약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요한의 테스트를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알기 위해 그의 서신의 일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 테스트 1: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기

여러 번에 걸쳐서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

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요한일서 2:3-6).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십니까? 당신은 그 주장에 대해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는 단순한 사실이 반드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그 증거가 그분에 대한 당신의 복종에서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요한이 어떤 증거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를 “사랑하는 자 요한”이라고 기억하는데, 이는 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주요 메시지를 그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사실, 그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법 강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말하며 돌아다니지만, 정작 그들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격하시키려고 애씁니다. 당신이 그분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 특히 서로 사랑하라는 그분의 최고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요한은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삶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말하면서 당신의 형제나 자매에 대해 쓴 마음이나 미움을 품고 있다면, 당신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 또한 사실입니다. 만일 당신이 정말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 안에서 완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해지다”(perfected)라는 단어는 “완성되다”, “완전히 개발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서 완전해지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압니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것보다 더 좋으므로, 그것은 곧 당신 안에서 완전해지는 사랑 또한 무조건적인 것보다 더 좋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 걸어야 할지니라”는 말에서 요한은 무엇을 의미하였을까요?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그의 서신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실마리를 던져 줍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베드로전서 2:21-23). 이것이 당신이 따르도록 예수님이 정하신 본보기이며, 당신이 따라 걸어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

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한복음 15:12)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최고이며, 그래서 사랑이 예수님과 당신의 관계에 대한 참된 증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은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의 서신의 끝부분을 향해 가면서, 요한은 다시 한 번 이 핵심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요한일서 5:2).

이 즈음에서 요한은 그의 논평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이제 그의 질문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입니다. 우리가 “나는 인간성을 사랑합니다! 내가 참을 수 없는 것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쉽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기본으로 다시 데려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돕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에, 당신은 그들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자신에게 질문함으로써 답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들에 복종하고 있는가를 자신에게 질문함으로써 그것에 답변하십시오. 특히 다음과 같은 명령들에 주목하십시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

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마태복음 5:44-45)라고 대답하십니다.

## 테스트 2: 서로 사랑하기

이 서신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요한의 권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가운데 몇몇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요한일서 2:9-11).

당신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증거는 다시 한 번 사랑의 문제, 특히 당신의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로 되돌아갑니다. 때때로 누군가가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한 매우 경멸스런 것들을 말하는 것을 엿들을 때, 나는 “당신 정말로 그들을 미워하는군요, 그렇죠?”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보통 어떻게 반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 아니요, 아니에요,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나는 그들을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만일 당신이 정말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렇게 비열하고, 잔인하고, 신랄한 것들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디도서 3:2)고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어둠에서 나와 하나님의 찬란한 빛 가운데로 옮겨 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

까?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한 단계 더 멀리 나아갑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간 줄을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어느니라(요한일서 3:14-15).

당신은 교회 활동들로 매우 바쁠 수 있고, 당신을 도우려고 함께 오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매우 화가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담배 콩초 이야기를 기억하시지요? “주님을 위해” 그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당신은 아무도 당신을 돕기 위해 다가오지 않는다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징징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 속에서 당신은 형제와 자매들에게 화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며, 요한은 당신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감히 당신을 살인자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참된 신적인 사랑을 입증하는 바로 이 문제를 두고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셨습니다. 비록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외형상 율법을 지켰지만, 그들은 내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스스로가 세운 기준들과 규칙들에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경멸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들은 예수님과 머리를 맞부딪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끊임없이 마음의 내적인 태도를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적인 행동보다 당신의 마음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는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쳤으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협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협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 불의 위협에 처하게 되리라”(마태복음 5:22). 당신이 다른 사람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당신은 결백한 희생자를 죽인 사람만큼 살인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기 쉽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당신이 형제들을 사랑할 때,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넣으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간 줄을 알거니와.”

그리고 여기에서 요한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랑은 실제적이고 지지가 되는 행동 가운데 그것 자체를 명백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기를 주는 사랑, 즉 아가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누가 이 세상의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달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요한일서 3:17-19).

당신은 그리스도인 형제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릴 것을 아마도 결코 요청받지는 않겠지만, 궁핍한 어떤 사람을 위해 당신 생계의 일

부분을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방식으로 참된 사랑이 입증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며 실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은 좋습니다만, 그것들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이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등을 토닥거리며 “음, 형제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당신 안에 거합니까?”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행위로 그분의 사랑을 명백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오, 내가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 이제 지옥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지옥에 갈 필요가 없도록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형제에게 웃웃이나 담요나 먹을 것이나 쉴 곳을 주지 않는다면, 필요를 가진 그에게 나는 어떤 도움을 줍니까? 우리가 행위로 사랑할 때, 우리는 진실되게 사랑합니다. 말로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훌륭하게 해 낼 수 없습니다. 누군가 만날 때마다 나에게 “오, 나는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형제여”라고 말하면, 나는 항상 조금 의심스러워 합니다. 갈보리 채플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 오랫동안 나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그 후 그는 비겁하게 나를 해치려고 전력을 다했습니다. 행동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즉 나가 전도함으로, 도와줌으로, 전화함으로, 격려의 말을 전함으로,



재정적으로 후원함으로 사랑합니다. 서로를 돕고 서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사랑으로 다가갑시다. 행위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실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참된 경험을 한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ginosko], 즉 경험으로 아는 방법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요한은 우리가 이 강조점을 이해했는가를 확실히 하기 원하며, 그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 한 번 더 그는 우리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이라(요한일서 4:7-8).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보시오, 나는 타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러한 것은 어떤 것도 알지 못합니다.

타언어로 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사탄도 타언어로 말하는 것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한다는 유일하게 참된 증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열매,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

제와 자매들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는 줄을 압니다. 나는 갈보리 채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때 여러분이 성령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삶 속에서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본다면, 그 때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사랑은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느니라(요한일서 4:11-12).

성경 기록은 종종 용서와 사랑의 본보기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권고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하고, 그분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여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에베소서 4:32).

자, 그것은 제법 어려운 주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이지 놀라운 일입니다. 한때 나는 어떤 친구와 절대 잘 지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그분의 사랑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나와 그 사람이 서로 협력하게 만드셨고, 마침내 그를 내가 아는 가장 소중한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이지 전율이 느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가 너무 멀리 날아서 “사랑하는” 성층권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완전하게 하신 것에 전율을 느낀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은 좋지만, 요한은 우리의 사랑이 실제적인 삶과 사람들과 접촉됨으로써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더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요한일서 4:20-21).

일찍이 요한이 하나님을 안다고 장담하면서도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쓴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든지 거짓말하는 자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상당히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형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면,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형제를 미워한다고 고백한다면, 당신은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당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과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일어날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양과 염소로 구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께 복종한 자들은 양들로서 그분의 오른쪽에 두고, 그렇지 않은 자들, 즉 염소들은 그분의 왼편에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때에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라,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었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니

이에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

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혈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그들도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혈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더이까? 하리라.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그러나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34-46).

바로 지금 당신 자신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당신이 미워한다고 고백해야만 할 사람이 마음에 떠오릅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은 당신의 삶 속에서 완전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 미움을 주님께 가져 갈 것을 권합니다. 그분께 그것을 없애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분께 당신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특히 이 사랑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완전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당신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달라고, 그리고 당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완전하게 해 달라고 그분께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테스트 3: 성령님 안에 거하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가페는 우리 자신 밖으로부터, 즉 하

나님 자신의 넘쳐 흐르는 사랑의 영원한 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 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24).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요한일서 4:13).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당신 위에 소유권을 표시하는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통해 하나님은 “이것은 내 것이다”고 광고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어떻게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가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 속에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성령님이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한 봉인이며 보증이 되십니까?

고대 세계에서, 에베소는 동부로부터 들어온 물건들이 서부로 옮겨지는 주요 항구의 역할을 했습니다. 육로로 에베소에 도착한 물건들은 로마의 주요 항구인 푸테올리(Puteoli)까지 배로 수송되었고, 거기에서부터 그것들은 나머지 서방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자, 에베소의 상인이 서방으로 보낼 물건들을 샀을 때, 그는 그것들을 나무판 상자에 넣고 뜨거운 밀랍으로 봉인했는데, 이 때 그 위에 자신의 반지로 서명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그의 소유권의 표시였습니다. 마침내 배가 푸테올리에 도착했을 때, 부두 노동자들은 어떤 나

무관 상자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알았는데, 이는 각각의 상자에 독특한 소유권 인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봉인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소유권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완전히 구속하시겠다는 그분의 의도를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할부금의 첫 번째 지불금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으며, 어느 날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요한일서 3:2).

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가진 장래는 정말이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는 사랑의 운명과 같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완전해지고 완성되고 흘러 넘칩니다.

### 가장 큰 테스트

요한의 짧은 서신에서 선택된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신앙 고백의 대부분의 증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아차렸습니까? 요한은 당신의 믿음과 나의 믿음의 실체를 정하기 위해 반복해서 세 가지 일반적인 테스트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공합니다.

1. 당신은 정말로 서로 사랑합니까?
2. 성령님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까?

### 3.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있습니까?

첫 번째 테스트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지와 분명히 관련이 있는 한편, 두 번째 역시 그것에 초점을 둡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은 또한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모든 명령들을 아우르는 한 가지 신적인 명령은 하나님과 그분이 만드신 백성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얻기 원한다면, 최선의 접근 방식은 당신이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주목함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는 당신이 진리 가운데 살고, 진리를 따라 걷고 있으며, 당신이 그분 안에 거하고 있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증거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당신은 A학점을 받았습니까? C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까? 혹은 아마도 당신은 자신에게 D나 F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점수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가져 가도록 당신을 통해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심



으로써 시작하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당신이 느끼는 쓴 마음, 분노, 미움을 하나님이 없애 버리시도록 당신은 기꺼이 자리를 내어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당신의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심으시도록 기꺼이 허락하겠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도 나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나는 다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심도록 허락할 것인지를 당신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당신에게 주시도록 당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겠습니까?

나의 친구들이여, 그것이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테스트입니다.







## 생활 양식으로서의 사랑

어떻게 핍박이 교회를 사랑으로 한데 묶는 것처럼 보이는가는 정말 이지 흥미롭습니다. 중국의 삼자운동(Three-Self Movement) 교회는 공산 정부의 꼭두각시이며, 그곳의 참된 교회는 지하의 가정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나는 갈보리 채플에 가입된 다른 여러 명의 목사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삼자 교회들에서 연설을 했는데, 정부가 지명한 열렬한 공산당원이 항상 우리와 동행했습니다. 그의 업무는 우리가 정해진 어떤 것들만을 보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즐겁지 않았지만, 우리들 모두는 그것이 매우 재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단지 공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보내진 정부의 첩자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실은, 나는 교제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연설을 끝내면, 나는 보통 곧바로 군중 속을 헤치고 나가서 그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베이징에서는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몰려 들었습니다. 당국자들은 너무 걱정된 나머지 신속하게 나를 뒷방으로 밀어 냈는데, 그곳에는 냉정하게 보이는 한 무리의 공산당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어로 말할 수 있었지만, 좀처럼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떼어 놓기만을 원했습니다. 내가 중국어로 말하지 않고 그들은 영어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무엇을 그토록 우려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미소와 악수와 우주적인 비언어적 사랑의 언어를 통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그 다음 삼자교회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통역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는 내가 결코 말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통역관이 나의 연설 사이에 끼워 넣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해 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국자들은 그 변화를 허락했지만, 내가 연설하는 시간 내내 음향 체계의 무엇인가가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큰 비명소리와 함께 그것을 웅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비명소리를 뚫고 아주 멋진 방법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 모임이 끝난 직후에,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몰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당국자들은 신속하게 그들을 쫓아 버리고, 우리들을 또 다른 뒷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기를 바라며 두 시간을 더 기다렸다고 들었습니다.

나의 아들 제프(Jeff)는 어쨌든 경호원들 사이를 몰래 빠져 나가 군

중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조용한 방에 앉아 있는 동안 그는 그들과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이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 중국의 지하 가정교회는 이와는 상당히 다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핍박으로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비밀리에 모입니다. 최근에 나는 일본에 근거를 둔 우리 전도팀들 가운데 하나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팀의 구성원들은 성경과 다른 자료들을 중국의 가정교회로 가져가는 일을 합니다.

나에게 편지를 쓴 그 여인은 자신이 연설하도록 초청을 받은 지역까지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자정 즈음 도착했을 때,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나타나 매우 조용히 그녀에게 “내 손을 잡고 나를 따라 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방으로 들어갔고, 그 곳에서 그 여인은 “당신이 언제 연설할 수 있을지 말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여인은 이 철저하게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곧 그 안내자는 “이제 당신이 연설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설자는 반 시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모임이 끝났을 때, 어느 누구도 말 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줄지어 어둠 속으로 나갔습니다. 이 여인은 출입문 옆 그녀의 위치에서 그곳을 떠나는 사람들의 발을 셀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앞을 볼 수 있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 백을 세었고, 이는 이 백 명의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앉아서 조용히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정부가 그들의 모임을 발견했다면,

경찰이 그 모임을 해산하고, 참석자들을 때리고, 그들의 물건들과 교육 자료들을 몰수했을 것이라고 그녀가 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고된 조건들은 믿는 자들을 더욱 더 밀접하게 결합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분께 진실되게 헌신하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이런 무서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음, 만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일 TV에서 농구 경기를 중계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나는 교회에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헌신을 다짐한 사람들만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통 주님과와의 관계와 서로간의 관계의 엄청난 깊이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그들이 함께 이 상황 속에 있음을 실감하기 때문에 강한 결속력을 공유합니다.

## 언제나 더 많아지는 사랑

사도 바울은 중국에서의 나의 모험과 매우 유사한 것을 고대의 데살로니가에서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멋진 교회였음에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있는 믿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연소함과 회심 직후에 겪어야 했던 격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게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래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너희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느니라.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의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 더 많이 하고(데살로니가전서 4:9-10).

이들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었는데, 기껏해야 몇 개월, 적어도 몇 주였을 것입니다. 심한 핍박이 아주 빠르게 일어났고, 바울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진지하게 하나님을 구했고, 그들의 믿음은 대단하게 자라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는 바울이 서로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풍성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신이 구성원이 되고 싶은 바로 그런 종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핍박을 좋아하십니까? 비록 그 교회의 성장과 사랑의 원인이 바로 그 핍박이었다는 것을 알지라도,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사랑이 많은 교회라는 훌륭한 평판을 얻었다는 사실에 감격하노라.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나는 너희가 이 사랑을 더욱 더 많이 행하기를 격려하고자 하노라. 그것이 더욱 많아지도록 하라!”

참된 그리스도의 몸의 표식은 믿는 자의 또 다른 믿는 자에 대한 위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35)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참된 사랑은 세상에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갔다는 인격적인 표식이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그 사랑이 더욱 더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실제적인 단계를 취하고 있

습니까?

##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가 더욱 더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다루어야 할 추악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잠언 10장 12절은 “미움은 다툼들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동료 믿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분명히 이 성경 기록을 마음에 두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베드로전서 4:8). 어떻게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을까요? 할아버지로서 나는 그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손주들을 사랑합니다. 내 눈에는 그들이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바닥에 설탕 한 봉지를 다 쏟아 버린다면 어떨까요? 알 게 됩니까? 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 참 재미있지 않니? 이것 봐! 작고 귀여운 설탕 더미가 만들어졌구나. 바닥 위에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보니, 그들에게 예술적인 재능이 보이는구나!” 사랑은 정말로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만일 당신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당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들은 훨씬 더 기꺼이 당신의 잘못을 눈감아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증오에 찬 사람의 잘못들을 자세히 조사할 것임



니다. 사실상, 그들은 그 잘못들을 가능한 한 많이 찾아 내서 지적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밝히는 것은 그들의 육신을 만족시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실수들을 눈감아 주기가 쉽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당신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은 차라리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실행할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당신의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 놓느니라.” 당신이 어떤 불미스런 보고를 들을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그것을 눈감아 주십시오. 그런데 오히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정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친구 관계를 파괴하고, 그것을 매장시켜 버립니다. 당신은 말함으로써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 놓을 수도 있고, 사랑의 침묵으로 친구 관계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게 하십시오.

##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첫 번째 서신의 처음 부분에서, 바울은 그의 믿는 친구들의 “사랑의 수고”(데살로니가전서 1:3)에 대해 말했

습니다. “수고”라는 단어는 지치거나 고갈될 때까지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종류의 수고를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릴 때 어머니가 집 주변을 바쁘게 다니며 지칠 때까지 수고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수고인데, 왜냐하면 그녀는 그 아름다운 작은 얼굴들을 바라보며 결코 한 번도 ‘저 더러운 얼굴들 좀 봐! 그들을 그냥 침대에 팽개쳐 버릴까?’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루 종일 청소했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따뜻한 목욕 수건과 부드러운 타월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더러운 손을 사랑스럽게 씻겨 주고, 지저분한 얼굴을 깨끗하게 닦아 주며 토실토실한 그들의 뺨에 입을 맞춥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사랑의 수고이며, 이는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 커져서 우리가 심지어 우리 자신의 육체의 피로를 고려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이지 영광스럽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5:14)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을 멸시하는 자들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알기 어렵게 만들며 우리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을 어쨌든 우리가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의심할 것 없이, 사랑은 실제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잠긴 마음의 문을 열쇠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

는 많은 생각과 많은 노력, 많은 인내와 창의성, 많은 시련과 실수, 그리고 소박하면서도 숙련된 많은 육체 노동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의 수고와 같은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 구함”이라는 광고를 당신에게 건네시며, “이 일에는 네가 적격이야”라고 말씀하십니다.

### 친구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신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당신의 친구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의 친구들인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고대 도시 빌립보에 매우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그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빌립보서 1:8). 이 문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all with the affection of Jesus Christ)라는 구절을 킹 제임스 성경은 더 문자적으로(all in the bowels of Jesus Christ) 번역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인간의 감정들이 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로부터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가장 깊은 감정의 영역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우리가 “창자 수준의” 감정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지칭하기 위해 “자비의 창자” 혹은 “동정의 창자”라는 어구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 대해 느끼는 바이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 위해 바로 그 어구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기를 전혀 부끄러워 하지 않았고, 분명히 그의 친구들이 그것을 듣고 용기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뒤에 그의 서신에서 그는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이”(빌립보서 4:1)라고 썼습니다. 이는 바울이 그의 친애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속을 털어 놓는 정말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심장 박동입니다. 그는 자신이 섬겼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를 섬겼던 사람들에게 대한 그의 깊은 사랑을 감정의 언어로 표현하면서 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와 바울의 친밀함은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보는 것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사들은 다소 접근할 수 없는 사색의 세계에 초연하게 있으면서 높이 받들어 모셔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그의 친구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왕관이라.”

바울은 단순하게 분별없이 그의 친구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들에게 아첨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그 즉시 사랑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그들에게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 더 풍성해지고”(빌립보서 1:9)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기도합니다. 당신은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사랑은 즉시 그 사랑받는 자를 그의 환경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연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그의 친구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그들이 서로에 대해 가진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 더 풍성해지며 더 많아지도록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그를 아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어구를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내게 배우라”(마태복음 11:29)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당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를 당신이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해 배우는 일에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여 그분을 아는 지식이 더욱 더 풍성해지도록 하고, 그분이 당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를 발견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분을 더 잘 알면 알수록, 당신은 당신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 더 멋진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당신의 사랑 안에서 당신이 “더욱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에,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이 그와 동일한 복된 경험을 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까다로운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친구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그분은 당신이 까다로운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는 거의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확실히 그러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지원하고 격려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반면,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에게 많은 반대와 실망을 안겨 줄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문제의 교회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대언자”라는 이름을 얻은 것처럼, 바울은 아마도 “눈물의 사도”라고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로 인해 흘린 눈물과 그들의 어설픈 선택으로 그가 겪어야 했던 마음의 고통에 대해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서신에서 그들에게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왜 그가 자신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언급했을까요?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2:4).

바울은 내가 하늘나라에서 몇 백 년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나는 항상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의 찬미자입니다.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린도전서 11:1)고 쓸 때, 나는 아무 조건 없이 그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바울의 본보기를 따르려고 노력했는데, 예를 들면 그가 교회에 대해 가진 사랑과 심지어 까다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가 보여 준 관심과 진리와 주님과과의 교제 안에서 걷는 자들을 만나 보려는 그의 큰 갈망과 같은 것들입니다. 나는 내 마음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마음을 닮아 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나는 감히 바울에게 가까이 가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는 그의 동포 유대인에 대한 그의 엄청난 사랑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로마서 9:3). 그것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그러한 수준의 관심과 사랑을 전혀 이해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 그는 정말이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심지어 까다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서신을 쓸 때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마음의 상태를 이해했는가를 두 번째 서신에서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노여움에서 그것을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아파하는 마음과 고뇌와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그가 주님께 데려 갔던 자녀들과 너무 심하게 타락하여 고통스러워 하는 자녀들로 인해 심히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서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써야만 했던 그 침울한 서신은 정말로 쓰기 힘들었노라. 나는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고뇌하면서 그것을 썼노라.” 다음에서 첫 번째 서신과 그에 대한 반응을 다시 떠올리면서, 어떻게 그가 자신의 혼을 드러내는가에 주의하십시오.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인하여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비록 내가 너희에게 썼을지라도 그것은 부당한 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또한 부당한 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며 오직 너희를 위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고린도후서 7:9-12).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쓰는 것이 쉽다는 것을 발견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그가 어쩔 수 없이 했던 책망으로부터 어떠한 즐거움도 얻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그는 그의 까다로운 교회인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고, 그러므로 그는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의 수고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아가페는 당신에게 당신의 친구들과 당신의 삶 속에 있는 까다로운 사람들 모두를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다루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걸음 더 멀리 나아가고, 당신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을 명령합니다.

내가 듣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누가복음 6:27-28).

이와 같은 것을 들을 때, 당신은 다음과 같이 논쟁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 잠시만요, 주님! 제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확실히 저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저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무리한 명령들입니다. 나 또한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과 논쟁하는 한, 나는 항상 시들고 뒤틀린 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결코 더 좋게 변하거나 성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항상 눈에는 눈과 이에는 이를 좇아서 보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나는 궤양에 의해 먹어 치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 저는 기꺼이 하고는 싶지만, 당신이 나를 통해 이 사람을 사랑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 요구되는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단순한 의지입니다. 이것은 그분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꺼이 순종함 속에서 나는 승리의 비결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불가능한” 명령들에 순종할 수 있는 수용량과 능력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자연적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화가 나고 비참해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떠나서는 그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마음을 문을 여는 것입니다.

## 친절한 영으로 사랑하십시오

당신은 입술을 삐죽거리고 으르렁거리면서 인색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비록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당신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라고 젊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이유일 것입니다(디모데전서 4:12).

하나님은 인색하고 비판적인 영보다는 부드럽고 친절한 영을 보일 것을 당신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대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것은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개들은 매우 다정한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다가와 꼬리를 흔들며 귀여워 해 달라고 구걸합니다. 그것들은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개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또한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으르렁거리며 당신을 물어 뜯을 개들도 만날 것입니다. 그것들은 관대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개처럼 당신을 물어 뜯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로 인색해질 수 있는가는 흥미로운데, 이는 내가 자주 그들로부터 편지를 받기 때문에 압니다. 그들의 편지를 읽을 때, 나는 그 글을 쓴 사람들이 틀림없이 전적으로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내적으로 너무 많은 분노와 너무 많은 쓴 감정과 너무 많은 미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발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 편지들을 종이 절단기에 넣으면서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편지들에 대해 주목할 만한 것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너무 비판적이며,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이 분명하게 마귀라는 답을 암시하면서 “누가 저주하는 자인가?” 라고 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오늘도 마귀로부터 또 다른 편지 한 통이 왔군. 그냥 조각 내버리고 지나가야지.’

만일 당신이 비판하는 영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당신이 정착하는 곳 어디에서나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이트 농부가 현관에서 흔들의자에 앉아 있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지붕 위에 침대 매트리스를 싣고 그 뒤에 가구를 높이 쌓아 올린 트레일러를 매단 차가 어느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창문을 내리고는 그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삽니까?”

“당신이 이전에 살던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소?”라고 그는 계속 의자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오, 그들은 인색하고 심술궂고 비열한 사람들이었습니다”라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음, 이곳에 사는 사람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를 남겨 두고 재빨리 그곳을 떠나 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차 한 대가 지붕에 매트리스를 싣고 트레일러에

가구를 높이 쌓아 올린 채 그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삽니까?”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이 이전에 살던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소?”라고 농부가 물었습니다.

“오, 그들은 당신이 그 주변에서 함께 살기를 바랄 수 있는 가장 친절하고, 가장 관대하고, 가장 멋진 사람들이었습니다”라고 그들은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음, 이곳에 사는 사람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라고 그 농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문제는 당신이 가는 곳마다 당신 자신을 데리고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인색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가는 곳마다 당신의 인색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가는 곳마다 친절함과 다정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 안에 있지 않고,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자,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함께 차를 마시려고 누군가를 초대하는데, 인색한 사람과 다정한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은 누구를 선택할 것입니까? 그리 어려운 선택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일단 당신이 비판적인 모드에 빠지게 되면, 당신은 모든 것을 비판하려는 강한 경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녹음된 설교들을 주의깊게 듣는데,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판할 어떤 실수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끊임 없이 흠을 잡을 무엇인가를 찾아 다니며 비난할 점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판적인 영에 사로잡힐 때, 그것은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판하는 것에 숙달되면, 당신은 다른 어떤 것도 좀처럼 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사랑과 성령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라고 명령하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온유하고 조용하며 부드러운 영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리스도인이여, 이것이 그대의 소명이라

나는 많은 세대에 걸쳐서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서, 그들을 섬기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을 연구함으로써 사랑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쓴 만큼, 나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비로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으며, 또한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실상 우리는 우리들 자신 안에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

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과 같은 사랑하라는 요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랑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 보는 사랑의 부족은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로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실패한 결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님께 사랑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들이 성령 안에 거하고, 또 그 안에서 살면서 열매를 맺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줄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욕구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을 향한 그리고 주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반영하고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기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즉 지체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참되고 진실한 애정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주목할 것입니다. 흠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종종 다음과 같이 말한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오, 교회에 너무 많은 위선자들이 있어서 나는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영화 보러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군중 가운데는 어떤 교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위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된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그것을 꾸며 내지 마십시오! 그분은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22).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스도인이여, 이것이 그대의 소명이라.” 나는 우리가 이 노래를 불렀던 그 옛날 천막 안에서서의 스스럼 없던 날들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팔을 두르고 온 마음을 다해 그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스도인이여, 이것이 그대의 소명이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땅 위에는 평화를, 사람들에게는 호의를 베푸시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은 영원하리.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은 영원하리.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스도인이여, 이것이 그대의 소명이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Love, 전통적인 포크 멜로디, 작자 미상)









## 후기

# 그런데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깊고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분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이 드러내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

당신은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사랑의 경이로움을 경험합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매일 아침 새로운 방법으로 그분의 사랑을 당신에게 보여 주신다고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2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나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그분 자신에게로 영원히 가까이 데리고 오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널리 알립니다.

답례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그분이 먼저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자이고, 당신은 반응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당신을 위해 죽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 가장 명백하게 입증된 하나님의 사랑에 당신의 주의를 모으려고 항상 애쓰는 이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긴요하게 연결됩니다. 당신이 그분 안에 거함으로 당신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분의 사랑은 당신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사랑이 완전해지는 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분의 완전한 사랑에 대한 당신의 경험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 냅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패한 과거에 대한 결과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당신은 현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계시며, 그분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 어떤 일도 당신에게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좋은 이유와 목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이제 당신은 두려움 없이 삶의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분의 사랑 안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지지하고 지켜 주실 것이기에, 당신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 냅니다.

당신은 영원한 미래나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한 장소를 예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분이 당신을 위해 한 장소를 준비하신다면, 그분은 다시 오셔서 당신을 그분 자신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분이 계신 곳에 당신도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은 그 이야기의 결말을 압니다. 비록 그 이야기가 예상치 않은 전환과 전개를 맞이할지라도, 비록 그 과정에서 많은 의문점과 애매한 것들이 생겨날지라도, 그리고 비록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또한 비록 몇몇 난해한 에피소드로부터 어떤 유익이 나올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지라도, 여전히 당신은 그 이야기의 결말을 압니다. 즉 그들은 그 후 언제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영원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분과 함께 끝이 없는 세상에 있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 오늘 당신의 마음이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그분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서 완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 영원히 배우십시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끝부분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진술합니다. 그는 자신이 저술한 책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훨씬 더 멀리 나아가 구세주와 함께 보냈던 영광스러운 몇 해를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그것들을 낱알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 두기에 부족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요한복음 21:25).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님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행하셨다고 보고합니다. 요한은 그의 독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 그것들 중 몇 가지를 선별한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무수한 말들과 사건들이 기록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신이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충분한 정도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의 나머지는 잃어 버리게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의 시간 내내, 그 나머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

는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무한한 보화들을 당신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아는 데는 영원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영원히 들어가도록 할 만큼의 충분한 것이 성경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거기에 있다면, 당신은 그 나머지를 배울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끝없이 수세기 동안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친절함의 부요함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단순히 그것에 대해 그분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심으로 인해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쉼을 얻도록 도와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에 반응하며, 당신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사랑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가 당신의 불타는 사랑의 마음을 이 세상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척 스미스의 사랑

초판 인쇄 2011. 1. 5

초판 발행 2011. 1. 10

지은이 척 스미스

옮긴이 김 인원

발행처 갈보리채플 극동선교회 출판부

©갈보리채플 극동선교회 출판부 2010

등록 제 13-01-15-10호

330-600 충남 천안시 대흥동

천안우체국 사서함 129호

전화 041) 557-4607

홈페이지: [www.FarEastMission.org](http://www.FarEastMission.org)

값 12,000 원

ISBN 978-89-961879-4-3